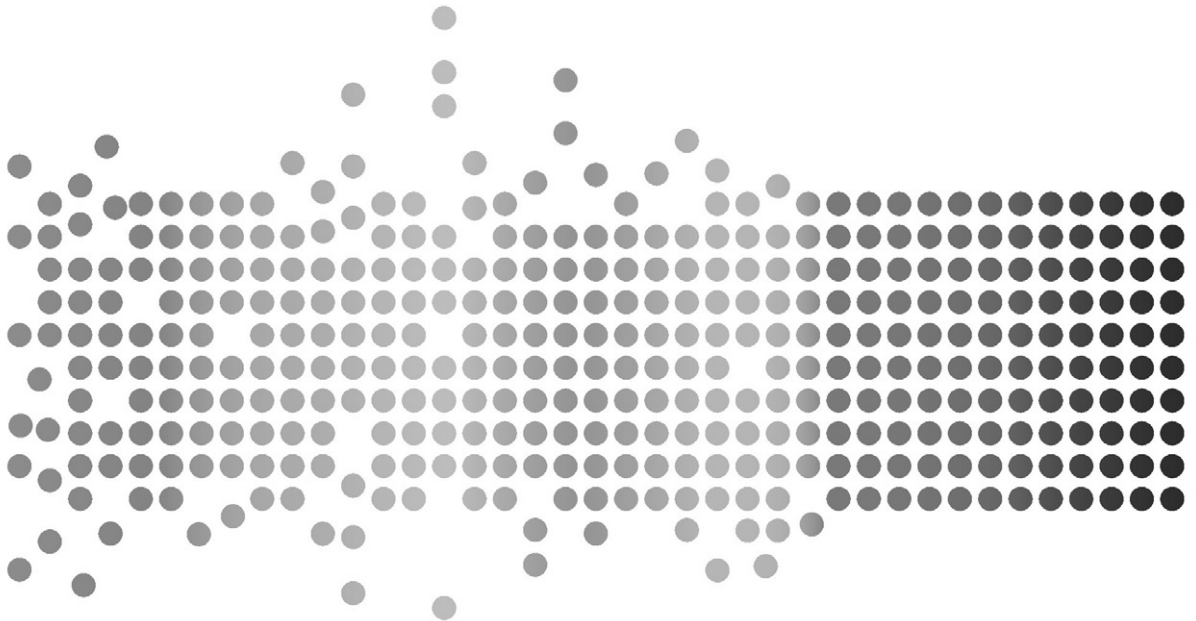


생애주기변화와 출산행태 간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 교육, 경제활동 및 결혼을 중심으로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Change in Life Course and
Fertility Behavior

이삼식 · 최효진



연구보고서 2010-30-2

생애주기변화와 출산행태 간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 교육, 경제활동 및 결혼을 중심으로 -

발행일	2010년 12월
저자	이삼식 외
발행인	김용하
발행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68(우: 122-705)
전화	대표전화: 02) 380-8000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등록	1994년 7월 1일 (제8-142호)
인쇄처	대명기획
가격	5,000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ISBN 978-89-8187-700-2 93330

머리말

금세기 초 한국사회는 극저출산이라는 과거에 결코 예상하지 못한 현상을 겪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반세기 동안 급격한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이룩하였다. 그러나 최근의 초저출산현상은 미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할 수 없게 하고 있다.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006년 이래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0)을 시행하였으며, 2011년부터는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1~2015)을 추진할 예정이다. 기본계획에는 80여개의 다양한 저출산 대책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 저출산 대책들을 분류하여 보면, 기혼여성들이 출산·양육과정에서 겪은 개별적인 사상(event)의 장애요인들을 제거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 결과 보육료 등 자녀양육비용을 경감해 주기 위한 정책들이 대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그 외에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정책들, 육아지원인프라(서비스)를 양적으로 확충하고 질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정책들, 그리고 가치관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외국의 저출산 대책들을 고찰해 보면, 보육, 교육, 고용, 주거, 복지 등 보다 거시적인 차원에서 마련되어 추진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저출산이 여러 사회현상의 유기적인 변화의 결과로 인식하고, 보다 사회구조적인 접근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우리나라의 저출산 대책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거시적이고 사회구조적인 접근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교육, 경제활동(취업), 결혼, 출산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생애과정(life course) 메커니즘의 변화가 출산력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여, 저출산에 대한 사회

구조적인 접근의 기초를 제공하고 하였다. 구체적으로 생애과정별로 변화와 결혼 및 출산 행태 간의 상관성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근간으로 향후 저출산 대책의 발전 방향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저출산 현상을 연구하는 전문가와 더불어 효과성 있는 저출산 대책을 마련에 노력하고 있는 정책담당자들에게 유익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보고서를 읽고 조언을 해준 본 원의 장영식 박사와 김미숙 박사에게도 감사드린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결과는 우리 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니라 연구자의 개별입장을 대변함을 밝혀둔다.

2010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김 용 하

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서 론	17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7
제2절 연구내용	19
제3절 연구방법	20
제2장 선행연구 고찰	25
제1절 생애과정의 개념	25
제2절 생애과정과 출산행태 간의 연관성	27
제3장 결혼·출산관련 생애과정 변화분석	33
제1절 교육참가의 생애과정	33
제2절 경제활동의 생애과정	42
제3절 혼인의 생애과정	45
제4절 출산의 생애과정	54
제4장 생애과정간 연계성과 출산수준	75
제1절 생애과정간 연계성 변화	76
제2절 생애과정간 연계성과 출산행태	80
제3절 생애과정간 연계성 변화가 출산행태에 미치는 영향	86
제5장 결론 : 종합논의 및 정책적 제언	99
참고문헌	105

표 목차

〈표 3- 1〉 가임인구의 초대(4년제 미만) 이상 학력 인구의 비율, 1970~2005	34
〈표 3- 2〉 가임인구의 대학(4년제 미만) 이상 학력 인구의 비율, 1970~2005	37
〈표 3- 3〉 코호트별 가임기 경과에 따른 초대·전문대 이상 학력 비율 변화	39
〈표 3- 4〉 코호트별 가임기 경과에 따른 대학(4년제) 이상 학력 비율 변화	41
〈표 3- 5〉 가임인구의 초대 이상 학력의 세부구분별 비율, 2000년과 2005년	42
〈표 3- 6〉 가임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1980~2009	43
〈표 3- 7〉 연도별 미혼율, 1970~2005	47
〈표 3- 8〉 출생코호트별 연령 경과에 따른 미혼율	49
〈표 3- 9〉 남녀의 초혼시기, 1972~2009	50
〈표 3-10〉 여성의 교육정도별 미혼율, 1970~2005	52
〈표 3-11〉 여성의 유·무업별 미혼율, 1980~2005	53
〈표 3-12〉 5세 기간 동안 낳은 출산 자녀 수 추이, 1970~2009 ...	55
〈표 3-13〉 가임기 유배우 여성의 평균 출생아 수 추이, 1970~2005 ...	57
〈표 3-14〉 출생코호트별 Parity Progression Ratio, 45~49세 기준	59
〈표 3-15〉 출생코호트별 Parity Progression Ratio, 35~39세 기준	60

〈표 3-16〉 기혼여성의 학력별 연령별 평균 출생아 수	62
〈표 3-17〉 기혼여성의 학력별 출산순위이행률(PPR)	64
〈표 3-18〉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여부별 출산순위이행률(PPR)	68
〈표 3-19〉 유배우 여성(20~44세)의 초혼연령별 평균 출생자녀 수 ...	70
〈표 4- 1〉 기혼여성의 출생코호트별 생애과정 변화, 2009년 기준 ..	77
〈표 4- 2〉 생애집단별 각 생애과정 도달시기, 35~44세(2009년 기준)	79
〈표 4- 3〉 생애집단별 생애과정 간 소요기간, 35~44세(2009년 기준)	79
〈표 4- 4〉 기혼여성(1970~1974년생)의 생애과정별 결혼·출산행태, 2009년 기준	81
〈표 4- 5〉 1965~1969년생 기혼여성의 생애과정별 결혼·출산행태, 2009년 기준	82
〈표 4- 6〉 생애과정집단별(대분류) 평균 출생아 수, 35~44세(2009년 기준)	83
〈표 4- 7〉 세부적인 생애과정집단별 출생아 수, 35~44세(2009년 기준)	85
〈표 4- 8〉 생애과정이 결혼행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회귀모형 : 변수 ..	86
〈표 4- 9〉 다중회귀분석 결과 : 생애과정 변화가 초혼연령에 미치는 영향(2009년 기준)	87
〈표 4-10〉 생애과정이 출산행태에 미치는 영향 : 변수	88
〈표 4-11〉 로지스틱회귀모형 : 생애과정이 자녀가치관에 미치는 영향 (2009년 기준)	89

〈표 4-12〉 회귀모형 : 생애과정 변화가 출생자녀 수에 미치는 영향 (2009년 기준)	91
〈표 4-13〉 회귀모형 : 생애과정 변화가 기대자녀 수에 미치는 영향 (2009년 기준)	92
〈표 4-14〉 회귀모형 : 초혼연령에 대한 생애과정 간 연계성의 영향 (35~44세 기혼여성)	93
〈표 4-15〉 회귀모형 : 생애과정 간 연계성이 출생자녀 수 및 기대자녀 수에 미치는 영향(20~34세 기혼여성), 2009년 기준	94
〈표 4-16〉 로지스틱회귀모형 : 생애과정간 연계성이 자녀가치관에 미치는 영향(20~34세 기혼여성), 2009년 기준	96

그림 목차

[그림 3- 1] 가임인구의 초대(4년제 미만) 이상 학력 비율	35
[그림 3- 2] 가임인구의 초대(4년제 미만) 이상 학력 비율	36
[그림 3- 3] 코호트별 가임기 경과에 따른 초대·전문대 이상 학력 비율 변화	38
[그림 3- 4] 코호트별 가임기 경과에 따른 대학(4년제) 이상 학력 비율 변화	40
[그림 3- 5]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1980~2009	44
[그림 3- 6] 연도별 미혼율 변동 추이, 1970~2005	46
[그림 3- 7] 출생코호트별 연령경과에 따른 미혼율	48
[그림 3- 8] 5세 기간 동안 낳은 출산자녀 수 추이, 1970~2009	56

[그림 3- 9] 연령별출산율(ASFR) 패턴 변화	57
[그림 3-10] 유배우 여성의 평균 출생아 수 추이, 1970~2005 ..	58
[그림 3-11] 출생코호트별 Parity Progression Ratio, 45~49세 기준	59
[그림 3-12] 출생코호트별 Parity Progression Ratio, 35~39세 기준	61
[그림 3-13] 기혼여성의 학력별 출산순위이행률(PPR)	65
[그림 3-14] 유배우 여성(20~44세)의 초혼연령별 평균 출생자녀 수 ...	71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Change in Life Course
and Fertility Behaviors**

The policies in response to low fertility have been focused on subsidy for childcare costs and supply for daycare facilities and services since explorations of causes of low fertility has been restricted to micro events which the women went through during childbirth and childrearing. Therefore, this study aimed at identifying the macro events or mechanism which have caused low fertility in the society, mainly focusing on life courses of education, economical activity, and marriage. The data used for the study included Population Censuses, Vital Statistics, and National Survey on Dynamics of Marriage and Fertility. The methods applied to the study were Parity Progression Ratio(PPR), mean age at first marriage, mean ages at births, regression, and logistics model.

The main findings can be summarized are as follows;

Firstly, there have been increases in education level and economically active participation among women in childbearing ages. The major age group experiencing cessation of job career has shifted from 25~29 age group to 30~34 age group along with increase in age at first marriage.

Secondly, postponement of first marriage has been dominant among

the women at ages of 25~34, characteristic of higher educational level and economically active participation.

Thirdly, postponement of first marriage tends to delay the timing of childbirth and hence frequencies of childbirths. The PPR from 2nd to 3rd order of birth has rapidly declined and the PPR from 1st to 2nd order of birth has also declined to around 80 percent, implying that families with one child or two children become universal. It is also notable that in recent cohorts PPR from zero to first order of birth decreases, specifically among women with higher education level and in economic activity.

Fourthly, women with higher educational level tend to work after finishing education, since ages of last education and first work are very high. Therefore, timing of first marriage and childbirth were more delayed for women with higher educational level and/or in economic activity.

Lastly, an individual fertility level was decided through interactions of education, economical activity and marriage in a continuous life course.

Taking into consideration those results, the policies to smoothly connect life courses of education, work, marriage and childbirth should be emphasized to effectively respond to low fertility.

요약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이 주목받고 있는 주된 이유는 비교적 짧은 기간에 고출산 사회에서 저출산 사회로 이행하였으며, 아주 낮은 출산율(합계출산율 의미함) 수준이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006년 이래 5년 동안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0)을 시행하였으며, 2011년부터는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1~2015)을 추진할 예정이다. 기본계획에 포함된 저출산 대책들은 보육료를 포함한 자녀양육비용 지원,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육아지원인프라(서비스)의 양적 확충 및 질적 수준 제고, 가치관 변화 유도 등에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저출산의 원인들을 미시적인 차원에서 기혼여성들이 출산·양육과정에서 겪은 개별적인 사건(event)에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출산 대책들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저출산의 원인을 미시적인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거시적인 차원에서 규명하고, 이를 토대로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미 많은 연구들은 우리나라 저출산의 주된 원인들 중 하나로 만혼화 현상을 지적하여 온 것이 사실이다. 이와 관련하여 만혼화나 만산화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 영향으로 출산력이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하는 메커니즘에 대한 체계적이고 계량적인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교육, 경제활동(취업), 결혼, 출산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생애과정(life course)의 변화가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여 거시적인 차원에서의 저출산 원인을 규명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방안들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생애과정별로 변화의 방향과 주된 특성을 파악하며, 이를 위하여 코호트 간 차이와 동일 코호트 내 집단 간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어서 생애과정의 상호 연관성을 분석하고, 그러한 연관성의 변화가 출산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끝으로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거시적인 차원에서의 향후 저출산 대응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연구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자료와 분석방법을 적용하였다. 분석대상 자료로 통계청에서 실시한 「인구주택총조사」와 「인구동태조사」를, 그리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전국결혼및출산동향조사」의 결과를 주로 이용하였다. 이들 자료를 이용한 분석 기간은 주로 1970년부터 현재까지이다. 본 연구에는 통계표(cross-tabulation) 분석, 지표(합계출산율, 출산순위간이행률, 초혼연령, 출산연령) 분석, 회귀모형, 로지스틱모형 등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생애과정, 생애주기, 생애사, 생애기간 등 여러 유사 개념 중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개인이 수행해야 하는 것으로 정의된 사건과 역할의 연속체로 정의할 수 있는 생애과정을 적용하였다. 구체적인 생애과정들은 출산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일정한 사건들 즉, 교육, 노동시장참가(혹은 경제활동), 결혼(초혼) 등으로 설정하였다.

우선 교육, 경제활동, 결혼, 출산 등 일련의 생애과정에서 각 과정별 변화와 주된 특징을 분석하였다.

교육의 생애과정은 고학력화 현상이 뚜렷하게 진행되는 특징을 보인다. 초대·전문대 이상의 학력 비중은 가장 주된 출산연령층인 25~29세 여성의 경우 1970년 4.8%에서 2005년 66.5%, 그리고 30~34세 여성의 경우 2.8%에서 50.6%로 급상승하였다. 대학(4년제) 이상 학력을 기준으로는 25~29세 여성의 경우 1970년 3.5%에서 2005년 41.0%로, 30~34세 여성의 경우 2.1%에서 32.1%로 급상승하였다. 2005년도 20~24세 여성의 대학 이상 학력 비율은 46.5%에 이르고 있어 주된 출산연령층의 고학력화는 향후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25~29세 여성의 대학 이상 학력 비율을 코호트

간에 비교하여 보면, 1955~1959년생의 경우 6.6%에서 1975~1979년생 25.9%, 1980~1984년생 41.0%로 급격하게 높아졌다.

경제활동의 생애과정을 보면, 연령에 따라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아지나 결혼과 출산으로 인한 단절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다만, 전형적인 M-curve 형태가 다소 약화되어가고 있으며, 경력단절이 심한 연령층도 과거 25~29세에서 최근 30~34세로 전환하고 있다.

결혼의 생애과정이 시작되는 시기는 지속적으로 늦추어지고 있다. 여성의 초혼연령은 1990년 24.8세에서 2009년 28.7세로 지난 약 20년 동안 3.9세가 증가하였다. 코호트별로 미혼율은 1960~1964년생의 경우 20~24세 66.1%에서 25~29세 18.4%로 변화한 반면, 1980~1984년생은 88.7%에서 59.1%로 변화하여 최근 코호트일수록 결혼시기가 더욱 늦추어지고 있다. 교육생애과정에 따른 미혼율은 고학력일수록 높아지는 경향이 뚜렷하다. 2005년을 기준으로 25~29세 여성의 미혼율은 중·고학력 43.5%, 초대·전문대학력 60.5%, 대학학력 69.7%, 대학원(석사) 73.6%, 대학원(박사) 75.6% 등이며, 30~34세 여성의 미혼율도 초대·전문대·대학학력 20%수준, 대학원(석사) 30% 수준, 대학원(박사) 40%수준을 상회하였다. 경제활동생애과정에 따른 미혼율은 취업경험이 있는 경우에 상대적으로 높다. 25~29세에서의 미혼율은 유업여성의 경우 1980년 29.8%에서 2005년 73.1%로 그리고 무업여성의 경우 6.7%에서 39.9%로 증가하여 유업여성의 경우 두 배 이상 높다. 2005년 현재 30~34세 유업여성의 미혼율은 30.1%로 무업여성의 미혼율 10.1%보다 3배 정도 높다. 결국 최근의 만혼화 경향은 20대 후반과 30대의 고학력 및 취업여성들이 주도하고 있다.

출산의 생애과정은 그 시기가 점차 늦추어지고 있으며, 그 영향으로 출산횟수도 감소하고 있다. 25세 도달 전에 낳은 자녀 수는 1970년 1.08명에서 2009년에 0.09명으로 감소하였으며, 25~29세에서의 출산자녀 수는 1.61명에서 0.40명으로 무려 1/4수준으로 감소하였다. 30~34세에서의 출산자녀 수는 1970년 1.02명에서 1985년 0.19명으로 감소하였으나, 이후 2009년에 0.50명으로 증가하였다. 35~39세에서의 출산자녀 수도 1970년

0.52명에서 1985년 0.04명까지 낮아졌으나, 이후 2009년에는 0.14명으로 증가하였다. 만혼화로 20대에서의 출산 일부가 30대로 지연되어 발생하고 있으나, 20대에서 출산자녀 수의 감소폭이 커 전체 출산율은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코호트별(1931~1935년생부터 1966~1970년생까지)로 35~39세에 도달 시 첫째자녀에서 둘째자녀로의 이행률(PPR2)은 거의 100%에서 80%수준으로 감소하여 1자녀 출산 후 단산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으며, 둘째자녀에서 셋째자녀로의 이행률(PPR3)은 93%에서 16%로 감소하여 둘째자녀 출산 후 단산이 보편화되고 있다. 최근 코호트일수록 무자녀에서 1자녀 출산으로 이행한 비율(PPR1)도 90%초반수준으로 감소하고 있어, 최근에 만혼화와 불임 등으로 인한 무자녀 부부의 증가가 특히 저학력 계층들 사이에서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다자녀 출산으로의 이행률은 고학력층일수록 더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1966~1970년생(35~39세 도달 시)의 경우 PPR1은 전체적으로 88.3%이나 초대·전문대 학력 87.3%, 대학원 학력 74.5%로 나타난다. PPR2는 초대·전문대 학력 80.5%, 대학 학력 77.9%, 대학원 학력 68.7%로, 그리고 PPR3은 초대·전문대 13.7%, 대학 11.8%, 대학원 10.9% 등으로 더욱 낮아진다.

경제활동상태별 출산순위 이행률을 2005년 35~39세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비경제활동 집단보다 경제활동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더 낮게 나타난다. 예로 PPR2는 경제활동집단 81.3%, 비경제활동집단 82.3%, PPR3은 경제활동집단 15.4%, 비경제활동집단 16.6%이다.

출산과정과 결혼과정 간의 관계는 부적으로 나타난다. 구체적으로 출생아 수는 초혼연령이 높은 여성집단(20~44세)일수록 상대적으로 적어진다. 출산을 완결한 40~44세 기혼여성의 평균 출생아 수는 25세 미만에 결혼한 경우 1.95명, 25~29세에 결혼한 경우 1.88명, 30~34세에 결혼한 경우 1.55명, 35세 이상에 결혼한 경우에는 1.12명에 불과하다.

교육, 경제활동, 결혼, 출산 등 일련의 생애과정들 간 연관관계와 그 변

화 및 주된 특징을 분석하였다.

동일한 코호트일지라도 교육-경제활동-결혼 등 일련의 생애과정들을 겪은 형태는 다양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교육생애과정을 고졸 이하, 대학(3년 미만 수학), 대학(3년 이상 수학), 대학원으로, 경제활동 생애과정을 무직과 입직연령에 따라, 그리고 결혼생애과정을 초혼연령에 따라 세분화하여 각 생애과정들을 조합(총 40개)하였다. 이 중 사례수가 비교적 충분한 조합 즉, 세부생애집단들만을 분석하였다.

교육연령(종료당시 연령)과 입직연령 간에 상호 연계성이 강하게 나타난다. 고학력일수록 교육연령과 입직연령 모두 높다. 한국 사회에서 교육을 완전히 마친 후에 취업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육연령만큼 입직연령의 차이가 크지는 않다. 주된 이유는 저학력층일수록 일찍이 교육을 마쳤을지라도 취업을 하는데 상당기간이 소요되어, 결과적으로 입직연령은 유사해지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학력별 입직연령은 고졸 이하 23.4세, 초대·전문대 23.6세, 대학 25.6세, 대학원 26.9세이다. 학력별 교육·입직 간 소요기간은 고졸 이하 4.2세, 초대·전문대 2.4세, 대학 2.3세 등이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고용기회에서 학력수준 간 차이가 발생하며, 그로 인하여 실제 학업을 일찍이 종료한 경우에도 결혼과 출산 연령에는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동일학력을 가진 경우에도 취업 시 교육연령이 다소나마 높게 나타나, 상급학교 진학 등을 이유로 교육이 연장된 것으로 나타난다. 예로 고졸 이하 여성의 교육연령은 무직 시 19.1세, 입직 시 19.2세, 초대·전문대학력 여성은 무직 시 20.9세, 입직 시 21.3세, 대학학력 여성은 무직 시 23.1세, 입직 시 23.4세이다.

교육-경제활동의 생애과정에 따른 초혼연령은 고학력 집단일수록 높으며, 동일학력집단 중에서는 무직에 비해 경제활동 시 상대적으로 높다. 예로, 초대·전문대학력 여성의 평균 초혼연령은 무직인 경우 25.4세, 경제활동 시 27.1세이며, 대학학력 여성의 초혼연령은 무직인 경우 26.2세, 경제활동 시 27.1세로 차이가 있다. 이러한 경향성은 초산연령으로도 이어지며, 특히 고학력층 사이에서 더 강하게 나타난다. 즉,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동

일 학력수준인 경우 경제활동을 한 생애집단의 경우 초산연령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난다. 예로, 대학학력 집단의 경우 경제활동 시 초산연령은 평균 28.7세로 무직인 경우 27.5세보다 높다.

교육-경제활동-결혼의 생애과정에 따라 출생아 수에 차이가 있다. 35~44세 기혼여성을 기준으로 ‘고졸 이하-무직-25세 미만 결혼’ 생애집단 2.10명, ‘고졸 이하-무직-25~29세 결혼’ 1.91명, ‘고졸 이하-무직-30세 이상 결혼’ 1.31명이다. ‘고졸 이하-25세 미만 입직-25세 미만 초혼’ 1.99명, ‘고졸 이하-25세 미만 입직-25~29세 초혼’ 1.90명, ‘고졸 이하-25세 미만 입직-30세 이상 초혼’ 1.34명이다. 고졸 이하-25~29세 입직-25~29세 초혼인 경우 1.55명, 고졸 이하-25~29세 입직-30세 이상 초혼인 경우 1.31명이다. 이러한 양상은 모든 학력 및 직업경력 집단에서 유사하게 나타난다. 즉, 어느 두 생애과정들이 동일한 경우에는 다른 한 생애과정에 따라 출생아 수가 변화하게 된다. 예를 들어, 학력수준과 경제활동경험이 동일한 경우에는 초혼연령에 따라, 학력수준과 초혼연령이 동일한 경우에는 경제활동경험 유무에 따라, 그리고 경제활동경험과 초혼연령이 동일한 경우에는 학력수준이라는 교과생애과정에 따라 출생아 수가 변화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고학력이고, 경제활동을 하고, 초혼연령이 늦을수록 출생아 수는 급격하게 줄어든다. 요컨대, 출생아 수는 생애과정들로서 교육, 경제활동, 결혼(초혼)이 상호보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서 결정되고 있는 것이다.

교육-경제활동의 생애집단 간에 결혼행태와 교육-경제활동-결혼의 생애집단 간 출산행태 차이가 유의미한가에 대하여 그리고 어떠한 생애과정의 조합들이 출산수준에 대해 보다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통계적으로 검증해보았다.

초혼연령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준거집단=‘고졸 이하-무직’), ‘고졸 이하·25~29세 입직(0.11)’, ‘고졸 이하·30세 이상 입직(0.06)’, ‘전문대·25세 미만 입직(0.07)’, ‘대학·25세 미만 입직(0.04)’, ‘대학·25~29세 입직(0.14)’, ‘대학·30세 이상 입직(0.14)’ 등의 생애집단들은 초혼연령에 정적인 영향을, 고졸 이하·25세 미만 입직(-0.12)의 생애집단은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 전문대·무직과 대학·무직의 생애집단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

출산행태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준거집단=고졸 이하·무직·25세 미만 초혼), 출생자녀 수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생애집단들은 ‘고졸 이하·무직·30세 이상 초혼’, ‘고졸 이하·25세 미만 입직·30세 이상 초혼’, ‘고졸 이하·25~29세 입직·25~29세 초혼’, ‘고졸 이하·25~29세 입직·30세 이상 초혼’, ‘고졸 이하·30세 이상 입직·30세 이상 초혼’, ‘대학·25세 미만 입직·30세 이상 초혼’, ‘대학·25~29세 입직·25~29세 초혼’, ‘대학·30세 이상 입직·30세 이상 초혼’ 등으로 나타난다. 반면, 학력수준이 낮으면서 일찍이 취업하고 일찍이 결혼한 생애집단 즉, ‘고졸 이하·25세 미만 입직·25세 미만 초혼’과 전문대 학력의 무직 혹은 일찍 취업하고 일찍 결혼한 생애집단들은 통계적 유의미성이 없다.

기대자녀 수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는 출산자녀 수에 대한 회귀모형의 결과와 거의 일치한다. 35~44세 기혼여성들의 추가자녀 수가 많지 않아 기대자녀 수와 출생자녀 수간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자녀가치관에 대한 로지스틱분석 결과, 생애집단 간 자녀가치관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alpha < 0.1$)하지 않다. 교육, 경제활동, 초혼시기 등 생애과정들이 다들지라도 자녀가치관이 유사하며, 이는 과거 오랜 기간에 인구증가억제정책 등의 영향으로 인하여 소자녀관이 보편화되어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주요 결과들과 그 시사점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가임기 여성들 사이에 고학력화 현상이 뚜렷하며, 특히 최근 코호트일수록 그 속도가 빠르게 진척되고 있다.

둘째,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추세에 따라 전형적인 M-curve형태가 다소 약화되고 있으며, 주된 경력단절 연령층도 25~29세에서 30~34세로 이동하고 있다.

셋째, 여성의 만혼화 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최근 코호트일수록 결혼시기가 더욱 늦추어지고 있다. 최근의 만혼화 경향은 20대 후반과 30대 고학력 및 취업 여성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이러한 만혼화현상은 출생아

수 감소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넷째, 출산시기가 점차 늦추어지고 있으며, 그 영향으로 출산횟수도 감소하고 있다. 만혼화 경향으로 인하여 20대에서의 출산 일부가 30대로 지연 발생하고 있으나, 20대에서 출산자녀 수의 감소폭이 커 전체적으로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다. 최근 코호트들 사이에서 둘째 자녀에서 셋째 자녀로의 이행률이 아주 낮아, 두 자녀 출산 후 단산이 보편화되고 있다. 특히 최근 코호트들의 첫째자녀에서 둘째자녀로의 이행률은 80%수준으로 낮아져 1자녀 출산 후 단산하는 경향도 증가하고 있다. 또한, 최근 코호트일수록 만혼화와 불임 등으로 인하여 무자녀에서 첫째자녀 출산으로의 이행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 이와 같은 출산행태의 변화는 고학력 및 경제활동 여성들 사이에서 더욱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다섯째, 고학력일수록 교육종료연령과 입직연령 모두 높아 한국 사회에서 교육을 완전히 마친 후에 취업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다. 그러나 저학력층의 경우 일찍이 교육을 마쳤을지라도 취업을 하는데 상당기간이 소요되어 고학력층과 입직연령은 유사하다. 한국 사회에서 학력 간 고용기회의 차이로 인하여 교육기간이 결혼시기와 출산연령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동일학력을 가진 경우에도 취업 시 상급학교 진학 준비 등으로 교육종료연령이 높아지고 있다.

여섯째, 교육-경제활동의 생애과정에 따른 초혼연령은 고학력 집단일수록 높으며, 동일학력집단 중에서는 무직에 비해 경제활동 시 상대적으로 높다. 이러한 경향성은 초산연령으로도 이어지며, 특히 고학력층 사이에서 더 강하다.

일곱째, 교육-경제활동-결혼의 생애과정에 따라 출생아 수에 차이가 있다. 어느 두 생애과정들이 동일한 경우에는 다른 한 생애과정에 따라 출생아 수가 변화하게 된다. 예를 들어, 학력수준과 경제활동경험이 동일한 경우에는 초혼연령에 따라, 학력수준과 초혼연령이 동일한 경우에는 경제활동경험 유무에 따라, 그리고 경제활동경험과 초혼연령이 동일한 경우에는 학력수준이라는 교과생애과정에 따라 출생아 수가 변화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오

랜 기간에 교육을 받고, 경제활동을 하고, 늦게 결혼할수록 출생아 수는 급격하게 줄어든다.

여덟째, 학력수준과 취업상태가 획일적으로 초혼연령에 영향을 미치기보다 교육-경제활동의 생애과정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구체적으로 교육기간이 짧으나 입직연령이 늦은 경우, 그리고 교육기간이 긴 경우에는 입직연령과 상관없이 상대적으로 늦게 결혼하고 있다. 반대로 교육을 덜 받고 동시에 일찍 경제활동에 참가한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일찍 결혼을 하고 있다. 긴 기간에 걸쳐 교육을 받았으나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 초혼연령은 불규칙적으로 나타난다.

끝으로, 출산행태가 학력수준, 경제활동상태 및 초혼시기에 의해 획일적으로 영향을 받기보다 연속선상에 있는 생애과정에 따라 영향을 받고 있다. 저학력이면서 경제활동상태 혹은 입직연령과 상관없이 30세 이상에서 결혼하는 경우, 저학력이면서 25~29세 이상에서 입직하고 25~29세에서 결혼한 경우, 대학 이상 학력의 여성으로서 입직연령과 상관없이 30세 이상에서 결혼한 경우에 출생아 수가 상대적으로 적다. 반면, 학력수준이 낮으면서 일찍 취업하고 일찍 결혼한 집단과 전문대 학력의 무직 혹은 일찍 취업하고 일찍 결혼한 집단의 출생아 수는 일관적이지 못하다. 생애과정에 따른 기대자녀 수의 차이는 일관성이 없는데, 소자녀관이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결과들은 궁극적으로 출산수준은 연속적인 생애과정으로서 교육, 경제활동 및 결혼의 상호 복합적인 작용에 의해 결정되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들이 생애과정의 어느 한 단면에 편중되기보다 생애과정 간 연속적인 흐름을 매끄럽게 해주는 소위 윤희유 역할을 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향후 저출산 대책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교육수준은 출산과 부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일반화되고 있으나, 본 연구의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출산행태는 교육 후 경제활동 등 후속적인 생애과정들과의 연계성 하에서 결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우리사회에서는 학업을 마친 후 경제활동을 하는 순서가 규범화 되고

있다. 부분적으로 동일한 학력계층이라도 취업을 위하여 교육기간을 다소 연장하는 경향이 있으며, 교육기간이 상대적으로 짧더라도 입직연령이 늦어져 결과적으로 혼인시기와 출산시기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력 간 고용기회와 임금의 격차가 줄어들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토대로 일정한 교육을 마치고 취업한 후 원할 때 다시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work-to-school 체계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후 진학 체제 구축(전문계 고졸 재직자 특별전형 개설대학·학과 확대, 계약대학, 사내대학 설치 등) 및 대학 평생교육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 사례로 핀란드에서는 학령인구를 위한 일반대학과 폴리테크닉에서 성인을 대상으로 한 고용시장 훈련 및 개방대학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모토로라 대학, 맥도널드 햄버거 대학 등 산업체가 사내에 교육장을 설치·운영하여 학력·학위를 인정하는 사내대학들이 설치·운영되고 있다.

둘째, 입직연령을 낮추기 위해서는 맞춤형 교육 활성화, 기능대학의 확충 및 질적 수준 제고 등을 통해 학교와 직업현장을 밀접하게 연계할 수 있는 school-to-work(학교에서 현장으로) 체계가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대학의 취업지원 인프라(인력, 예산, 프로그램 등) 확충, 재학 중 체계적 직업상담, 취업프로그램 등 제공, 진로교육 지원시스템 마련, 직업심리검사 개발·보급(온라인화 등) 강화 내지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 work-to-school과 school-to-work 등의 방안들은 저출산·고령사회에서의 노동력 부족 등에 대처하는데 있어서도 매우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본 연구의 결과로서 고학력층은 입직연령과 무관하게 늦게 결혼을 하고, 그 경우 상대적으로 출산수준이 낮다. 이는 고학력층이 취업 시 기회비용이 커져 쉽게 결혼하지 못하고, 결혼 후에도 출산이 억제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현실적으로 우리사회에서는 여전히 결혼생활 및 출산·양육과 직장생활 간의 양립이 곤란하여, 많은 직장여성들이 결혼을 늦추고 출산을 줄이고 있는 경향이 강하다. 요컨대, 일과 가정 간의 양립이 가능한 사회 구현이 고학력 취업여성의 결혼시기를 앞당기고, 희망하는 자녀 수의 출산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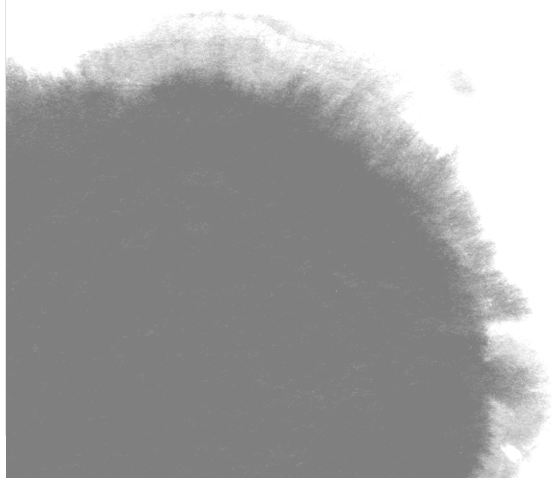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사회적 기제로 볼 수 있다. 일-가정 양립을 일상화하기 위한 인식 개선과 함께 사회시스템의 개혁이 매우 필요하다.

끝으로, 우리나라의 교육·노동시장 및 이를 둘러싼 환경 등을 감안하면 교육-고용-결혼-출산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생애과정의 흐름은 상당 기간에 걸쳐 장애에 부딪칠 것이다. 이에 따라 만혼화와 만산화 경향이 지속되어 저출산의 주된 원인으로서 계속 작용할 것이다. 요컨대, 사회시스템 내지 메커니즘의 개선이라는 근본적이면서 사전적인 접근이 매우 중요하나, 적어도 당분간 만혼화와 만산화 경향에 적절히 대응하는 사후적인 접근도 중요하다. 구체적으로 생애과정의 연속선상에서 불가피하게 선택할 수밖에 없는 만혼과 만산의 위험(risk)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다. 그 방안으로 고위험 임신, 저체중 출생아 및 미숙아 발생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모성 및 영유아에 대한 건강관리체계를 보다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마더세이프 프로그램 등과 같이 임신 및 수유 등에 관한 정보 제공과 교육 및 홍보를 체계화하여야 할 것이다. 질 높은 검진서비스 등을 증가시키고 재정적인 지원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로 일본에서는 고연령 임신부에게 양수검사, 초음파 검사 등을 정부가 제공해주고 있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 도출하고 있는 분석 결과와 정책방안들은 저출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보다 거시적인 차원에서의 중장기적 접근법을 강구하는데 유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가장 주된 한계점으로는 생애과정의 관점에서 좀 더 치밀한 종단면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정된 자료를 이용한 관계로 출산과 직적 혹은 간접적으로 연관된 사건(event)들을 풍부하게 담아내지 못했다. 또한, 본 연구에 포함된 사건들에 관해서도 좀 더 상세하고 체계적인 연계분석을 실시하지 못했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점들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자료 수집단계에서부터 연구의 목적들이 충분히 반영될 필요가 있겠다.

01

서론



제1장 서론

제1 절 연구배경 및 목적

저출산 현상은 여성 1명이 가임기간 동안 낳을 자녀 수(합계출산율)가 인구대체수준인 2.1명 이하에서 지속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저출산 현상은 서구사회에서 이미 오래 전부터 진행되어 왔으며, 20세기 후반에 들어서는 동아시아 국가들을 포함한 많은 지역의 국가들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되어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이 주목받고 있는 주된 이유들로는 비교적 짧은 기간에 고출산 사회에서 저출산 사회로 이행하였으며, 아주 낮은 출산율(합계출산율 의미함) 수준이 장기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로 우리나라 출산율은 1960년 6.0명에서 13년만인 1983년 인구대체수준으로 낮아졌으며, 2001년 1.3명 이하로 낮아진 이래 약 10년 동안 세계 최저수준의 초저출산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출산율의 급격한 하락과 초저출산현상의 지속은 인구규모의 기하급수적 감소와 인구구조의 심각한 불균형을 야기하여 우리사회의 안정적인 변화는 물론 심지어 지속가능성마저 훼손시킬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미 국내의 많은 연구들이 밝혔듯이, 저출산 현상과 그 결과로서 고령화 현상은 경제적으로 노동력 부족과 노동생산성 저하, 소비 감소에 따른 내수시장 위축, 자본스톡과 투자 감소로 인한 확대재생산 축소, 경제성장 둔화와 국가경쟁력 쇠퇴 등을 발생시킬 것이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사회보장의 지출 욕구가

증가하나 저출산으로 세수기반이 약화되어 재정수지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급기야는 세대 간 갈등이 나타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006년 이래 5년 동안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0)을 시행하였으며, 2011년부터는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1~2015)을 추진할 예정이다. 기본계획에 포함된 저출산 대책들은 크게 보육료를 포함한 자녀양육비용 지원,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육아지원인프라(서비스)의 양적 확충 및 질적 수준 제고, 자녀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사회체제 구축 및 서비스 제공 등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배경에는 저출산의 원인들을 자녀양육 및 교육비용 부담 증가, 육아지원인프라 미흡, 일·가정 양립 곤란, 가치관 변화 등으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지금까지 진행된 저출산 원인에 대한 연구는 미시적인 차원에서 기혼여성들이 출산·양육과정에서 겪은 개별적인 사건(event)에 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기존 연구들 대부분은 자녀양육비 부담, 고용불안정, 일·가정 양립 곤란, 건강문제, 가치관 변화 등을 출산을 저하의 주된 원인으로 설정하고, 이들 각각의 요인과 출산수준과의 상관성 분석에 상당한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

저출산 대책들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저출산의 원인을 미시적인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거시적인 차원에서 규명하고, 이를 토대로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이미 많은 연구들에서 우리나라 저출산의 주된 원인들 중 하나로 만혼화 현상을 지적하여 온 것이 사실이다. 만혼화 현상과 결부하여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과 더불어 노동시장에의 참여 확대에 대한 연구들도 추진되었다. 그러나 만혼화나 만산화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 영향으로 출산력이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하는 메커니즘에 대한 체계적이고 계량적인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작업은 보다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에 입각한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는데 기초가 되며, 그러한 정책들은 우리가 안고 있는 저출산 현상을 효과적으로 극복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는 교육, 경제활동(취업), 결혼, 출산으로 이어지는 일

련의 생애과정(life course)의 변화가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여 거시적인 차원에서의 저출산 원인을 규명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방안들을 제시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생애과정별로 변화의 방향과 주된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며, 이를 위하여 코호트 간 차이와 동일 코호트 내 집단 간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어서 생애과정의 상호 연관성을 분석하고, 그러한 연관성의 변화가 출산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거시적인 차원에서의 향후 저출산 대응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한국 사회에서 출산과 관련한 생애과정이 어떻게 변화하고 어떻게 출산행태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메커니즘을 규명해줌으로써 저출산 현상에 대한 학문적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 출산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생애과정들로서 교육-노동시장참가-결혼-출산의 상호연계성과 이들의 저출산 현상에 대한 인과관계를 규명하고 정책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는데 실효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2절 연구내용

본 연구의 내용은 크게 6개 부문으로 구성된다. 우선 제1장은 서론으로 본 연구의 배경과 목적을 제시하고,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방법을 체계적으로 밝히고 있다.

제2장에서는 생애과정에 대한 이론을 고찰하여, 본 연구에서 적용할 생애과정들을 규명하고 그 범위를 설정한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 설정한 생애요인과 출산과의 연관성에 대한 기존의 연구 결과들을 체계적으로 고찰하여 한계점과 함께 본 연구에의 시사점을 도출한다. 생애과정에 대한 이론과 출산 관련 연구에의 반영 내용을 토대로 본 연구의 기본틀(research framework)을 설정한다.

제3장에서는 생애과정들의 각각에 대해 과거 변동추이와 주된 특성을 분석한다. 결혼과 출산의 생애과정들에 대해서는 자체의 변화와 함께 이전의 생애과정들 즉, 교육 및 경제활동 간의 관계 하에서 수준과 패턴의 변화를 분석한다. 특히, 생애과정별로 코호트 간 또는 코호트 내 집단 간 차이와 출산수준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이 장에서의 분석 결과는 이하의 장에서 통계적인 검증을 위해 기초적인 토대로 제공된다.

제4장에서는 생애과정 간 연계성 차원에서 그 변화가 출산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한다. 현실적으로 교육, 경제활동 참가, 결혼, 출산 등 생애과정들은 한국 사회에서 일정한 순서로 연계하여 진행되며, 간혹 상호작용을 통해 동시에 진행되기도 한다. 따라서 생애과정 각각 혹은 두 생애과정만을 별도로 분리하여 분석할 경우, 그 결과를 이용하여 생애과정들 간의 메커니즘을 제대로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다. 본 장에서는 생애과정들 간 연계성을 분석하는 동시에, 그러한 연관성이 결혼과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통계적으로 검증한다. 이어서 연구 결과들을 종합하여 저출산 대응을 위한 거시적인 차원에서의 정책 방안을 제안한다. 끝으로 제5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정책적 제언과 함께 향후 연구에 대한 한계점을 제시한다.

제3절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연구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자료와 분석방법을 적용한다. 우선 분석 대상 자료로 통계청에서 실시한 「인구주택총조사」와 「인구동태조사」, 보건복지가족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전국결혼및출산동향조사」의 결과를 주로 이용한다. 이들 자료를 이용한 분석 기간은 주로 1970년부터 현재까지이다.

「인구주택총조사」는 매 5년마다 실시되는 것으로 가임기 여성의 연령, 교육, 경제활동 등 일반적인 사항들뿐만 아니라 본 연구의 주요 분석 대상이 되는 결혼 및 출산 행태에 관한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결혼행태로는

결혼여부(혼인상태)와 혼인시기(초혼연령) 그리고 출산행태로는 출생아 수, 출산순위, 출산시기 등이 조사에 포함되어 있다. 다만, 출산행태에 관한 항목들이 1995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포함되지 않았으며, 혼인상태 이외의 혼인시기는 극히 일부 연도의 인구주택총조사에만 포함되어 있다. 이와 같은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인구주택총조사를 이용한 시계열 분석은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관련 항목들을 포함한 다른 조사들의 결과를 이용하여 분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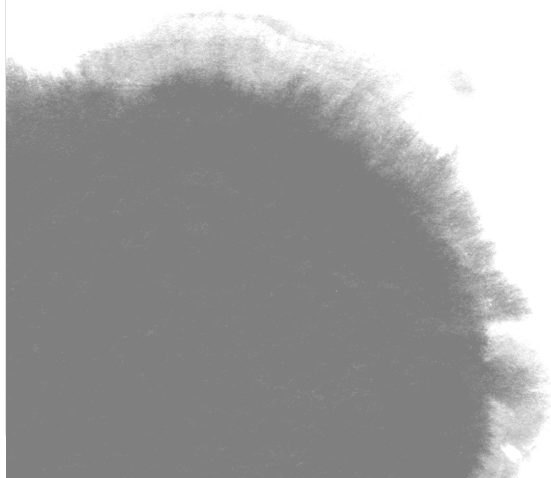
『인구동태조사』를 통해 혼인과 출산의 동태적 사건에 대한 연간 단위의 통계를 분석한다. 축적 개념이 아니라 매년 발생하는 혼인과 출산을 단위로 작성되기 때문에, 주로 혼인 및 출산의 수준, 연령별 패턴, 발생시기 등을 분석하는데 적용한다.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는 가장 최근에 실시한 2009년도 조사를 주로 이용한다. 동 조사에서는 생애과정들로서 교육, 경제활동참가, 결혼, 출산 등 일련의 사건들이 체계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특히, 동 조사는 횡단면적 조사임에도 불구하고, 종단면적인 접근법을 적용하여 여성개인의 교육부터 출산에 이르는 생애과정들을 회고(retrospective)하여 조사하였다. 따라서 동 조사의 자료는 생애과정들 간 유기적인 연관성을 파악하고, 그 연관성이 결혼 및 출산 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는데 주요한 자료로 이용된다.

본 연구에서 적용한 분석방법들로는 통계표(cross-tabulation) 분석, 지표 분석, 회귀모형, 로지스틱모형 등을 포함한 심층통계기법이다. 생애과정별 수준과 특성, 출산과의 단순연관성 등에 대한 탐구적인 분석을 위해서는 통계표와 지표분석을 주로 이용한다. 분석 대상이 되는 지표들로는 합계출산율, 출산순위 간 이행률(parity progression ratio), 초혼연령과 출산연령과 같은 평균이 포함된다. 생애과정별 및 생애과정들 간 연계성이 결혼행태와 출산행태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회귀모형과 로지스틱모형이 적용된다.

02

선행연구 고찰



제2장 선행연구 고찰

제1 절 생애과정의 개념

생애과정(life course)은 생애주기(life cycle), 생애사(life history), 생애기간(life span) 등과 유사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생애과정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개인이 수행해야 하는 것으로 정의된 사건과 역할의 연속체로 정의할 수 있다. 생애주기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개인이 그들의 삶을 영위해 나가는 시간적 구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영아기, 유아기, 청년기, 노년기 등으로의 분류가 한 예이다. 생애사는 개인 혹은 그룹의 핵심적인 삶의 이벤트의 연대기로 볼 수 있다. 생애기간은 보다 개인에게 초점을 둔 접근으로 규범적 발달 단계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과 이들이 속해있는 역사적, 사회경제적 맥락의 상호 관련성을 중시하여 개인의 삶의 역사와 과거의 사건이 미래의 결혼 및 출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연구를 하기 위한 것으로, 이에 가장 적합한 개념으로서 생애과정을 적용하기로 한다. 이러한 생애과정의 주요 개념은 다음과 같다(Chibucos & Leite, 2004).

첫째, 사회역사적 그리고 지리적 위치의 개념을 가진다. 개인의 발달은 자신이 속해있는 역사적 시점과 지리적 위치 그리고 거기에서 발생한 사건(events)과 상태에 의해 결정되므로, 서로 다른 출생코호트 및 개인은 서로 다른 생애과정을 경험한다고 가정할 수 있다. 예로 전쟁, 경기불황 그리고 사회문화적 이데올로기(가부장주의) 등은 개인의 삶의 발달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둘째, 개인의 시간, 세대의 시간 및 역사적 시간의 개념을 가진다. ‘개인
의 시간’은 연령에 대한 문화적 정의에 따라 구분된 시간으로, 예로 아동기,
청소년기, 노년기 등이 해당된다. ‘세대의 시간’은 개인의 연령을 기반으로
동일한 연령대로 구성된 집단으로, 예로 베이비붐세대 등이 해당된다. ‘역
사적 시간’은 사회적 혹은 대규모의 변화나 사건을 의미한다.

셋째, 이질성과 다양성을 가진다. 동일한 코호트라 할지라도 개인의 성,
사회적 계층, 가족구조, 인종, 지역 등의 요소에 의해 생애과정에 대한 적
응능력이 다르므로, 코호트는 동일한 개인으로 구성되었다고 볼 수 없음을
가정한다.

넷째, 개인의 생애과정은 거시적 사건(전쟁 등) 뿐만 아니라 타인(가족성
원, 배우자, 동료, 친구)과도 상호연관성을 가진다.

다섯째, 개인의 사회성(human agency)을 가진다. 개인은 문화, 사회, 제
도적 맥락에 의해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사회구조 및 규범을 형성할 수도
있다. 또한 개인에게 발생하는 사건을 조절할 수도 있다. 예로, 대공황 시
기에 가족이 지출을 줄여가며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다.

여섯째, 과거의 생애과정은 미래에 영향을 미친다. 과거는 현재와 미래를
구성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코호트/세대 수준, 개인/가족 수준에
서 발생한다. 예로, 이전 세대의 여성운동은 다음 세대 여성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전 삶에서 발생한 사건이나 행동은 개인의 생애과정에 걸
쳐 연쇄적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예로, 빈곤의 재생산, 가정폭력의 세
대전이 등이 해당된다.

본 연구는 생애과정, 생애주기, 생애사, 생애기간 등 여러 유사 개념 중
생애과정을 적용하여, 생애과정 간의 연관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
구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생애과정의 개념을 충실히 반영하면서 출산과
보다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일정한 사건들로 한정하여 생애과정의 범
위와 내용을 설정하고자 한다. 그러한 사건들로는 교육, 노동시장참가(혹은
경제활동), 결혼(초혼) 및 출산이 포함된다. 이하에서는 이들 주 생애과정의
사건들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분석하도록 한다.

제2절 생애과정과 출산행태 간의 연관성

생애과정의 주요 사건으로 교육참가와 노동시장참가가 결혼과 출산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이미 많은 연구에서 밝혀진 바 있다. 또한, 혼인의 시기도 출산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국내와 국외를 불문하고 지금까지 대부분 연구들은 고학력 여성이 저학력 여성보다 출산력이 낮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이삼식 외, 2007; 김두섭·차승은·송유진외, 2007; 이삼식·신인철·조남훈 외, 2005; 김태현·이삼식·김동회, 2005; Beets, 1997). 2005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결과에 의하면 결혼이행률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취업한 경험이 있는 경우에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다(이삼식·신인철·조남훈 외, 2005).

김태현·이삼식·김동회(2005)는 통계청의 인구센서스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하여, 과거에는 고졸학력층이 그리고 최근에는 대학 이상 고학력층의 출생아 수 감소가 어떠한 변수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제시하고 있다. Andersson(2005)도 상대적으로 교육수준이 낮은 여성이 그렇지 않은 여성들보다 출산율이 낮음을 밝히고 있다. 그 전에 Palomba et. al.(1997)은 현대사회에서 높은 학력수준을 가진 고연령 여성들이 점차 결혼시장에서 조건에 적합한 배우자를 찾기가 어려워져 결국 혼인을 비자발적으로 포기하는 경향이 증가한다고 한다.

이삼식·신인철·조남훈 외(2005)는 교육수준이 출산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적인 것과 간접적인 것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직접적으로 교육 참여는 물리적 시간의 차원에서 결혼을 포함한 일반적인 사회생활의 시작 시기를 지연시키는 작용을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교육 참가는 그 자체로 혼인연령을 상승시켜 첫아이 출산시기를 늦추어 궁극적으로 전체 자녀 수를 줄이게 된다. 간접적으로 교육은 개인의 여러 조건과 능력을 변경시키고 심리적 가치관의 변화를 추구하여 결혼과 출산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교육은 다른 부문에의 영향을 통해 간접적으로도 출산에 영향을 미친다. 교육수준이 결혼 여부와 시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고학력 여성들이 결혼의 잠재적 혜택을 초과하는 단점을 인식하고 결혼을 포기하게 된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Choe와 Li(1997)의 주장과 같이 결혼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감소하고 있을지라도 대부분 여성은 교육수준과 관계없이 보편혼의 사회규범을 따르되, 미혼의 이점을 극대화하기 위해 그 연령을 늦추고 있을 뿐이라는 견해도 있다(이삼식·신인철·조남훈 외, 2005). 김두섭(2007)은 여성의 교육수준을 부적 수준과 연관하여 출산수준과의 연관성을 설명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출산수준이 저학력층 집단보다 고학력층 집단에서 우선적으로 감소하는데, 고학력층 집단에서 자녀에 대한 기대가 커 자녀에 대한 투자의 양을 증가시키고 투자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자녀수를 조절한다는 것이다.

Beets(1997)에 따르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새로운 지식과 정보 및 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져, 노동시장과 사회적 지위에서의 능력과 기회가 증가하여 출산에 관한 태도와 행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모의 교육수준 향상은 자녀의 사망률을 감소시켜, 결과적으로 적은 수의 자녀를 선호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이삼식·신인철·조남훈 외, 2005).

노동시장 참가와 관련해서, 김두섭(2007)은 1980년대 중반 이후의 결혼 시기 지연을 노동시장의 불안정에 기인한 것으로 주목하며, 특히 경제위기 이후 혼인적령기 젊은이들의 심각한 취업난이 혼인과 첫 출산시기를 지연시킨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그는 최근에 이르러 교육수준이 높은 여성들이 활발한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경제적 자립능력이 향상되었고, 이에 따라 초혼연령이 상승하는 결과가 초래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김두섭·차승은·송유진 외(2007)는 지난 1990년대 중반 이후 한국에서의 실업, 해고, 임시직과 비정규직의 증가로 대표되는 노동시장의 불안정과 경기불황은 젊은이들로 하여금 혼인과 첫 출산의 시기를 연기하거나 자녀 간 출산터울을 넓히는 작용을 한 것으로 밝히고 있다. Stanfors(2003)는 오늘날 여성 고용 중단이 주요한 이유로 출산을 지적하면서, 시간제 노동을 통해 출산

후 노동시장으로 되돌아오는 것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고 제시한 바 있다. 이삼식·신인철·조남훈 외(2005)는 2005년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를 분석하여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특히, 안정된 높은 임금수준 또는 장시간 근로는 출산의 기회비용을 높여 출산수준의 감소요인으로 작용하는 반면, 결혼과 출산은 노동시장에서 경력단절의 기제로 작용하여 여성의 기회비용 증가를 야기하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교육과 노동은 상호작용을 통해 결혼과 출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일단의 연구결과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교육참여와 경제활동참가가 증가하면서 혼인시기가 연기되고 있으며, 독신의 경향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Beets(1997)는 교육수준 증가가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고 결혼선호도를 낮추어 궁극적으로 자녀 수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히고 있다. 박경숙 등(2005)은 노동패널 조사자료를 사용한 분석에서 1990년 이후 경제위기 이전 코호트의 교육수준은 결혼시기를 앞당겼으나, 경제위기 이후 코호트의 교육수준은 그 효과가 약해지고 경제활동참가가 결혼시기를 지연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Oppenheimer(1997)는 교육수준과 경제활동 참가 기회가 높은 집단일수록 결혼으로 인한 이득을 극대화하기 위해 자신과 비슷한 수준의 능력을 가진 배우자를 원하고, 이것이 만혼으로 연결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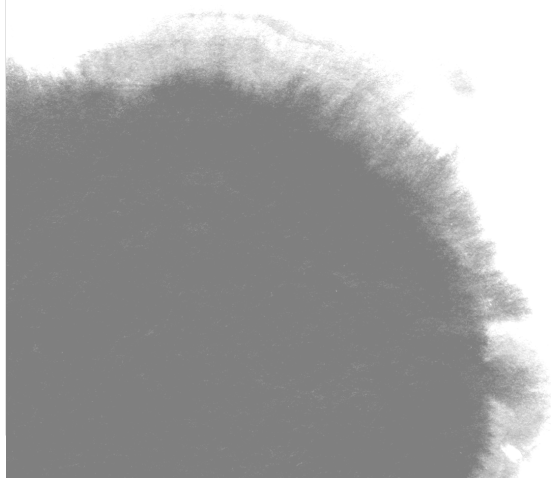
일본의 사례로 경기 불황으로 인해 여성 고용률이 낮아지고, 그로 인하여 만혼화 경향이 증가하여 출산율 감소로 이어졌다(Retherford & Ogawa, 2005). 특히, 1990년대 중반 이후 출산율이 감소한 이유로는 거품경제(bubble economy) 붕괴 이후 장기적인 경기불황으로 인하여 고용이 불안해짐에 따라 교육이 연장되는 등 만혼화 현상이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설명하고 있다. Hoorens, Parkinson 및 Grant(2006)는 스웨덴에서 1990년대 후반에 출산율이 하락한 주요 이유 중 하나로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계약직 증가 등)로 인하여 젊은 사람들이 노동시장에서 일을 찾기 어려웠으며, 그로 인해 아이를 가지고자 하는 의지가 감소하였음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에 앞서 Andersson(2000)도 스웨덴에서 경기침체에 따른 여성 실업률

증가가 직업교육참가자를 증가시키고 교육기간을 연장시키는 등 출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한 바 있다.

교육참가 및 노동시장참가와 연속선상에 있는 다른 또 하나의 생애과정으로서 결혼의 여부 및 시기는 출산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많은 연구들은 밝히고 있다. 이삼식·신인철·조남훈 외(2005)는 법률혼이 보편적이고 대부분의 출산이 법률혼에서 발생하고 있는 점을 들어, 한국사회에서 만혼과 평생 비혼은 출산을 저하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에 따르면, 만혼은 출산(초산)연령을 상승시키는 작용을 하며, 출산(초산)연령 상승은 직접적으로 남아 있는 가임기간을 단축시킬 뿐 아니라 가임능력을 저하시켜 출생아 수 단축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또한, 혼인 연기는 후천성불임증 등을 발생시키는 원인으로 작동하여 출산력을 감소시키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일본에서 초혼연령 상승을 주도한 거시적인 이유들 중 하나로 여성의 교육수준 및 취업률 증가가 제시되고 있다(Retherford, Ogawa, and Matsukura, 2001).

이상의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볼 때, 교육 - 노동시장 참가 - 초혼 - 출산으로 이어지는 생애과정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의 주장을 충분히 수용하면서도, 이를 좀 더 구체화하거나 추가적인 의문을 규명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첫 번째 연구문제는 교육, 노동시장참가, 결혼, 출산 등의 생애과정이 각각 어떻게 변화하였는가이다. 이에 대해 본 연구는 생애과정 각각의 변화를 측정하고, 그 주된 특징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 다른 연구문제는 생애과정들의 변화가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표인 출산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이다. 이에 대해 본 연구는 심층통계기법을 적용하여 생애과정 각각이 그리고 생애과정 간의 상호작용이 출산수준에 미치는 영향력을 측정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궁극적으로 이들 분석 결과들을 토대로 향후 생애과정의 변화와 그에 따른 영향을 예견하고, 이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03

결혼출산관련 생애과정 변화분석

제3장 결혼·출산관련 생애과정 변화분석

생애과정은 연구의 관점이나 목표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출산수준 변화에 생애과정들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대상 생애과정을 교육, 경제활동, 혼인 및 출산으로 세분화하였음을 전술한 바 있다. 이 장에서는 이들 생애과정 각각의 주요 특징과 변화 그리고 두 생애과정씩 짝을 만들어 연관성을 개괄적이면서도 거시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교육과 경제활동 각각의 생애과정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층적인 통계분석은 제4장과 제5장에서 실시될 것이며, 생애과정들을 연속선상에서 분석하는 작업은 제6장에서 실시될 것이다.

제1 절 교육참가의 생애과정

교육의 참가 및 연장은 직접적 및 간접적으로 출산에 영향을 미친다. 직접적으로는 교육 참가기간 자체가 혼인 시기와 출산 시기를 늦추는 영향을 미친다. 간접적으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출산으로 인한 상대적인 기회비용이 커지기 때문에 혹은 교육으로 인한 사고(가치관)의 변화가 출산에 영향을 미친다. 요컨대, 출산력 변화의 결정요인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교육이라는 생애과정의 한 사상(event)의 영향을 측정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기간개념(period concept)에 의거하여 각기 다른 코호트들이 특정연도에

특정연령에 도달하였을 경우 해당 인구 중 초대(4년제 미만) 이상 혹은 대학(4년제) 이상의 학력(여기에서는 재학, 중퇴, 졸업 모두를 포함)을 달성한 비율을 측정하였다. 초대 혹은 대학 이상으로 학력을 제한하여 분석한 이유로는 고등학교 이하 학력의 경우 교육 참가 연수에 따른 혼인 및 출산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우선 초대·전문대 이상 학력의 비율은 남녀 공히 모든 가임기 연령층에서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으며, 특히 가장 주된 출산연령층인 20대와 30대에서 괄목할만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25~29세 여성의 경우 초대·전문대 이상의 학력 비율은 1970년 4.8%에 불과하였으나, 2005년에는 66.5%로 그리고 30~34세 여성의 경우에는 동 기간 2.8%에서 50.6%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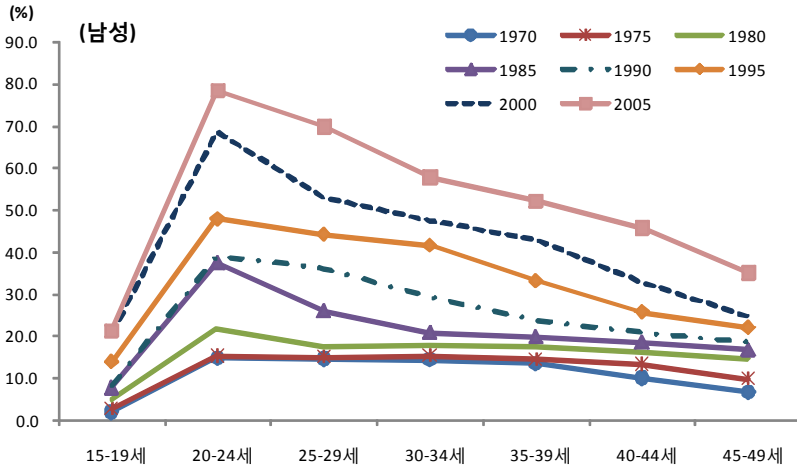
〈표 3-1〉 가임인구의 초대(4년제 미만) 이상 학력 인구의 비율, 1970~2005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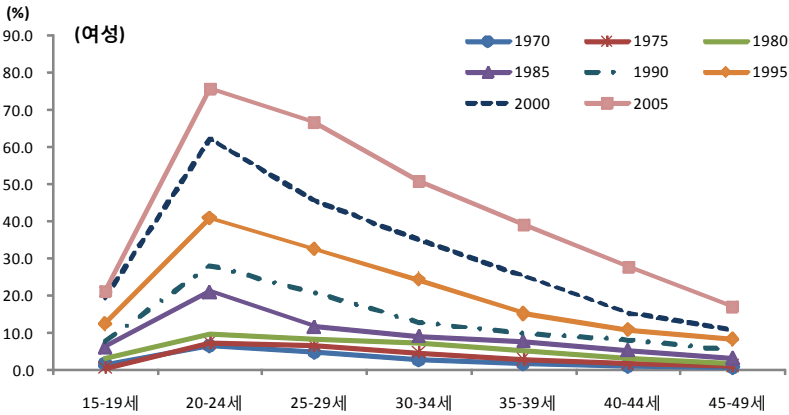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남자								
15~19세	2.0	2.7	4.8	7.8	8.0	13.7	20.6	21.3
20~24세	14.9	15.3	21.9	37.5	39.0	48.0	68.5	78.4
25~29세	14.6	15.0	17.5	26.0	36.2	44.3	52.9	69.9
30~34세	14.4	15.4	17.9	21.0	29.2	41.6	47.5	57.9
35~39세	13.6	14.6	17.5	19.9	23.6	33.1	42.8	52.2
40~44세	10.1	13.4	16.1	18.6	20.9	25.8	32.9	45.8
45~49세	6.7	9.9	14.7	16.9	18.6	22.0	24.8	35.1
여자								
15~19세	1.5	0.5	3.0	6.1	7.5	12.3	19.2	21.0
20~24세	6.5	7.3	9.7	21.0	28.0	40.8	62.0	75.6
25~29세	4.8	6.5	8.3	11.6	20.8	32.4	45.5	66.5
30~34세	2.8	4.6	7.3	9.1	12.9	24.3	34.8	50.6
35~39세	1.7	2.8	5.2	7.7	9.8	15.0	25.2	39.0
40~44세	1.1	1.6	3.1	5.3	7.8	10.9	15.1	27.6
45~49세	0.7	1.1	1.8	3.2	5.1	8.2	10.5	16.8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년도

[그림 3-1] 가임인구의 초대(4년제 미만) 이상 학력 비율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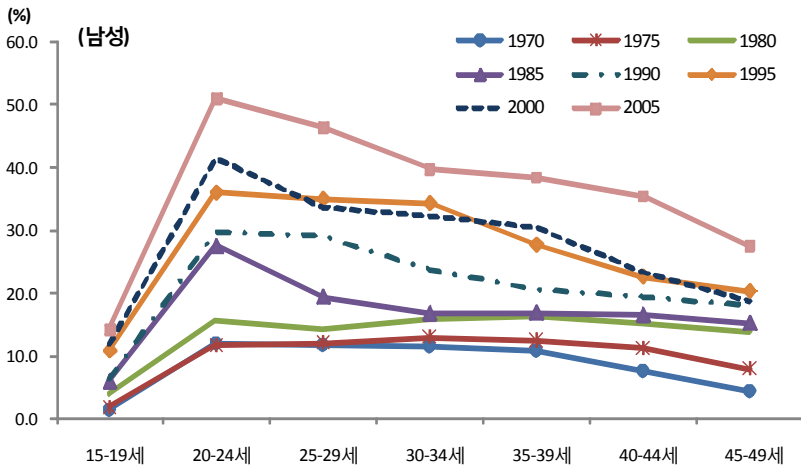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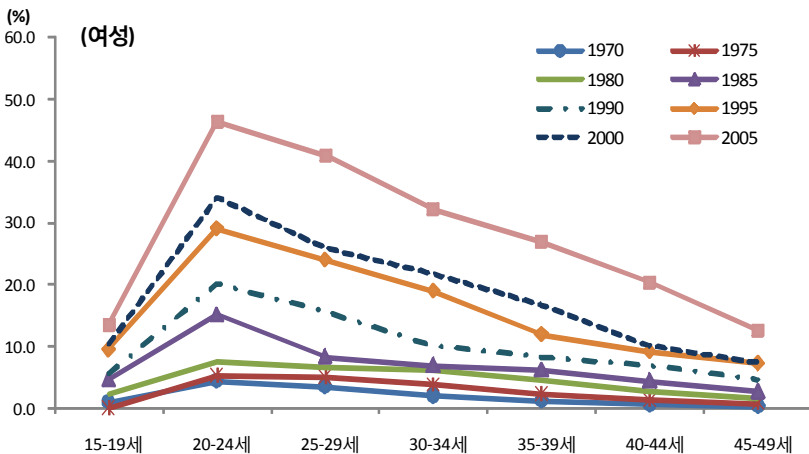
가임기 인구 중 대학(4년제) 이상 학력 소지자의 비율도 초대 이상 학력 비율과 마찬가지로 그 수준은 다소 낮으나 남녀 공히 모든 연령층에서 급속하게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예로 25~29세 여성의 경우 대학 이상 학력 비율은 1970년 3.5%에서 2005년 41.0%로, 30~34세 여성의 경우 동 기간 2.1%에서 32.1%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 2005년을 기준

으로 대학 이상 학력소지 비율은 남녀 공히 20~24세 연령층에서 가장 높으며, 이후 연령이 높을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구체적으로 2005년 20~24세 여성의 대학 이상 학력 비율은 46.5%, 25~29세 여성의 경우 41.0%, 30~34세 여성의 경우 32.1% 등의 순이다.

[그림 3-2] 가임인구의 초대(4년제 미만) 이상 학력 비율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년도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년도

〈표 3-2〉 가임인구의 대학(4년제 미만) 이상 학력 인구의 비율, 1970~2005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단위: %)								
남자								
15~19세	1.3	1.8	3.8	5.9	6.2	10.7	11.7	14.2
20~24세	12.1	11.6	15.7	27.5	29.7	36.0	41.5	50.9
25~29세	11.8	12.1	14.3	19.4	28.9	34.9	33.6	46.4
30~34세	11.6	13.0	15.9	16.8	23.7	34.2	32.3	39.7
35~39세	10.8	12.4	16.3	16.9	20.5	27.7	30.3	38.4
40~44세	7.5	11.2	15.3	16.5	19.4	22.6	23.3	35.4
45~49세	4.4	7.9	13.7	15.2	17.9	20.3	18.7	27.4
여자								
15~19세	1.0	0.0	2.4	4.6	5.5	9.5	10.4	13.5
20~24세	4.4	5.2	7.5	15.1	20.0	29.0	34.0	46.5
25~29세	3.5	5.1	6.6	8.3	15.6	24.0	25.9	41.0
30~34세	2.1	3.8	6.1	7.0	10.0	19.0	21.7	32.1
35~39세	1.2	2.3	4.6	6.2	8.3	12.0	16.6	27.0
40~44세	0.6	1.3	2.7	4.5	7.0	9.2	10.0	20.2
45~49세	0.3	0.8	1.6	2.7	4.7	7.3	7.3	12.5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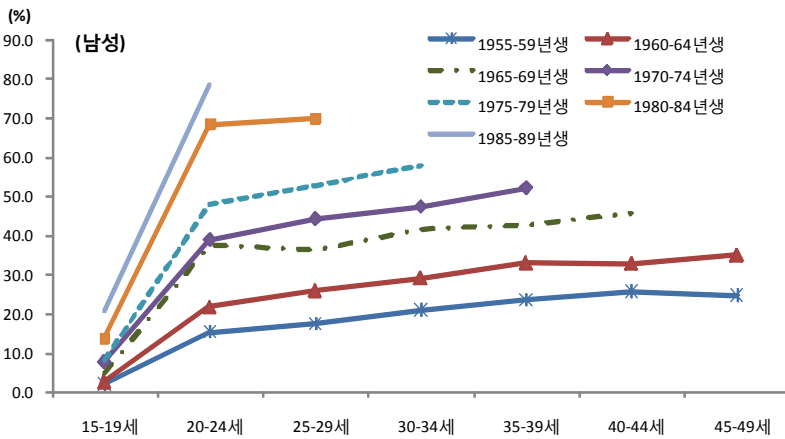
현실적으로 교육이 한 개인의 출산수준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시기까지 계속해서 교육에 참가하는가에 달려 있다. 이와 관련하여, 코호트별 교육수준 변화를 살펴보면, 몇몇 특징이 나타난다. 하나는 과거 코호트일수록 고학력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다가 대체적으로 20대에서 결정되는 경향이 강하다. 반면, 최근 코호트일수록 고학력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데다가 고연령층에서도 학력 수준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오랜 기간에 걸쳐 교육에 참여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인 예로 1955~1959년생 남성의 경우 25~29세에서의 초대 이상 인구의 비율은 17.5%로 비교적 낮으며, 이후 연령층에서 고학력 인구 비율의 증가폭은 그다지 크지 않다. 그러나 1970~1974년생 남성의 경우에는 20~24세에서 초대 이상 학력 소지자의 비율이 39.0%로 아주 높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높아져 35~39세에 도달 시에 52.2%로 나타난다. 이러한 경향성은 여성에게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1955~1959년생 여성의 초대 이상 학력비율은 20~24세에 7.3%로 상대적으로 낮으며, 이후 연령층에 도달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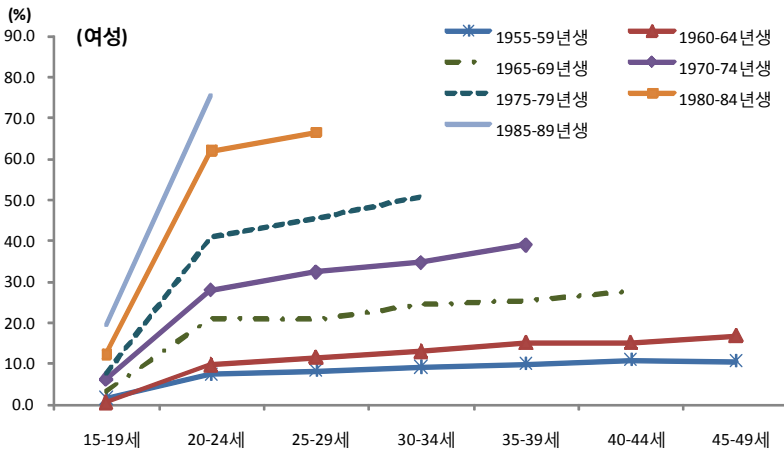
에도 그다지 높아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1975~1979년생 여성의 경우에는 20~24세 도달 시 초대 이상 학력비율이 40.8%로 아주 높고, 이후에도 계속 증가하여 30~34세에서는 50.6%로 나타난다. 현 추이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최근 코호트가 30대와 40대에 도달 시까지 초대 이상 학력비율은 계속 증가하고, 그 결과 아주 높은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3-3] 코호트별 가입기 경과에 따른 초대·전문대 이상 학력 비율 변화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년도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년도

〈표 3-3〉 코호트별 가임기 경과에 따른 초대·전문대 이상 학력 비율 변화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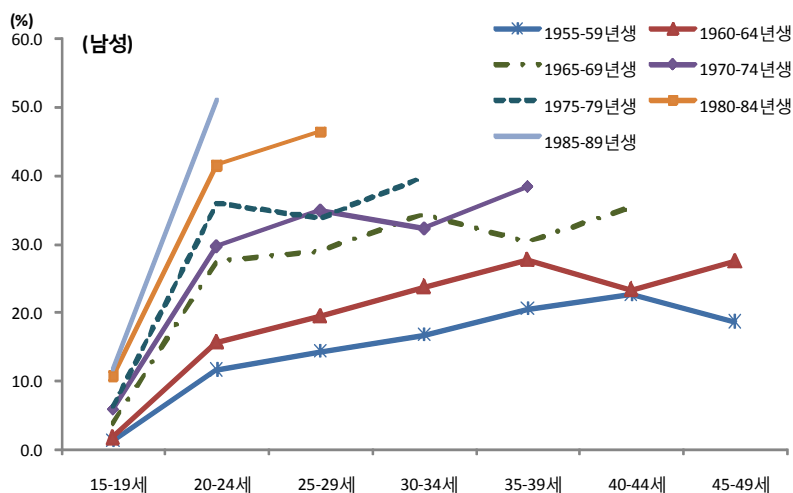
	각 코호트 별 경과한 연령(세)						
	15~19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남자							
1955~59년생	2.0	15.3	17.5	21.0	23.6	25.8	24.8
1960~64년생	2.7	21.9	26.0	29.2	33.1	32.9	35.1
1965~69년생	4.8	37.5	36.2	41.6	42.8	45.8	-
1970~74년생	7.8	39.0	44.3	47.5	52.2	-	-
1975~79년생	8.0	48.0	52.9	57.9	-	-	-
1980~84년생	13.7	68.5	69.9	-	-	-	-
1985~89년생	20.6	78.4	-	-	-	-	-
여자							
1955~59년생	1.5	7.3	8.3	9.1	9.8	10.9	10.5
1960~64년생	0.5	9.7	11.6	12.9	15.0	15.1	16.8
1965~69년생	3.0	21.0	20.8	24.3	25.2	27.6	-
1970~74년생	6.1	28.0	32.4	34.8	39.0	-	-
1975~79년생	7.5	40.8	45.5	50.6	-	-	-
1980~84년생	12.3	62.0	66.5	-	-	-	-
1985~89년생	19.2	75.6	-	-	-	-	-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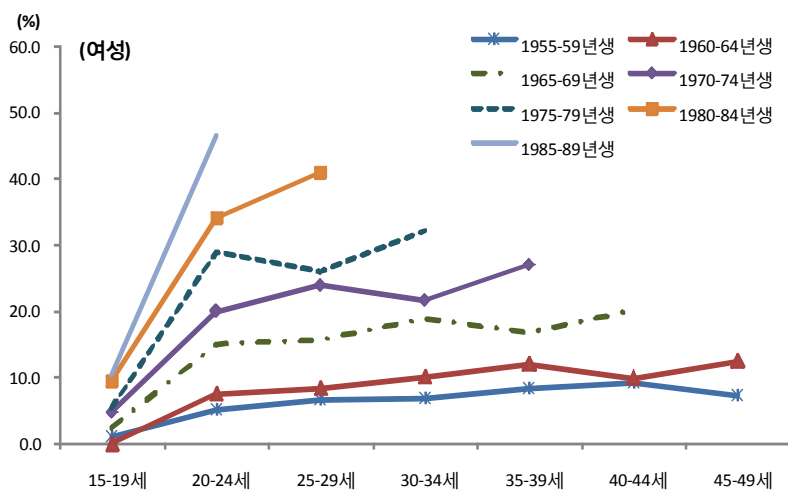
초대 이상 학력 비율에서 볼 수 있는 경향성은 4년제 대학 이상 학력의 경우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비록 초대 이상 학력 비율보다 상대적으로 낮으나, 대학 이상 학력 비율은 과거 코호트의 경우 20대 초에 비교적 낮은 수준에서 결정되며 이후 연령층에서는 증가폭이 그다지 크지 않다. 반면, 최근 코호트일수록 20대 초에 아주 높은 수준을 보이며, 그러한 수준은 연령 경과에 따라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높아지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즉, 일부 사람은 30대 혹은 그 이후 연령층에 들어서도 계속해서 대학 진학 등을 통해 학력을 높이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경향성은 남녀 모두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구체적인 예로 1955~1959년생 여성의 경우 20~24세에서 대학 이상 학력 비율이 5.2%로 낮으며, 이후에도 높은 수준으로 높아지지는 않는다. 그러나 1980~1984년생 여성의 경우 대학 이상 학력의 비율은 20~24세 34.0%로 상대적으로 높으며, 25~29세에는 41.0%로 무려 7% 포인트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3-4] 코호트별 가임기 경과에 따른 대학(4년제) 이상 학력 비율 변화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년도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년도

〈표 3-4〉 코호트별 가임기 경과에 따른 대학(4년제) 이상 학력 비율 변화

(단위: %)

	15-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남자							
1955-59년생	1.3	11.6	14.3	16.8	20.5	22.6	18.7
1960-64년생	1.8	15.7	19.4	23.7	27.7	23.3	27.4
1965-69년생	3.8	27.5	28.9	34.2	30.3	35.4	-
1970-74년생	5.9	29.7	34.9	32.3	38.4	-	-
1975-79년생	6.2	36.0	33.6	39.7	-	-	-
1980-84년생	10.7	41.5	46.4	-	-	-	-
1985-89년생	11.7	50.9	-	-	-	-	-
여자							
1955-59년생	1.0	5.2	6.6	7.0	8.3	9.2	7.3
1960-64년생	0.0	7.5	8.3	10.0	12.0	10.0	12.5
1965-69년생	2.4	15.1	15.6	19.0	16.6	20.2	-
1970-74년생	4.6	20.0	24.0	21.7	27.0	-	-
1975-79년생	5.5	29.0	25.9	32.1	-	-	-
1980-84년생	9.5	34.0	41.0	-	-	-	-
1985-89년생	10.4	46.5	-	-	-	-	-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년도.

끝으로 초대 이상 학력을 초대, 대학, 대학원 석사과정, 대학원 박사과정으로 세분화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2000년 이전의 인구센서스에서는 대학 이상 고학력을 세분화하여 발표하지 않은 관계로, 본 연구에서는 2000년과 2005년 인구센서스 자료에 한정하기로 한다. 시계열적 자료가 축적되지 못한 이유로 두 년도에 한정하여 코호트별 분석을 실시하기로 한다.

우선, 동일 연령층에서의 고학력자 비율은 모든 연령층에서 2000년과 2005년 간 다소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만큼 가임인구 남녀 모두 고학력화 되어 가고 있으며, 그러한 고학력화는 대학은 물론 석사와 박사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가장 주된 결혼기 및 출산기에 있는 25~29세와 30대의 학력 이행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2000년 25~29세 남성 중 대학학력 비율은 29.9%, 석사학력 비율은 3.7%, 박사학력 비율은 0.0%였으나, 5년이 지난 2005년에 이들 세대(30~34세)의 대학과 석사 및 박사 학력의 비율은 33.6%, 5.6% 및 0.4%로 각각 높아진 것

으로 나타난다. 여성의 경우에도 2000년 25~29세에서의 대학과 석사 및 박사 학력의 비율은 23.2%, 2.5%, 0.2%였으나, 2005년 30~34세에 이르러서는 28.0%, 3.6% 및 0.5%로 각각 높아진 것으로 나타난다. 요컨대 남녀 모두 30대 또는 그 이후까지 교육 참여가 계속(연장)되는 경향이 뚜렷하다.

〈표 3-5〉 가임인구의 초대 이상 학력의 세부구분별 비율, 2000년과 2005년

(단위: %)

	2000					2005				
	계	초대	대학	석사	박사	계	초대	대학	석사	박사
남자										
15-19세	20.6	8.9	11.7	0.0	0.0	21.3	7.2	14.1	0.0	0.0
20-24세	68.5	27.0	41.0	0.5	0.0	78.4	27.4	50.5	0.4	0.0
25-29세	52.9	19.3	29.9	3.7	0.0	69.9	23.5	42.5	3.8	0.0
30-34세	47.5	15.2	28.2	3.6	0.5	57.9	18.2	33.6	5.6	0.4
35-39세	42.8	12.4	26.0	3.6	0.7	52.2	13.8	32.5	4.9	1.1
40-44세	32.9	9.5	19.0	3.3	1.1	45.8	10.4	29.3	4.6	1.4
45-49세	24.8	6.1	14.5	3.0	1.2	35.1	7.7	21.6	4.2	1.6
여자										
15-19세	19.2	8.8	10.4	0.0	0.0	21.0	7.6	13.4	0.0	0.0
20-24세	62.0	28.1	32.9	1.1	0.0	75.6	29.1	45.2	1.2	0.0
25-29세	45.5	19.6	23.2	2.5	0.2	66.5	25.5	36.2	4.4	0.3
30-34세	34.8	13.1	19.6	1.8	0.3	50.6	18.5	28.0	3.6	0.5
35-39세	25.2	8.6	15.2	1.2	0.3	39.0	11.9	24.0	2.5	0.5
40-44세	15.1	5.1	8.8	0.9	0.2	27.6	7.3	17.9	1.9	0.4
45-49세	10.5	3.3	6.5	0.6	0.1	16.8	4.4	10.8	1.4	0.3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년도

제2절 경제활동의 생애과정

일반적으로 교육이 끝나면 수입이 있는 일을 하게 되는데, 이들을 취업자라고 한다. 일부는 일을 할 수 없거나 일할 의사가 전혀 없고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들을 비경제활동인구라고 한다. 일부는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실제 구체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들을 실업자라고 한다. 취업자와 실업자를 합하여 경제활동인구라

고 한다. 취업자는 물론 실업자도 구직 등을 위해 활동을 함으로써 결혼 시기나 출산 시기 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가임인구의 경제활동참가 정도의 추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저연령층에서 낮고, 중간연령층에서 매우 높고, 노년층에서 아주 낮은 이른바 컵형태(∩)를 보인다. 물론, 여기에서 제시한 그림은 가임기에 국한되므로 컵의 일부 형태만 나타난다.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15~19세, 20~24세, 25~29세 등 3개 연령층에서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15~19세와 20~24세 남성들의 경우 고등학교 및 대학교 진학률이 높아지기 때문임이 오래 전부터 밝혀졌으나, 25~29세 남성의 경우에는 대학 진학률 상승과 군복무기간이 결합되어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대학원 진학률이 높아지고 있는 영향에 기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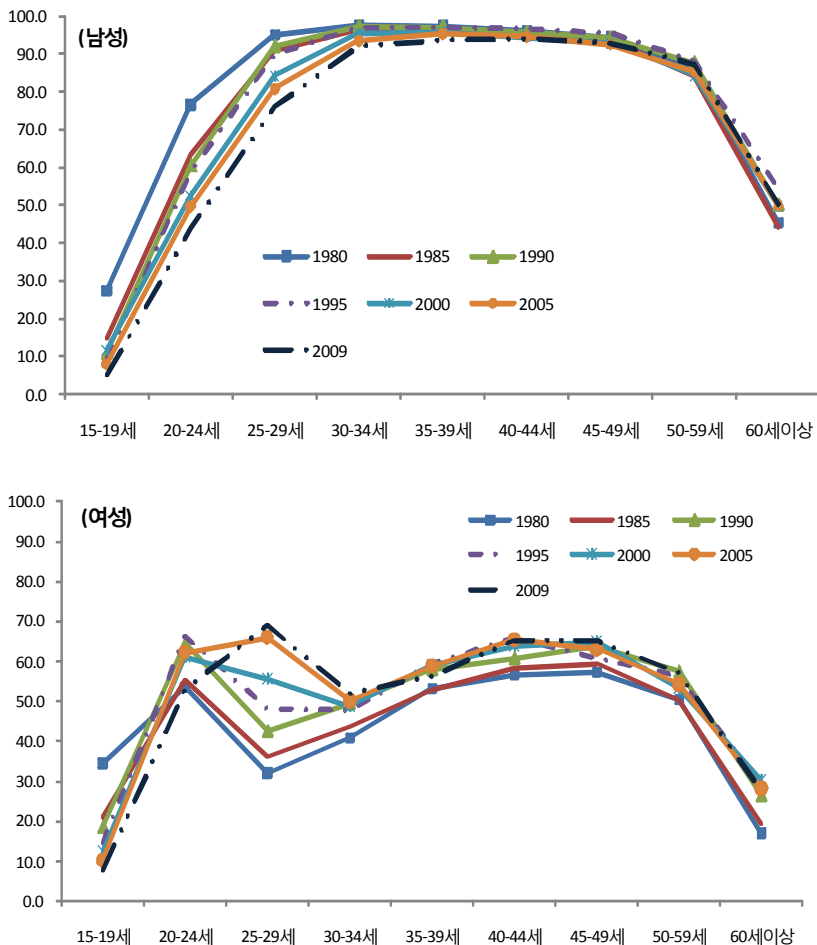
〈표 3-6〉 가임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1980~2009

	(단위: %)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09
남자							
15-19세	27.3	14.5	10.8	9.5	11.5	7.9	4.8
20-24세	76.5	63.3	60.2	58.8	52.4	49.5	43.8
25-29세	95.0	90.8	91.9	89.6	84.0	80.7	75.9
30-34세	97.6	96.4	97.2	97.0	95.3	93.3	91.9
35-39세	97.3	96.5	97.0	97.0	95.6	95.2	93.3
40-44세	96.1	94.9	95.7	96.6	94.4	94.5	94.0
45-49세	94.4	93.3	94.2	95.2	92.6	92.3	92.7
여자							
15-19세	34.4	21.1	18.7	14.5	12.4	10.2	7.4
20-24세	53.5	55.1	64.6	66.1	60.9	62.2	52.7
25-29세	32.0	35.9	42.6	47.9	55.7	65.9	68.8
30-34세	40.8	43.6	49.5	47.6	48.6	50.1	51.8
35-39세	53.1	52.9	57.9	59.2	59.1	58.8	56.2
40-44세	56.7	58.2	60.7	65.7	63.7	65.4	65.3
45-49세	57.3	59.2	63.9	60.6	64.7	63.0	65.2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년도.

여성의 경우 결혼·출산 연령층에서 일을 그만두는 비율이 갑자기 낮아지고 이후 연령 증가에 따라 출산율이 높아지는 전형적인 M-curve 형태를 보인다. 중간적 저점은 일·가정 양립 곤란 등으로 인하여 경력이 단절되는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한편, 결혼 및 출산으로 인하여 갑자기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아지는 연령층은 과거 25~29세에서 최근 30~34세로 전환하고 있으며, 그 정도도 점차 완화되는 추세이다.

[그림 3-5]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1980~2009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년도.

제3절 혼인의 생애과정

1. 혼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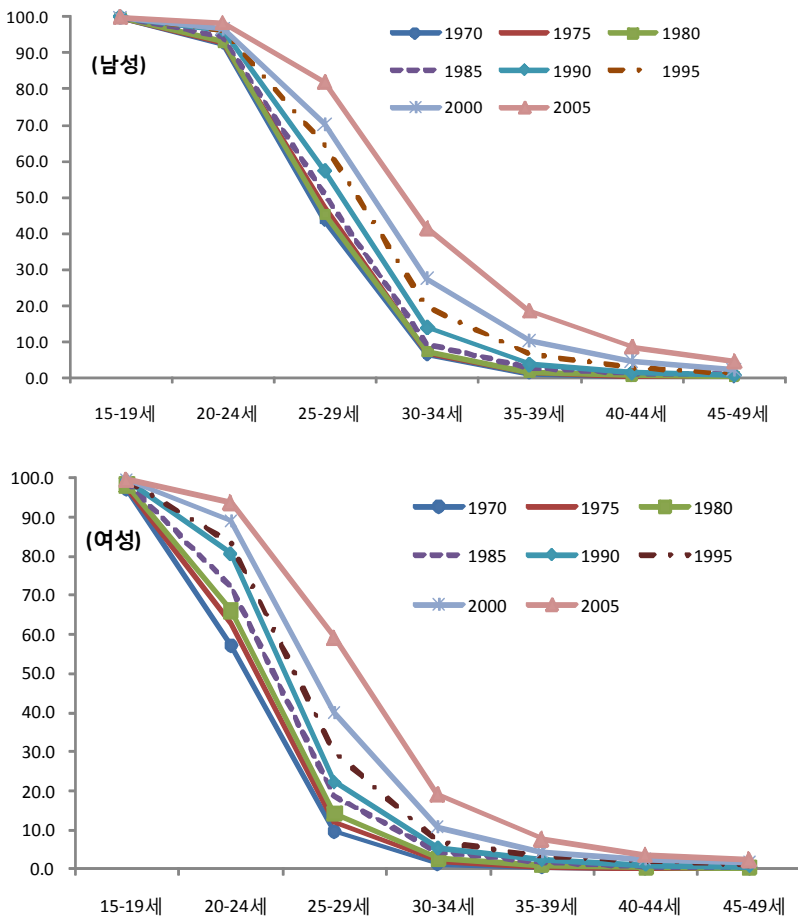
생애과정의 하나로서 혼인은 출산력과의 연관성 차원에서 결혼 여부와 결혼 시기가 매우 중요하다. 한국 사회에서 사실혼 및 이들로부터 태어난 자녀에 대한 시각은 여전히 냉담하며, 그로 인하여 출생아 수 대부분은 법률혼 내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로, 2009년에 태어난 출생아 수 445천 명 중 혼외출산의 비율은 2.0%에 불과하다(통계청, 2009). 다른 한편으로 결혼시기는 생물학적 가임기간(15~49세)과는 다른 실제 가임기간(초혼 이후부터 49세까지)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결혼 여부는 일정 연령층에서의 미혼율로 측정될 수 있으며, 결혼 시기는 출산의 시발점으로서 초혼연령으로 측정된다.

기간개념(period concept)의 미혼율은 서로 다른 코호트들의 미혼율을 나타낸다. 남성의 경우 1985년에 25~29세가 되어 약 50%가 결혼을 하며, 30~34세에 이르러서는 90% 수준이 결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점차 초혼연령이 늦추어지면서 25~29세 남성의 미혼율은 1995년 64.4%, 2000년 70.1%, 2005년 81.8%로 높아진다. 이와 동시에 30~34세에서의 미혼율도 점차 높아져 2005년에는 41.3%로 높게 나타난다. 즉, 1970년대와 1980년대에 10% 미만만이 결혼을 하지 않았던 것과 달리 최근에 들어서는 40% 이상이 30~34세에 이르러서도 결혼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과거에 35~39세 미혼율은 거의 무시할 수준이었으나, 최근에 들어서는 20% 수준까지 증가하고 있다.

여성의 경우에는 1970년 약 50%가 20~24세에서 결혼을 하였으나, 최근에는 동 연령층에서 10% 미만이 결혼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5~29세 여성의 미혼율은 1970년 9.7%에서 2005년 59.1%로 상승하여 절반 이상이 결혼을 하지 않고 있다. 30~34세 여성의 미혼율은 과거에 거의 무시할 수준이었으나, 2005년에는 20%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

인구학적으로 45~49세에서의 미혼율을 독신율(평생 결혼을 하지 않은 비율)로 측정하고 있다. 남성의 독신율은 1970년대와 1980년대 1% 미만에서 2005년에는 4.5%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 여성의 독신율은 1995년 1.0%에 불과하였으나, 2005년에는 2.4%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 요컨대, 한국의 남성과 여성 공히 결혼을 늦추고 있을 뿐 아니라 독신의 경향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6] 연도별 미혼율 변동 추이, 1970~2005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년도

〈표 3-7〉 연도별 미혼율, 1970~2005

(단위: %)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남자								
15-19세	99.7	99.7	99.8	99.9	99.9	99.8	99.6	99.8
20-24세	92.6	92.9	93.1	94.4	96.4	96.3	96.5	98.2
25-29세	43.4	47.0	45.2	50.8	57.3	64.4	70.1	81.8
30-34세	6.4	7.0	7.3	9.4	13.9	19.5	27.4	41.3
35-39세	1.2	1.4	1.7	2.7	3.8	6.6	10.3	18.4
40-44세	0.4	0.5	0.7	1.1	1.5	2.7	4.6	8.5
45-49세	0.2	0.3	0.4	0.6	0.8	1.3	2.1	4.5
여자								
15-19세	97.1	97.4	98.2	99.1	99.5	99.2	99.2	99.6
20-24세	57.2	62.5	66.1	72.1	80.5	83.3	88.7	93.7
25-29세	9.7	11.8	14.1	18.4	22.1	29.6	39.7	59.1
30-34세	1.4	2.1	2.7	4.2	5.3	6.7	10.5	19.0
35-39세	0.4	0.7	1.0	1.6	2.4	3.3	4.1	7.6
40-44세	0.2	0.3	0.5	0.7	1.1	1.9	2.4	3.6
45-49세	0.1	0.2	0.3	0.4	0.6	1.0	1.6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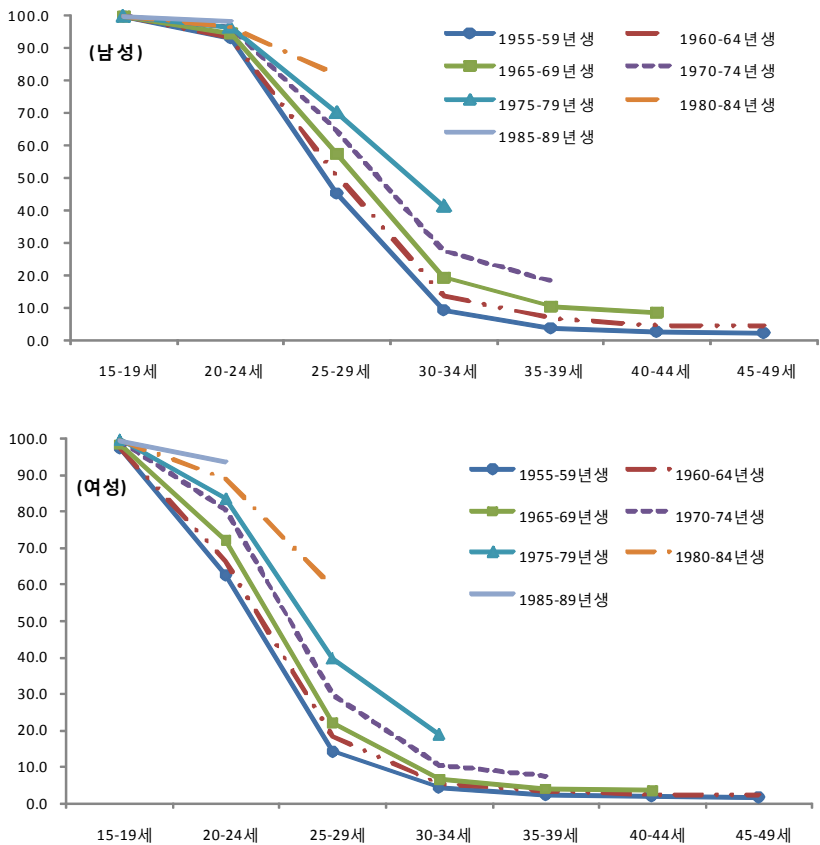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연도

결혼행태를 좀 더 정밀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동일 출생집단 즉, 출생 코호트의 생애과정 상 결혼을 추적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최근의 출생코호트일수록 아직 가임기간이 종결되지 않은 관계로 일부 고연령층에서의 미혼율을 제시할 수 없다는 한계성이 존재한다.

출생코호트별 미혼율은 1955~1959년생 남성의 경우 20~24세에 도달 시 92.9%, 25~29세에 45.2%, 30~34세 도달 시 9.4%, 45~49세 도달 시 2.1%로 나타난다. 즉, 동 코호트의 남성은 25~29세와 30~34세에 대부분 결혼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최근 코호트일수록 25~29세 도달 시 미혼인 비율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다소 완만한 속도이나 30~34세도 유사한 경향을 엿볼 수 있다. 예를 들어, 25~29세 도달 시 미혼율은 1955~1959년생 남성의 경우 45.2%나, 자녀세대로 간주할 수 있는 1980~1984년생 남성의 경우 거의 두 배에 가까운 81.8%로 높게 나타난다. 30~34세 도달 시 미혼율은 1955~1959년생 9.4%, 1975~1979년생 41.3%로 4배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

코호트별로 미혼율은 1955~1959년생의 경우 20~24세에서 62.5%에서 25~29세에서 14.1%로, 1960~1964년생은 66.1%에서 18.4%로, 1965~1969년생은 72.1%에서 22.1%로, 1970~1974년생은 80.5%에서 29.6%로, 1975~1979년생은 83.3%에서 39.7%로, 1980~1984년생은 88.7%에서 59.1%로 각각 변화하였다. 30~34세에서의 미혼율도 1955~1959년생의 경우 4.2%에서 1975~1979년생의 경우 19.0%로 급격하게 높아졌다. 최근 출생코호트일수록 결혼시기가 점차 늦추어지고 있으며, 그에 따라 평생 결혼을 하지 않은 정도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림 3-7] 출생코호트별 연령경과에 따른 미혼율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년도

〈표 3-8〉 출생코호트별 연령 경과에 따른 미혼율

(단위: %)

	각 코호트의 도달 시 연령 기준						
	15~19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남자							
1955~59년생	99.7	92.9	45.2	9.4	3.8	2.7	2.1
1960~64년생	99.7	93.1	50.8	13.9	6.6	4.6	4.5
1965~69년생	99.8	94.4	57.3	19.5	10.3	8.5	-
1970~74년생	99.9	96.4	64.4	27.4	18.4	-	-
1975~79년생	99.9	96.3	70.1	41.3	-	-	-
1980~84년생	99.8	96.5	81.8	-	-	-	-
1985~89년생	99.6	98.2	-	-	-	-	-
여자							
1955~59년생	97.1	62.5	14.1	4.2	2.4	1.9	1.6
1960~64년생	97.4	66.1	18.4	5.3	3.3	2.4	2.4
1965~69년생	98.2	72.1	22.1	6.7	4.1	3.6	-
1970~74년생	99.1	80.5	29.6	10.5	7.6	-	-
1975~79년생	99.5	83.3	39.7	19.0	-	-	-
1980~84년생	99.2	88.7	59.1	-	-	-	-
1985~89년생	99.2	93.7	-	-	-	-	-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년도

남성 및 여성의 초혼연령은 1970년대 이래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남성의 초혼연령은 1990년 27.8세에서 2009년 31.6세로 동 기간에 3.8세가 그리고 여성의 초혼연령은 1990년 24.8세에서 2009년 28.7세로 동 기간에 3.9세가 각각 증가하였다. 1972~1990년 간 남성의 경우 1.1세, 여성의 경우 2.2세가 증가한 것에 비하면 최근에 아주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여성의 경우 2008~2009년 0.4세가 증가하여 가장 높은 증가폭을 보이고 있다.

〈표 3-9〉 남녀의 초혼시기, 1972~2009

(단위: 세)

	남성		여성	
	초혼연령	전년대비증감	초혼연령	전년대비증감
1972	26.7	-	22.6	-
1975	26.8	-	22.8	-
1981	26.4	-	23.2	-
1985	27.0	-	24.1	-
1988	27.6	-	24.7	-
1989	27.8	0.2	24.8	0.1
1990	27.8	0.0	24.8	0.0
1991	27.9	0.1	24.8	0.1
1992	28.0	0.1	24.9	0.1
1993	28.1	0.1	25.0	0.1
1994	28.2	0.1	25.1	0.1
1995	28.4	0.1	25.3	0.2
1996	28.4	0.0	25.5	0.1
1997	28.6	0.2	25.7	0.3
1998	28.8	0.2	26.0	0.3
1999	29.1	0.2	26.3	0.3
2000	29.3	0.2	26.5	0.2
2001	29.6	0.3	26.8	0.3
2002	29.8	0.2	27.0	0.2
2003	30.1	0.4	27.3	0.3
2004	30.5	0.4	27.5	0.3
2005	30.9	0.3	27.7	0.2
2006	31.0	0.1	27.8	0.1
2007	31.1	0.1	28.1	0.3
2008	31.4	0.3	28.3	0.2
2009	31.6	0.2	28.7	0.4
1990~2009		3.8		3.9
1972~1990		1.1		2.2

주: 1970~1971년, 1973~1974년, 1976~1980년, 1982~1983년, 1986~1987년의 경우 해당 자료가 발표되지 않음.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 년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년도.

2. 혼인과 다른 생애과정과의 연관성

가. 교육참가와 혼인

앞서 생애과정의 각 요소로서 교육, 경제활동 및 결혼 각각에 대해 추이를 살펴보았다. 여기에서는 교육 및 경제활동과 결혼과의 연관성에 대해 분석하기로 한다. 분석대상 자료는 인구센서스로서 통계청에서 KOSIS를 통해 제공하고 있는 형태를 그대로 이용하였다. 그러한 한계성으로 인하여 일부 연도의 자료는 미조사 등으로 제시되지 못하며, 학력구분도 연도마다 다르게 제시되어 있다.

주된 출산연령층에 있는 여성들의 학력수준별 미혼율은 다소 불규칙성이 있으나 시기와 상관없이 고학력일수록 높고, 최근에 올수록 높아지는 경향이 뚜렷하다. 25~29세 여성의 경우 무학부터 대학 이상 고학력에 이르기까지 미혼율이 큰 폭으로 상승하여 2005년에는 중·고등학교 학력을 제외한 모든 학력 계층에서 50%를 상회하고 있다. 무학·초등학교 학력을 가진 여성들의 미혼율이 59.0%로 중·고등학교 학력소지자의 43.5%보다 높은 것은 학력수준이 낮아 결혼이 어렵기 때문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초대·전문대 학력의 경우 미혼율은 60.5%, 대학(4년제) 학력 소지자의 경우 69.7%, 대학원 석사과정의 경우 73.6%, 대학원 박사과정의 경우 75.6% 등으로 나타나, 고학력 여성들이 25~29세에서 결혼하는 사례들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

다음으로 30~34세 여성의 미혼율은 1970년대와 1980년대에 고학력층을 포함하여 모두 10% 미만으로 아주 낮은 수준이다. 1990년에는 대학 이상 고학력 여성의 미혼율이 10%를 상회하며, 특히 대학원 학력 여성의 미혼율은 18.2%로 2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난다. 30~34세에서의 미혼율은 2005년 모든 학력층에서 급격하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초대·전문대와 대학 학력 여성의 경우 20%수준이며, 대학원 석사과정은 30% 수준을 상회하며, 대학원 박사과정은 40% 수준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난다. 요컨대,

전체적으로 비중은 아직 낮겠지만 대학원 이상 학력을 가진 여성들이 30대에 결혼하는 경향도 점차 약화될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과거 35~39세에 도달 시 미혼으로 남아 있는 비율은 학력수준을 불문하고 아주 낮은 수준이며, 초대·전문대 이상 학력의 여성의 경우에도 4% 수준에서 유지되었다. 그러나 이 연령층에서의 미혼율도 점차 높아져 2005년에는 10% 전후로 나타나며, 특히 대학원 석·박사 학력의 여성들의 미혼율은 20% 수준까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난다. 요컨대, 대학원 이상의 학력 여성들은 30대 후반에 이르기까지도 결혼을 하지 않은 경향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표 3-10〉 여성의 교육정도별 미혼율, 1970~2005

	1970	1975	1980	1985	1990	2000	2005
(단위: %)							
25~29세	9.4	11.3	13.7	18.4	21.7	39.7	58.7
무학·초등학교	5.0	6.0	6.9	8.2	11.7	39.2	59.0
중·고등학교	16.1	15.3	16.0	17.8	18.6	27.9	43.5
초대·전문대	25.5	25.0	27.1	37.2	35.2	49.4	60.5
대학(교)	-	-	-	-	36.5	55.1	69.7
대학원(석사)	-	-	-	-	40.8	67.2	73.6
대학원(박사)	-	-	-	-	-	-	75.6
30~34세	1.3	1.9	2.7	4.3	5.3	10.6	18.6
무학·초등학교	0.7	1.1	1.5	2.0	3.4	16.2	36.8
중·고등학교	2.9	3.1	3.4	4.5	4.9	7.8	14.1
초대·전문대	6.9	5.5	6.0	9.2	10.1	13.5	20.0
대학(교)	-	-	-	-	9.5	15.1	22.8
대학원(석사)	-	-	-	-	18.2	26.9	34.0
대학원(박사)	-	-	-	-	-	-	42.3
35~39세	0.4	0.6	1.0	1.6	2.5	4.2	7.4
무학·초등학교	0.2	0.4	0.6	0.8	1.5	4.6	15.3
중·고등학교	1.0	48.1	1.5	1.8	2.4	3.1	5.6
초대·전문대	4.5	4.0	3.1	4.4	6.6	5.9	8.6
대학(교)	-	-	-	-	5.4	6.6	9.3
대학원(석사)	-	-	-	-	15.7	16.5	17.8
대학원(박사)	-	-	-	-	-	-	24.9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년도.

나. 경제활동과 혼인

수입 있는 일을 하고 있는지 여부(유업, 무업)와 결혼과의 연관성을 분석해보기로 한다. 우선 15~19세 여성의 경우 유업과 무업 여부와 상관없이 결혼을 거의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20대부터 수입 있는 일을 하고 있는 여성 즉, 유업여성의 미혼율은 무업여성에 비해 높게 나타나며, 그 차이는 20대 후반과 30대 초에서 그리고 최근에 올수록 더 뚜렷하다. 25~29세 유업여성의 미혼율은 1980년 29.8%에서 2005년 73.1%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동일 연령층 무업여성의 미혼율도 1980년 6.7%에서 2005년 39.9%로 증가하나, 유업여성에 비해 절반 수준이다.

〈표 3-11〉 여성의 유·무업별 미혼율, 1980~2005

	(단위: %)			
	1980	1995	2000	2005
유업자				
15-19세	98.4	98.0	98.1	98.6
20-24세	85.8	91.1	92.8	95.6
25-29세	29.8	53.7	59.8	73.1
30-34세	4.8	12.9	18.1	30.1
35세 이상	0.5	2.1	2.6	3.6
무업자				
15-19세	98.1	99.3	99.4	99.8
20-24세	42.9	72.9	85.3	92.3
25-29세	6.7	13.1	22.2	39.9
30-34세	1.6	3.1	5.8	10.1
35세 이상	0.3	0.8	1.4	1.6
차이(유업-무업)				
15-19세	0.3	-1.3	-1.4	-1.2
20-24세	42.9	18.2	7.5	3.3
25-29세	23.1	40.5	37.6	33.2
30-34세	3.3	9.8	12.3	20.0
35세 이상	0.2	1.3	1.2	2.0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년도

다소 수준은 낮으나 30~34세 여성의 경우에도 무업인 경우에 비해 유업인 경우에 미혼상태로 남아 있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2005년 현재 30~34세 유업여성의 미혼율은 30.1%로 무업여성의 미혼율 10.1%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35세 이상 고연령층에서의 미혼율은 유업상태인 경우 3.6%로 무업상태인 경우 1.6%에 비해 다소 높으나, 큰 차이는 없다. 결국 최근의 만혼화 경향은 20대 후반과 30대 취업여성들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제4절 출산의 생애과정

1. 출산

여기에서는 생애과정 중 하나로서 출산에 관해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로서 출산의 과정이 연령 진행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여 왔는가를 기간적 및 종단적으로 살펴보고, 다른 생애과정들인 교육, 경제활동, 결혼 등과의 연관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인구동태통계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로서 출산수준은 주로 합계출산율로 측정된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970년 4.5명에서 1983년 2.1명으로 낮아졌으며, 이후 다소 불규칙성이 존재하나 계속 감소하여 2009년에 1.15명으로 나타난다. 즉, 우리나라 출산율은 선진국에 비해 단기간에 아주 낮은 수준으로 감소한 것이다(지난 40년간 1/4 수준으로 감소).

합계출산율은 여성이 가임기간(15~49세) 동안 낳은 자녀 수로 출산행위가 종결되었을 때의 수준을 의미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최종적인 수준도 중요하나, 생애과정에서의 다른 변인들과의 연관성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연령별출산율에 대한 분석도 중요하다. 기간개념으로서 특정연령에서의 출산수준은 급격한 변화를 보인다.

가임기 초기인 15~19세에서 낳은 자녀 수는 1970년에 0.11명에서 1985년

0.05명으로 감소하였으며, 2000년부터는 0.01명에 감소하여 거의 무시할 수준이다. 20~24세 동안에 낳은 자녀 수는 1970년 0.97명으로 거의 1명 수준이었으나, 급격하게 감소하여 2009년에는 0.08명에 불과하다. 즉, 25세에 도달하기 전에 낳은 자녀 수는 1970년 당시에는 1.08명으로 비교적 많았으나, 2009년에는 0.09명으로 거의 자녀 출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주된 가임기층 중 하나인 25~29세에서의 출산자녀 수는 1970년 1.61명에서 2009년에 0.40명으로 1/4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 연령층에서의 출산자녀 수의 감소폭은 무려 1.2명으로 가임기 연령층 중 가장 크다. 10대와 20대에서 출산자녀 수가 계속적으로 감소한 것과 달리 30대에서의 출산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표 3-12〉 5세 기간 동안 낳은 출산 자녀 수 추이, 1970~2009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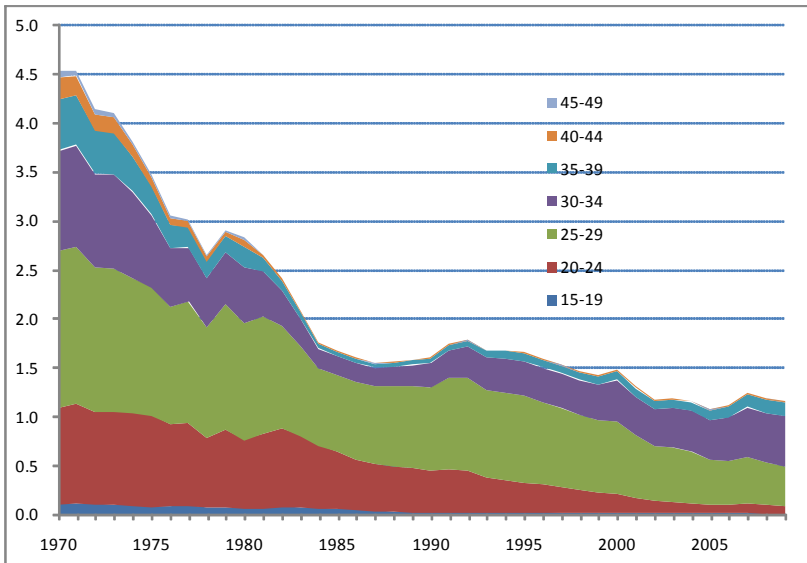
	5세 기간							TFR
	15~19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1970	0.11	0.97	1.61	1.02	0.52	0.22	0.06	4.530
1975	0.08	0.93	1.31	0.74	0.29	0.10	0.02	3.430
1980	0.06	0.70	1.20	0.57	0.20	0.08	0.03	2.820
1985	0.05	0.59	0.78	0.19	0.04	0.01	0.00	1.660
1990	0.02	0.42	0.85	0.25	0.05	0.01	0.00	1.570
1995	0.02	0.31	0.88	0.35	0.07	0.01	0.00	1.634
2000	0.01	0.19	0.75	0.42	0.09	0.01	0.00	1.467
2005	0.01	0.09	0.46	0.41	0.09	0.01	0.00	1.076
2009	0.01	0.08	0.40	0.50	0.14	0.02	0.00	1.149

주: 5세 기간 동안 낳은 자녀 수는 ASFR(연령별출산율)에 5년을 곱한 결과로, 이를 합할 경우 합계출산율(TFR)이 됨.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년도

또 다른 주된 가임기층인 30~34세에서 낳은 자녀 수는 1970년 당시 1.02명에서 1985년 0.19명으로 감소하였으나, 이후 증가세로 전환하여 2009년에는 0.50명으로 나타난다. 1970년 당시 30~34세에서의 출산자녀 수가 25~29세에 비해 적었으나, 2009년에는 오히려 많게 나타난다. 35~39세에서도 출산자녀 수가 1970년 당시 0.52명에서 1985년 0.04명까지 낮아졌으나, 이후 상승세로 전환하여 2009년에는 0.14명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

이 30대에서 출산자녀 수가 감소하다가 증가세로 전환한 주된 이유로는 소
자녀관으로 출산이 억제되었으나 만혼화로 20대에서 이루어졌어야 할 출산
일부가 지연되어 30대에서 발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물론 20대에서의 출
산자녀 수의 감소폭이 30대에서 지연효과로 인한 증가폭에 비해 월등히 커
전체적으로 출산율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40대에서의 출산 자
녀 수는 감소하여 최근에 거의 무시할 수준으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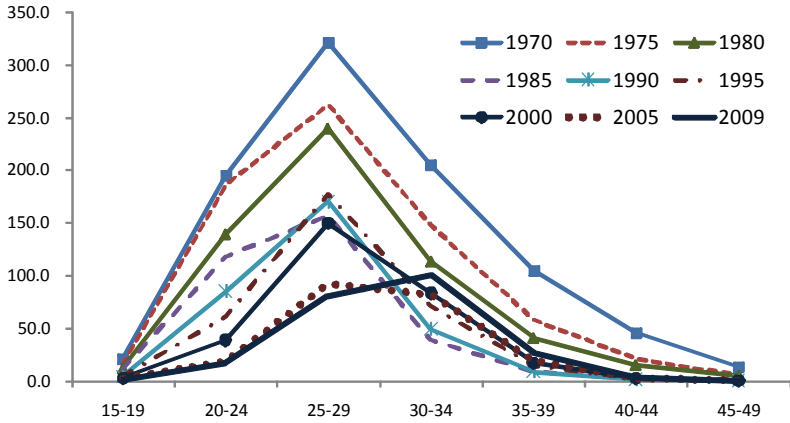
[그림 3-8] 5세 기간 동안 낳은 출산자녀 수 추이, 1970~2009



주: 5세 기간 동안 낳은 자녀 수는 ASFR(연령별출산율)에 5년을 곱한 결과로, 이를 합할 경우 합계출산율(TFR)이 됨

이와 같이 연령별출산율(평균 개념)은 전체 연령층에서 낮아졌으며, 만혼
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된 영향으로 인하여 20대 출산율은 더욱 낮아지는 반
면, 30대 출산율은 일정 시기 이후 반등하는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구체적
으로 과거에는 25~29세, 30~34세, 20~24세, 35~39세 등의 순으로 출산율
이 높았으나, 최근에는 30~34세 출산율이 25~29세 출산율을 그리고
35~39세 출산율이 20~24세 출산율을 각각 상회하기 시작하여 30~34세,
25~29세, 35~39세, 20~24세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난다.

[그림 3-9] 연령별출산율(ASFR) 패턴 변화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년도

생애과정의 관점에서 출산수준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인구센서스 자료를 이용하여 출산순위이행률(PPR: parity progression ratio)을 측정하기로 한다. 우선 유배우 여성의 연령별 평균 출생아 수를 살펴보면, 모든 연령층에서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13〉 가임기 유배우 여성의 평균 출생아 수 추이, 1970~2005

	(단위: 명)						
	1970	1975	1980	1985	1990	2000	2005
15~19세	0.5	0.5	0.5	0.4	0.3	0.5	0.4
20~24세	1.0	1.0	0.9	0.9	0.7	0.7	0.7
25~29세	2.1	2.0	1.8	1.5	1.3	1.1	0.9
30~34세	3.5	3.2	2.7	2.3	1.9	1.7	1.5
35~39세	4.5	4.1	3.4	2.8	2.4	1.9	1.9
40~44세	5.3	4.8	4.2	3.4	2.8	2.0	1.9
45~49세	5.6	5.2	4.7	4.1	3.4	2.3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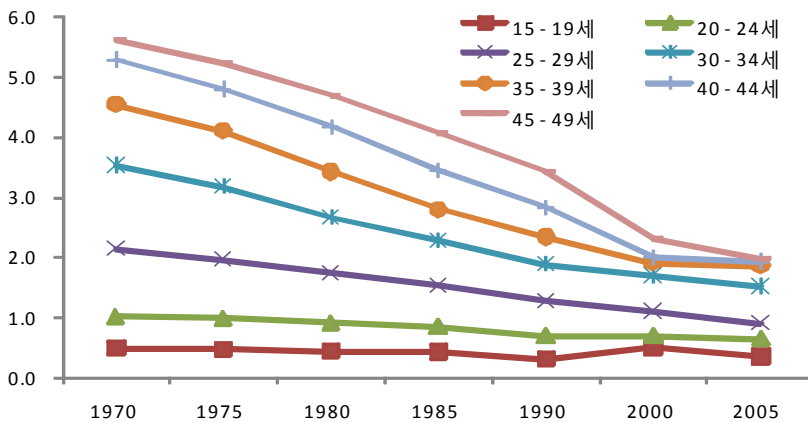
주: 1995년 인구센서스에서는 출생아 수가 조사되지 않았음.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년도

출산이 거의 완료된 35~39세 유배우 여성의 평균 출생아 수는 1970년 4.5명에서 2005년 1.9명으로 1/2 미만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출산

이 완료되는 시기인 45~49세 유배우 여성의 평균 출생아 수는 1970년 5.6명에서 2005년 2.0명으로 거의 1/3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이 고연령층에서 감소폭이 더 큰 이유로는 과거에는 40세에서도 출산이 상당 수준 더 진행된 반면(1970년도 예로 1.1명 추가), 최근에 올수록 30대에 출산을 종결하기 때문이다(2005년의 예로 보면 40세에서 추가로 이루어진 출산은 0.1명에 불과).

[그림 3-10] 유배우 여성의 평균 출생아 수 추이, 1970~2005



주: 1995년 인구센서스에서는 출생아 수가 조사되지 않았음.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년도.

코호트별로 출산종결 연령층인 45~49세에 도달할 당시를 기준으로 PPR를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무자녀에서 1자녀 출산으로 이행한 비율(PPR1)은 98% 수준으로 나타난다. 다만, 1951~1955년생과 1956~1960년생의 경우 96%와 95%수준으로 다소 낮게 나타난다. 이를 통해 최근에 만혼화와 무자녀 부부가 증가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이후 출산순위들 간 이행률은 고출산순위로의 이행시에 그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특히 최근 코호트 일수록 감소폭은 아주 크게 나타난다.

첫 자녀에서 둘째 자녀로의 이행률(PPR2)은 1921~1925년생 96.0%에서 1956~1960년생 83.9%로 낮아지나 그 속도는 완만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둘째자녀에서 셋째자녀로의 이행률(PPR3)은 1921~1925년생 93.3%에서 1956~1960년생 21.7%로 무려 72%포인트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난다. 셋째자녀에서 넷째자녀로의 이행률(PPR4)과 넷째자녀에서 다섯째자녀로의 이행률(PPR5)의 경우에도 과거 코호트와 최근 코호트 간 아주 큰 폭으로 감소하였음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PPR3 이상이 큰 폭으로 감소한 점은 최근 한국 사회에서 두 자녀까지의 출산은 보편적이나, 그 이상의 출산은 아주 드물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반증해주고 있다.

〈표 3-14〉 출생코호트별 Parity Progression Ratio, 45~49세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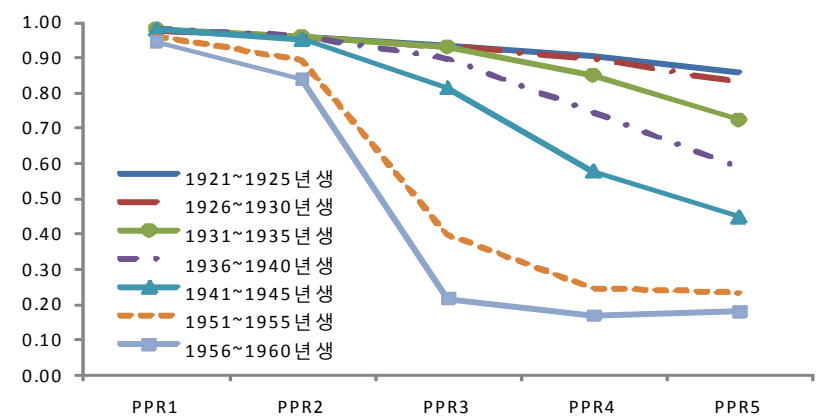
	Parity Progression Ratio(45~49세 여성 기준)				
	PPR1	PPR2	PPR3	PPR4	PPR5
1921~1925년생	0.978	0.960	0.933	0.904	0.859
1926~1930년생	0.978	0.958	0.931	0.897	0.827
1931~1935년생	0.982	0.962	0.932	0.850	0.722
1936~1940년생	0.982	0.959	0.898	0.744	0.588
1941~1945년생	0.980	0.951	0.812	0.577	0.449
1951~1955년생	0.960	0.894	0.399	0.246	0.232
1956~1960년생	0.945	0.839	0.217	0.169	0.180

주: 1995년 인구센서스에서는 출생아 수가 조사되지 않았음.

PPR1의 산정시 분모에는 결혼을 전히 하지 않은 여성도 포함함.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년도.

〔그림 3-11〕 출생코호트별 Parity Progression Ratio, 45~49세 기준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년도.

최근에 들어 대체적으로 출산이 30대에서 완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코호트별 35~39세 까지의 출생아 수를 기준으로 출산순위별 이행률을 분석하고자 한다. 35~39세 당시 무자녀에서 첫째자녀로 이행한 비율은 과거 코호트일수록 98%수준으로 높으나 최근 코호트일수록 급격하게 낮아져 1966~1970년생의 경우 88%로 낮다. 주된 이유로는 만혼화로 인하여 40대에서도 일부 출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이겠지만 더 궁극적인 이유로는 생애 전 과정에서 전혀 자녀를 출산하지 않은 비혼(독신)이나 무자녀 부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첫째자녀에서 둘째자녀로의 이행률은 1931~1935년생의 경우 96% 수준이나 1966~1970년생의 경우 82% 수준으로 다소 큰 폭으로 감소하여, 최근일수록 1자녀 출산에서 단산하는 여성의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둘째자녀에서 셋째자녀로의 이행률은 1931~1935년생의 경우 93%이나 1960년대 생의 경우에는 16%에 불과하여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둘째자녀 출산 후 단산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1946~1950년생과 1951~1955년생의 경우에는 3명에서 단산한 경향이 우세하다.

〈표 3-15〉 출생코호트별 Parity Progression Ratio, 35~39세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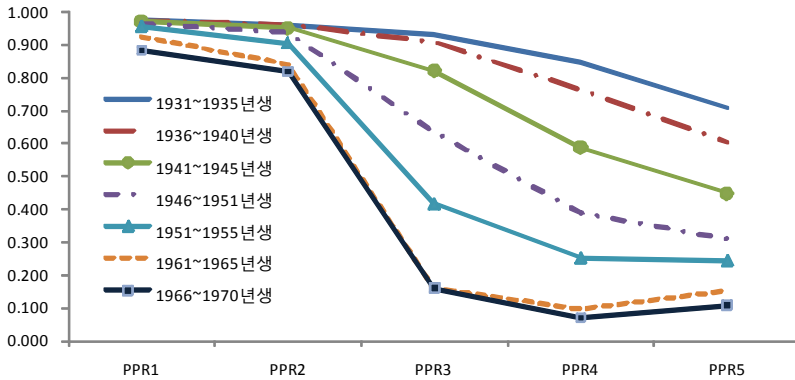
	Parity Progression Ratio(35~39세 연령 기준)				
	PPR1	PPR2	PPR3	PPR4	PPR5
1931~1935년생	0.977	0.958	0.930	0.847	0.706
1936~1940년생	0.973	0.959	0.907	0.763	0.604
1941~1945년생	0.971	0.950	0.820	0.587	0.448
1946~1951년생	0.964	0.936	0.633	0.389	0.309
1951~1955년생	0.954	0.902	0.416	0.252	0.244
1961~1965년생	0.924	0.839	0.160	0.096	0.151
1966~1970년생	0.883	0.819	0.161	0.072	0.109

주: 1995년 인구센서스에서는 출생아 수가 조사되지 않았음.

PPR1의 산정시 분모에는 결혼을 전제 하지 않은 여성도 포함함.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년도.

[그림 3-12] 출생코호트별 Parity Progression Ratio, 35~39세 기준



주: 1995년 인구센서스에서는 출생아 수가 조사되지 않았음.

PPR1의 산정시 분모에는 결혼을 전혀 하지 않은 여성도 포함함.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년도

2. 출산과 다른 생애과정과의 연관성

가. 교육참가와 출산

교육참가의 변화에 따른 출산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인구센서스 자료를 이용하여 교육정도에 따라 연령별 평균 출생아 수를 추정하였다. 교육 참가 정도는 초등학교 이하, 중·고등학교, 초대·전문대 이상으로 구분하였으며, 각각에는 동 교과과정의 재학, 중퇴 및 졸업 모두가 포함되어 있다.

완결출산력으로서 45~49세에서의 평균 출생아 수는 초등학교 이하 학력 여성의 경우 5.7명에서 2.2명으로, 중·고등학교 학력 여성의 경우 4.7명에서 2.0명으로, 초대·전문대 이상 학력의 여성의 경우 4.1명에서 1.9명으로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1970년 당시 완결출산력은 초등학교 이하 학력 여성(5.7명)과 초대·전문대 이상 학력 여성(4.1명) 간 무려 1.6명의 차이가 있었으나, 2005년에는 0.3명에 불과하다. 그만큼 저학력 여성의 출산율이 고학력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최근에 들어 30대에 출산이 거의 종료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35~39세에서의 출생아 수를 비교해보자. 초등학교 이하 학력 여성의 평균 출생아 수

는 1970년 4.7명으로 높으나, 2005년에는 1.9명으로 감소하였다. 중·고등학교 학력 여성의 경우 3.7명에서 1.9명으로, 초대·전문대 이상 학력 여성의 경우에도 3.0명에서 1.8명으로 감소하였다. 과거에는 30대 후반부터 학력 간 평균 출생아 수의 차이가 컸으나, 최근에는 그 폭이 줄어든 것이다. 동일연도에 연령 간 출생아 수의 차이도 줄어들었으며, 특히 저연령층에서 학력 간 출생아 수의 차이가 크나, 고연령층에서는 거의 없다. 이는 고학력 여성들의 경우 만혼화 등으로 출산을 늦추고는 있으나, 출산이 완결되는 시기에는 거의 저학력 여성만큼 출산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3-16〉 기혼여성의 학력별 연령별 평균 출생아 수

	1970	1975	1980	1985	1990	2000	2005
(단위: 명)							
초등 이하							
15~19세	0.5	0.5	0.5	0.6	0.5	0.5	0.2
20~24세	1.1	1.1	1.2	1.2	1.2	0.9	0.8
25~29세	2.4	2.2	2.1	2.0	1.8	1.5	1.1
30~34세	3.8	3.5	3.0	2.7	2.3	1.9	1.6
35~39세	4.7	4.4	3.8	3.2	2.8	2.0	1.9
40~44세	5.4	5.0	4.5	3.8	3.2	2.3	2.0
45~49세	5.7	5.4	4.9	4.4	3.8	2.6	2.2
중고							
15~19세	0.4	0.4	0.4	0.4	0.3	0.5	0.4
20~24세	0.8	0.8	0.8	0.8	0.7	0.8	0.7
25~29세	1.7	1.7	1.6	1.5	1.3	1.3	1.1
30~34세	2.9	2.7	2.4	2.2	1.9	1.8	1.7
35~39세	3.7	3.4	2.9	2.6	2.2	1.9	1.9
40~44세	4.3	3.9	3.4	3.0	2.6	2.0	1.9
45~49세	4.7	4.4	3.8	3.4	3.0	2.2	2.0
초대전문+							
15~19세	0.4	0.3	1.0	0.2	0.0	0.6	0.3
20~24세	0.7	0.6	0.5	0.4	0.4	0.5	0.5
25~29세	1.3	1.4	1.2	1.0	0.9	0.8	0.7
30~34세	2.4	2.3	2.1	1.9	1.6	1.5	1.4
35~39세	3.0	2.8	2.5	2.3	2.0	1.9	1.8
40~44세	3.6	3.0	2.9	2.6	2.3	1.9	1.9
45~49세	4.1	3.6	3.1	2.9	2.6	2.0	1.9

주: 1995년도 학력별·연령별 평균 출생아 수 자료는 제공되지 않음.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년도

교육 참가정도와 출산 간의 연관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학력 간 출산순위 이행률(Parity Progression Ratio)을 살펴보기로 한다. 대학 및 대학원 진 학률이 높아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고학력층을 좀 더 세분화하여 학력 간 출산순위이행률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관련 고학력층을 초대·전문대 이상을 초대·전문대, 대학교(4년제), 대학원(석사·박사 과정) 등으로 세분화하였다.

우선, 1951~1955년생 기혼여성들이 35~39세에 도달한 시기를 기준으로 출산순위이행률을 살펴보면, 학력 간 뚜렷한 차이가 존재한다. 출산순위이행률은 일관성 있게 모든 순위에서 대체적으로 고학력일수록 낮으며, 동일 학력계층에서는 고순위일수록 급격하게 낮아지는 양상을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초등학교 이하의 학력을 가진 경우 출산순위이행률은 PPR2까지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나, PPR3에서는 61.9%로 낮아지며, PPR4는 36.1%, PPR5는 29.5% 등으로 낮아진다. 중·고등학교 학력을 가진 경우에는 PPR2가 80% 이상이나 PPR3은 36.4%로 급격하게 낮아지며, 그 후에는 소폭으로 더 낮아지고 있다. 초대·전문대의 PPR1은 90.7%이나 대학원의 경우에는 80.1%로 낮다. PPR2는 초대·전문대의 경우 85.5%, 대학의 경우 86.0%, 대학원의 경우 77.0%로 낮아지며, PPR3은 초대·전문대 22.2%, 대학 19.1%, 대학원 17.8%로 급격하게 낮아진다. 즉, 고학력층일수록 출산순위이행률은 PPR3에서 아주 큰 폭으로 떨어지는 양상을 보여, 저학력층에서는 3자녀 이상을 출산하는 확률이 높은 반면, 고학력층일수록 2자녀에서 단산하는 확률이 높게 나타난다.

그러나 1961~1965년생 기혼여성들이 35~39세에 도달한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출산순위이행률은 앞서의 1951~1955년생 기혼여성들과 다른 양상을 나타낸다. 주된 특징들로는 출산순위이행률 PPR1과 PPR2의 경우 초등학교 이하 학력계층에 비해 중·고등학교 학력 계층의 경우 상대적으로 더 높다는 것과 고학력층과 마찬가지로 저학력층에서도 PPR3가 급격히 낮아졌다는 것이다. 전자는 저학력층일수록 열악한 건강수준 등으로 인하여 무자녀에서 1자녀로의 이행정도가 다소 낮을 수 있으나, 출산이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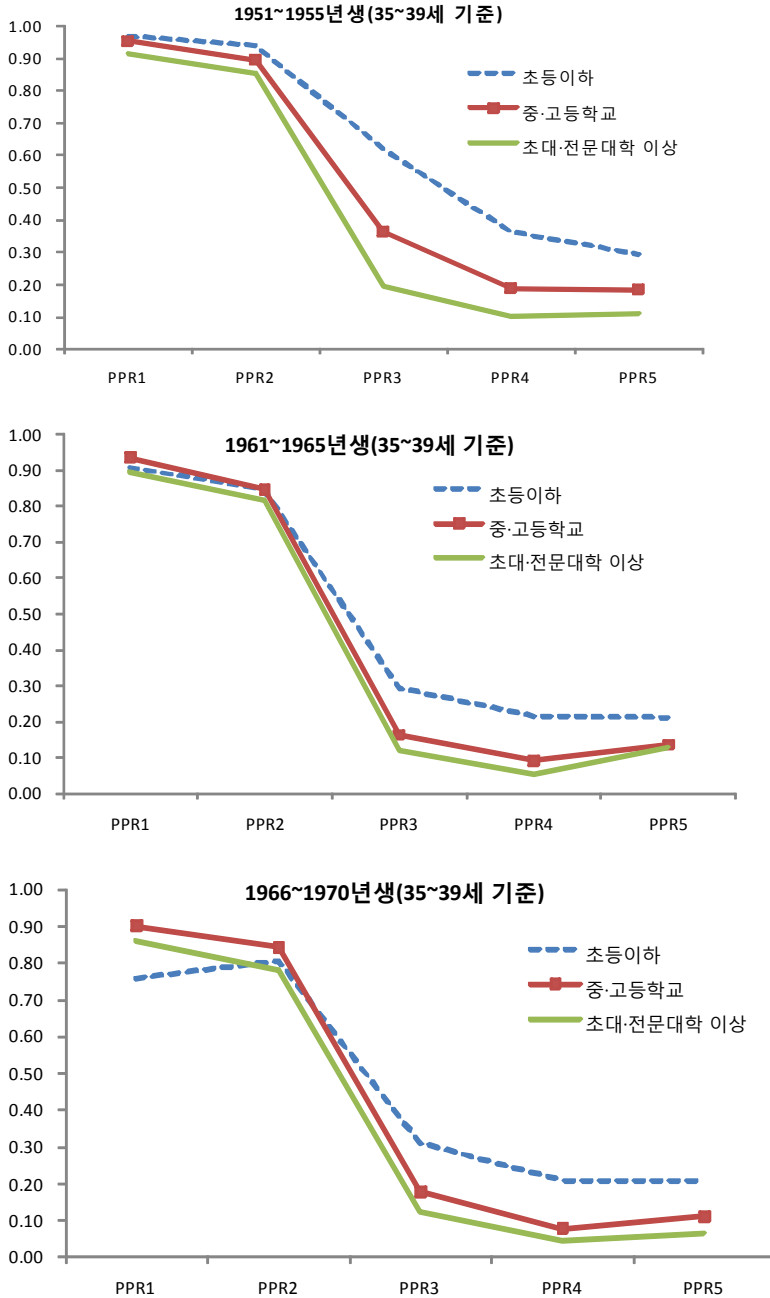
한 집단의 경우 고학력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행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후자는 1961~1965년생 기혼여성들은 학력과 상관없이 대체적으로 두 자녀 출산에서 멈추며, 그 경향성이 고학력일수록 더욱 큼을 시사해 준다.

〈표 3-17〉 기혼여성의 학력별 출산순위이행률(PP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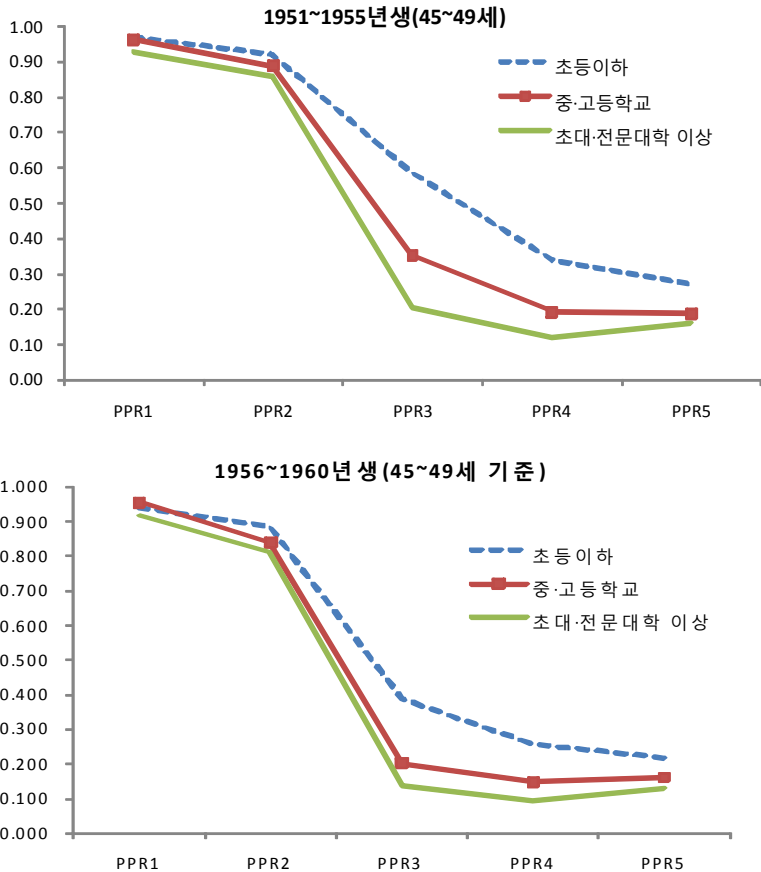
	Parity Progression Ratio					(단위: 명)
	PPR1	PPR2	PPR3	PPR4	PPR5	평균 출생아수
1951~1955년생(35~39세 기준)						
초등 이하	0.966	0.938	0.619	0.361	0.295	2.8
중·고등학교	0.954	0.895	0.364	0.189	0.185	2.2
초대·전문대학	0.907	0.855	0.222	0.101	0.078	2.0
대학(교)	0.925	0.860	0.191	0.102	0.119	2.0
대학원	0.801	0.770	0.178	0.125	0.120	1.8
1961~1965년생(35~39세 기준)						
초등 이하	0.906	0.844	0.291	0.216	0.211	2.0
중·고등학교	0.936	0.846	0.164	0.091	0.137	1.9
초대·전문대학	0.905	0.828	0.123	0.061	0.153	1.9
대학(교)	0.903	0.818	0.119	0.050	0.116	1.9
대학원	0.786	0.731	0.114	0.039	0.000	1.7
1966~1970년생(35~39세 기준)						
초등 이하	0.757	0.804	0.310	0.206	0.208	1.9
중·고등학교	0.902	0.843	0.179	0.078	0.111	1.9
초대·전문대학	0.873	0.805	0.137	0.045	0.076	1.8
대학(교)	0.866	0.779	0.118	0.044	0.052	1.8
대학원	0.745	0.687	0.109	0.046	0.136	1.6
1951~1955년생(45~49세 기준)						
초등 이하	0.967	0.921	0.585	0.340	0.270	2.6
중·고등학교	0.963	0.888	0.352	0.192	0.187	2.2
초대·전문대학	0.933	0.855	0.220	0.139	0.146	2.0
대학(교)	0.940	0.865	0.198	0.117	0.166	2.0
대학원	0.829	0.831	0.201	0.093	0.188	1.9
1956~1960년생(45~49세 기준)						
초등 이하	0.940	0.882	0.386	0.257	0.217	2.2
중·고등학교	0.953	0.838	0.202	0.148	0.161	2.0
초대·전문대학	0.918	0.805	0.153	0.116	0.101	1.9
대학(교)	0.925	0.816	0.134	0.085	0.130	1.9
대학원	0.830	0.790	0.139	0.072	0.221	1.8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년도

[그림 3-13] 기혼여성의 학력별 출산순위이행률(PPR)



[그림 3-13] 계속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년도.

이러한 경향성은 1966~1970년생 기혼여성들이(35~39세에 도달한 시점에 더욱 명확하게 나타난다. 구체적으로 초등학교 이하 학력을 가진 기혼여성들의 출산순이행률이 고출산순위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으나, 무자녀에서 1자녀 혹은 1자녀에서 2자녀로의 이행률은 상대적으로 낮다. 모든 학력계층에서 PPR3이 급격하게 낮아지며, 이후 고순위로의 이행률은 더욱 낮다. 이러한 경향성은 고학력층일수록 현저하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PPR1은 초대·전문대의 경우 87.3%로 낮으며, 대학원의 경우에는 74.5%로 더욱 낮다.

PPR2는 초대·전문대 학력의 경우 80.5%로 낮아지며, 대학원의 경우에는 68.7%로 더욱 낮아진다. PPR3은 초대·전문대 13.7%, 대학 11.8%, 대학원 10.9% 등으로 더욱 낮아진다.

출산이 완료되는 45~49세를 기준으로 산정한 1951~1955년생과 1956~1960년생 기혼여성들의 출산순위이행률은 이들이 35~39세 도달하였을 시에서의 이행률과 큰 차이가 없다. 구체적으로 1951~1955년생 기혼여성들의 출산순위이행률은 PPR2까지 모든 학력계층에서 높으나, PPR3의 경우 저학력층과 고학력층과의 차이가 상당 수준으로 벌어진다. 다만, 고학력층일수록 혼인 연기 등으로 출산 이행 속도가 다소 늦추어진 관계로, 35~39세에 비해 45~49세에 도달하였을 시에 학력 간 PPR3~PPR5의 차이가 다소 좁혀진 것으로 나타난다.

종합하면, 각 학력계층 간 출산순위이행률 수준은 아주 큰 차이가 있다. 모든 학력계층에서 둘째자녀 출산 이후 단산하는 확률이 높으며, 이러한 경향성은 최근 코호트일수록 그리고 고학력층일수록 높게 나타난다. 게다가 고학력층일수록 첫째자녀와 둘째자녀로의 출산이행비율도 낮고, 셋째자녀로의 출산이행비율이 더욱 급격하게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나. 경제활동과 출산

기혼여성들의 경제활동 여부별로 다소나마 출산수준이 다르게 나타난다. 2000년 인구센서스 결과를 이용하여 산정한 35~39세 기혼여성의 평균 출생아 수는 일을 하고 있는 경우(유업) 1.91명으로 일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무업) 1.92명에 비해 0.01명이 적다. 그러나 경제활동 여부별 평균 출생아 수의 차이는 고연령층에서 반대로 나타난다. 40~44세 여성으로서 유업의 경우 2.04명으로 무업의 경우 1.98명에 비해 오히려 0.06명이 많다. 45~49세 기혼여성들의 평균 출생아 수도 유업시 2.40명으로 무업시 2.23명에 비해 0.17명이 많다. 이러한 경향성은 2005년 인구센서스를 이용하여 산정한 연령별 평균 출생아 수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다만, 동일 연령

층에서의 평균 출생아 수는 유업과 무업의 모든 경우에 2000년에 비해 2005년에 상대적으로 더 적게 나타난다. 한편, 코호트별로 분석을 실시하지 않았다. 주된 이유로는 교육정도와 달리 경제활동여부는 시간 경과에 따라 변동이 크기 때문이다.

출산순위이행률을 살펴보면, 모든 연령층에서 유·무업 여부와 관계없이 둘째자녀(PPR2)까지의 확률은 높으나, 이후 셋째자녀로의 이행률(PPR3)는 급격하게 낮아지는 양상을 보인다. 35~39세에서의 출산순위이행률은 유업 여성집단에 비해 무업여성집단에서 상대적으로 수준이 높고 더디게 감소하나, 40대에 들어서는 반대로 나타난다. 이러한 경향성은 2005년도 인구센서스 결과를 이용한 결과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표 3-18〉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여부별 출산순위이행률(PPR)

(단위: 명)

	2000년					2005년				
	PPR1	PPR2	PPR3	PPR4	CEB	PPR1	PPR2	PPR3	PPR4	CEB
35~39세										
전체	0.964	0.839	0.160	0.096	1.92	0.883	0.819	0.161	0.072	1.87
유업	0.965	0.833	0.159	0.116	1.91	0.853	0.813	0.154	0.077	1.85
무업	0.964	0.844	0.161	0.080	1.92	0.909	0.823	0.166	0.068	1.88
40~44세										
전체	0.971	0.846	0.216	0.162	2.01	0.932	0.839	0.173	0.105	1.94
유업	0.974	0.851	0.232	0.182	2.04	0.929	0.842	0.178	0.114	1.95
무업	0.969	0.842	0.200	0.140	1.98	0.936	0.837	0.169	0.095	1.92
45~49세										
전체	0.977	0.894	0.399	0.246	2.31	0.945	0.839	0.217	0.169	2.00
유업	0.980	0.902	0.438	0.280	2.40	0.945	0.846	0.234	0.188	2.03
무업	0.975	0.886	0.362	0.209	2.23	0.945	0.832	0.202	0.149	1.96

주: CEB는 평균 출생아 수

PPRn는 출산순위 n-1에서 n으로의 이행률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년도

종합하면, 경제활동에 참가한 여성들이 30대에만 해도 경제활동에 참가하지 않은 여성들에 비해 출산순위이행률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고 이행 속도도 급격하게 감소하나, 40대에 들어서는 경제활동참가 여성집단이 비경제활동 여성집단에 비해 출산순위이행 수준이 높고 이행속도도 완만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수준에서 다소 차이가 있으나, 2000년과 2005년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주된 이유로는 경제활동 여성집단의 경우 결혼이나 출산을 연기하여 뒤 늦게 고출산순위로의 이행률이 높고 그 결과 평균 출생아 수가 높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출산 당시에 일을 하지 않고 보다 많은 출산을 한 여성집단들이 자녀들이 어느 정도 성장한 이후인 40대에 파트타임, 자영업 등의 형태로 노동시장에 진입하였기 때문으로도 볼 수 있다.

3. 결혼과 출산

한국 사회에서는 여전히 법률혼 부부로부터 출산한 출생아 수의 비중이 98% 수준으로 압도적인 만큼 초혼연령이 늦추어질수록 일정한 가임기간(15~49세) 중 남아있는 기간이 짧아지기 마련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육이나 경제활동의 생애과정이 과거보다 길어졌거나 아니면 다른 이유들로 인하여 점차 초혼시기가 늦추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초혼연령이 연장될수록 출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측정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생애과정들 중 결혼과 출산 간의 관계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2009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 결과를 이용하기로 한다. 앞선 분석에서 주로 사용한 인구센서스에서 초혼연령과 출산수준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적절한 자료를 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기혼여성(20~44세)의 초혼연령별 평균 출생아 수를 산정한 결과, 전체적으로 초혼연령과 출생아 수간에 부적인 관계가 나타난다. 구체적으로 초혼연령이 25세 미만인 경우 평균 출생아 수는 1.90명, 25~30세 미만인 경우 1.61명, 30~35세 미만인 경우 1.20명, 35세 이상인 경우 1.05명으로 초혼연령이 높을수록 출생아 수가 급격하게 감소함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부적인 관계는 연령대를 통제한 경우에 더 분명하게 나타난다. 조사 당시 대체로 출산을 완결한 40~44세 기혼여성의 평균 출생아 수를 초혼연령별로 살

펴보면, 25세 미만에 결혼한 경우 1.95명, 25~29세에 결혼한 경우 1.88명, 30~34세에 결혼한 경우 1.55명, 35세 이상에 결혼한 경우 1.12명으로 나타난다. 조사 당시 35~39세 기혼여성의 평균 출생아 수는 25세 미만에 결혼 시 2.08명, 25~29세에 결혼 시 1.84명, 30~34세에 결혼 시 1.38명, 35세 이상에서 결혼 시 0.98명으로 각각 나타난다. 이와 같이, 혼인 연령이 늦추어질수록 출생아 수가 감소하는 주된 이유로는 결혼이 늦어진 만큼 실질적인 가임기간이 축소되고, 늦어진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하여 후천성불임증 등의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적으로 정년이 짧은 점을 감안하면, 늦게 결혼하여 자녀를 가질 경우 노후에도 이들을 계속해서 부양하여야 한다는 심리적·경제적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이삼식·최효진 외, 2009).

〈표 3-19〉 유배우 여성(20~44세)의 초혼연령별 평균 출생자녀 수

초혼연령	유배우 여성의 현 연령					(단위: 명)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전체 (20~44세)
전체	0.82	0.99	1.47	1.82	1.85	1.65
25세 미만	0.82	1.54	1.89	2.08	1.95	1.90
16세	-	-	3.00	2.00	-	2.53
17세	1.00	2.35	-	2.34	1.88	2.12
18세	1.23	2.67	1.60	2.18	1.88	1.81
19세	1.04	1.66	1.84	2.05	1.87	1.79
20세	0.86	1.79	1.99	2.21	2.03	1.95
21세	0.98	2.13	1.96	2.14	2.07	2.01
22세	0.53	1.41	2.13	1.93	1.89	1.84
23세	0.59	1.24	1.80	2.01	1.94	1.86
24세	0.47	1.41	1.80	2.16	1.93	1.91
25~30세 미만		0.67	1.49	1.84	1.88	1.61
25세		1.16	1.83	1.87	1.99	1.80
26세		0.70	1.63	1.89	1.95	1.69
27세		0.50	1.63	1.80	1.82	1.58
28세		0.40	1.23	1.91	1.69	1.44
29세		0.17	0.96	1.65	1.80	1.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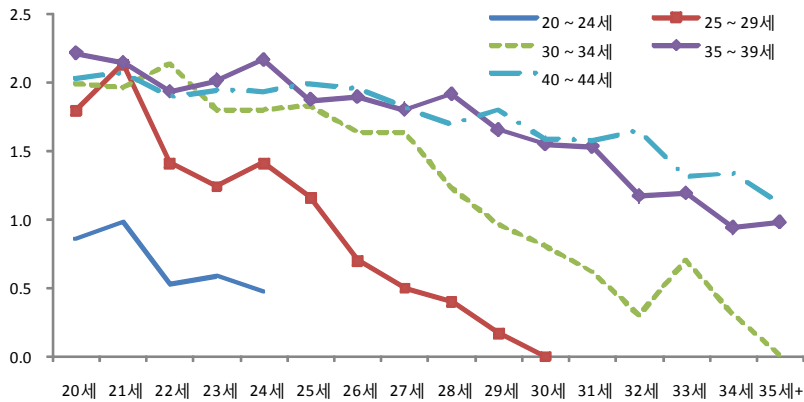
〈표 3-19〉 계속

(단위: 명)

초혼연령	유배우 여성의 현 연령					전체 (20~44세)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30~35세 미만		0.00	0.64	1.38	1.55	1.20
30세		0.00	0.81	1.55	1.59	1.27
31세			0.62	1.53	1.58	1.27
32세			0.30	1.17	1.64	1.00
33세			0.70	1.19	1.31	1.17
34세			0.31	0.94	1.34	1.00
35세 이상			0.00	0.98	1.12	1.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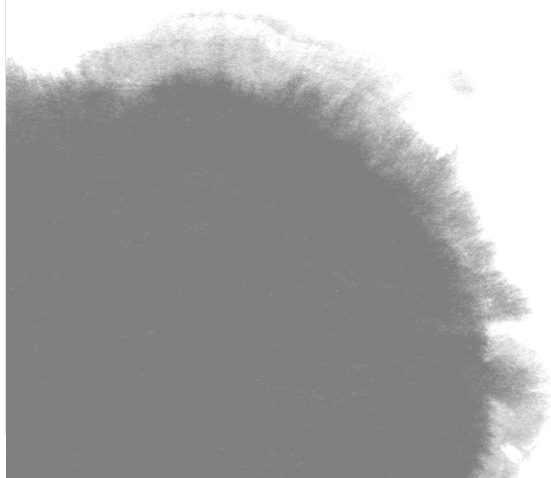
자료: 이삼식·최효진·오영희 외(2009). 『2009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 보건복지가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그림 3-14〕 유배우 여성(20~44세)의 초혼연령별 평균 출생자녀 수



04

생애과정간 연계성과 출산수준



제4장 생애과정간 연계성과 출산수준

지금까지는 교육참가, 경제활동참가, 결혼, 출산 등 각 생애과정별로 시대적 차이나 코호트별 차이를 분석하고, 이어서 각 생애과정과 출산간의 관련성을 규명하였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일부 코호트들을 선정하여 각 코호트가 경험한 생애과정들과 출산간의 연관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용 자료는 2009년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2009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로서, 본 조사에서는 교육, 경제활동, 혼인, 출산 등 일련의 생애과정별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종단면적인 접근을 시도한 바 있다. 이러한 자료는 본 분석에 목적으로 하는 출산력 변화에 관한 생애과정 간 연속적(혹은 종단면적) 분석에 적합하다.

궁극적으로 각 코호트별 분석 결과를 코호트 간 비교하여 생애과정의 변화에 따라 출산이 어떻게 변화하였는가는 측정하고자 한다. 분석대상 코호트는 센서링효과(censoring effect)가 크지 않은 즉, 결혼·출산이 거의 완료된 코호트들인 1965~1969년생(2009년 기준 40~44세)과 1970~1974년생(2009년 기준 35~39세)을 중심으로 하되, 최근의 경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참고적으로 1975~1979년생(2009년 기준 30~34세)과 1980~1984년생(2009년 기준 25~29세)에 대해서도 분석하기로 한다. 자료 부재로 본 분석은 기혼여성들에 한정하며, 그로 인하여 일부 결혼으로 아직 이행하지 못한 여성의 사례들은 누락되어 있음에 유의한다.¹⁾

1) 본 장에서 생애과정은 ‘교육·입직·결혼’ 등의 순서를 기초로 구성하였다. 일부의 경우, 역의 관계가 성립될 수 있으나 그 사례수가 미미하여 분석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미세한 것으로 판단된다.

제1 절 생애과정간 연계성 변화

우선 각 코호트별로 기혼여성들의 생애과정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1965~1969년생(2009년 기준 40~44세)²⁾ 기혼여성들은 평균 19.24세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진학 시 입학은 평균 19.30세에, 중퇴 혹은 휴학은 평균 21.96세에, 졸업은 평균 22.82세에 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 코호트에 속한 기혼여성들 중 경제활동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평균 24.27세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동 코호트의 평균 초혼연령은 25.59세이다.

다음으로 1970~1974년생(2009년 기준 35~39세)의 생애과정별 평균연령은 고등학교 졸업 19.11세, 대학 입학 시 19.18세, 중퇴·휴학 시 21.70세, 졸업 시 22.96세, 경제활동 시 입직 평균 23.56세, 초혼 26.32세로 각각 나타난다. 1975~1979년생(2009년 기준 30~34세)의 생애과정별 평균연령은 고등학교 졸업 19.18세, 대학 입학 19.28세, 중퇴·휴학 22.47세, 졸업 22.71세, 경제활동 시 연령은 평균 22.96세, 초혼연령은 평균 26.12세로 각각 나타난다.

코호트 간 비교에서 1965~1969년생에 비해 1970~1974년생의 교육, 경제활동, 초혼 등의 생애과정은 미세하나마 다소 길어진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1970~1974년생에 비해 1975~1979년생의 생애과정들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1975~1979년생 중 일부의 교육참가, 경제활동참가, 초혼 등 생애과정들이 채 완료되지 않아 평균에 계상되지 못한 이른바 센서링효과에 기인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효과는 1980~1984년생에게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이들의 고등학교 졸업 당시 연령은 평균 19.06세, 대학 입학 연령은 평균 19.09세, 대학 졸업 당시 연령은 평균 22.17세, 경제활동 시작 연령은 평균 22.09세, 초혼 연령은 24.59세로 각 생애과정을 통과한 시기가 앞선 코호트들에 비해 가장 어렵게 나타난다.

2) 조사당시 만 44세에 해당되는 1964년생도 일부 포함되어 있음.

〈표 4-1〉 기혼여성의 출생코호트별 생애과정 변화, 2009년 기준

(단위: 세, 명)

출생코호트	고등 졸업	대학 입학	대학 재학·중퇴	대학교 졸업	입직	초혼
1965~1969년생	19.24(1,246)	19.30(390)	21.96(9)	22.82(381)	24.27(1,040)	25.59(1,241)
1970~1974년생	19.11(1,138)	19.18(532)	21.70(14)	22.96(519)	23.56(872)	26.32(1,080)
1975~1979년생	19.18(786)	19.28(467)	22.47(5)	22.71(462)	22.96(568)	26.12(745)
1980~1984년생	19.06(280)	19.09(163)	20.52(4)	22.17(159)	22.09(197)	24.59(262)

자료: 보건복지가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 원자료 분석

각 코호트에 속한 모든 여성들이 고등학교 졸업, 대학 진학·중퇴(휴학·졸업, 취업, 결혼 등 일련의 과정을 동일하게 겪었다고 할 수 없다. 일부는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 진학이나 경제활동 없이 일정 기간이 지나 결혼을 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일부는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취업을 하였으며, 일정기간이 지나 결혼을 하였을 수 있다. 일부는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하여 졸업한 후에 취업을 하거나 아니면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바로 결혼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앞서 제시한 평균적인 개념의 생애과정별 시기를 이용하여 생애과정 간 소요기간을 산정하는 것이 다소 부정확할 수 있다. 동일한 코호트이라도 각기 다른 생애과정을 겪고, 이러한 각자의 생애과정이 결혼은 물론 출산의 시기와 수준에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따라서 여러 생애과정의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시나리오 간 결혼 및 출산의 차이를 살펴보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교육의 생애과정을 고졸 이하, 대학 3년 미만 수학, 대학 3년 이상 수학 및 대학원으로 세분화하고, 경제활동의 생애과정을 무직과 입직으로 세분화하여 초혼과 함께 조합하여 총 8개의 생애과정집단을 구성하였다. 이들이 각각의 생애과정을 도달하였거나 마쳤을 당시 연령을 살펴보기로 한다.

교육의 생애과정을 완료했을 당시 연령은 당연히 고학력층일수록 높으나, 직업을 가지지 않은 집단보다 직업을 가진 집단의 경우 학력을 이수할 당시 연령이 다소 높게 나타난다. 상급학교 진학 등을 이유로 일부가 교육기

간을 연장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구체적으로 고등학교 이하에서 학업을 마친 집단의 당시 연령은 무직시 18.90세, 입직시 19.10세로 나타난다. 대학 3년 미만 학력을 가진 집단의 당시 연령은 무직시 21.27세, 입직시 21.39세, 대학 3년 이상 학력을 가진 집단의 당시 연령은 무직시 23.41세, 입직시 23.61세로 각각 나타난다. 대학원 이상 집단의 경우 일부가 아직 학업을 진행하고 있어 연령을 산정하지 못했다.

입직시 연령은 학력수준과 정적인 관계를 보인다. 고졸 이하 학력을 가진 집단은 평균 23.41세, 대학 3년제 미만의 집단은 평균 23.66세, 대학 3년 이상 학력의 집단은 평균 25.55세, 대학원 학력 집단의 경우 평균 26.64세로 각각 나타난다. 교육의 생애과정과 입직 간의 소요 시간은 고졸 이하 학력 집단의 경우 4.31세, 대학 3년 미만 학력 집단의 경우 2.27세, 대학 3년 이상 학력 집단의 경우 1.94세로 각각 나타난다. 요컨대, 학력수준이 낮을수록 교육의 생애과정과 입직 간 상대적으로 긴 시간이 소요되며, 이에 따라 학력집단 간 학업종료 당시 연령의 차이가 어느 정도 상쇄되어 입직연령 차이를 줄이고 있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고용기회에서 학력수준 간 차이가 발생하며, 그로 인하여 실제 학업을 일찍이 종료한 경우에도 실제 결혼과 출산 연령에는 반영되지 못함을 함의한다.

결혼의 생애과정을 살펴보면, 고학력 집단일수록 초혼연령이 높으며, 동일 학력집단에서는 무직인 경우에 비해 경제활동을 한 경우에 상대적으로 초혼연령이 높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고졸 이하로서 경제활동을 한 생애 집단의 초혼연령은 평균 25.37세이며, 대학 3년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경제활동을 한 생애집단의 초혼연령은 27.11세로 두 생애집단 간 1.74세의 차이가 나타난다. 그리고 대학 3년 이상 학력 집단의 평균 초혼연령은 무직의 경우 26.21세이며, 경제활동을 한 경우 27.11세로 두 생애집단 간 0.9세의 차이가 있다.

이러한 경향성은 초산연령으로도 이어지거나, 고학력층인 경우 다소 더 확대되어 나타난다. 즉,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동일 학력수준인 경우 경제활동을 한 생애집단의 경우 초산연령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난다.

예로, 대학 3년 이상 학력 집단의 경우 경제활동을 한 경우 초산연령은 평균 28.43세로 무직인 경우 27.32세보다 1.11세나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요컨대, 교육의 생애과정과 경제활동의 생애과정이 상호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각 생애집단의 초혼과 초산 시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표 4-2〉 생애집단별 각 생애과정 도달시기, 35~44세(2009년 기준)

(단위: 세, 명)

생애과정 (교육-경제활동-결혼)	생애과정(연령)				사례수(n)
	교육	입직	초혼	초산	
고졸 이하-무직-초혼	18.90	-	25.39	26.50	273
고졸 이하-경제활동-초혼	19.10	23.41	25.37	26.55	1,143
대학 3년미만-무직-초혼	21.27	-	25.56	27.04	28
대학 3년미만-경제활동-초혼	21.39	23.66	27.11	28.24	164
대학 3년이상-무직-초혼	23.41	-	26.21	27.32	126
대학 3년이상-경제활동-초혼	23.61	25.55	27.11	28.43	443
대학원-무직-초혼	-	-	27.22	28.57	3
대학원-경제활동-초혼	-	26.64	28.38	29.80	20

자료: 보건복지가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9). 『2009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 원자료 분석.

〈표 4-3〉 생애집단별 생애과정 간 소요기간, 35~44세(2009년 기준)

(단위: 세, 명)

생애과정 (교육-경제활동-결혼)	생애과정(연령)			교육 후 초혼까지 소요기간	교육 후 초산까지 소요기간	사례수(n)
	교육-입직	입직~초혼 (교육~초혼)	초혼~초산			
고졸 이하-무직-초혼	-	(6.49)	1.11	6.49	7.60	273
고졸 이하-경제활동-초혼	4.31	1.96	1.18	6.27	7.45	1,143
대학 3년미만-무직-초혼	-	(4.29)	1.48	4.29	5.77	28
대학 3년미만-경제활동-초혼	2.27	3.45	1.13	5.72	6.85	164
대학 3년이상-무직-초혼	-	(2.80)	1.11	2.80	3.91	126
대학 3년이상-경제활동-초혼	1.94	1.56	1.32	3.50	4.82	443
대학원-무직-초혼	-	-	1.35	-	-	3
대학원-경제활동-초혼	-	1.74	1.42	-	-	20

자료: 보건복지가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9). 『2009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 원자료 분석.

제2절 생애과정간 연계성과 출산행태

조사 당시 어느 정도 출산이 완료된 35~39세인 1970~1974년생의 경우에도 교육과정 및 경제활동과정과 결혼·출산 행태 간의 관계는 앞선 코호트와 유사하게 나타난다. 즉, 교육과정이 길수록 초혼 시기가 늦어져, 초혼연령은 중졸 이하 학력 집단(23.89세)과 대학원 학력 집단(28.35세) 간에 무려 4.46세의 차이가 나타난다. 입직 시기가 늦어질수록 초혼연령이 늦추어지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입직연령이 30~34세인 여성집단의 초혼연령은 평균 28.81세로 입직연령이 16~19세인 여성집단의 24.73세에 비해 4.08세로 늦어진 것으로 나타난다. 예외적으로 입직연령이 35~44세인 여성집단의 평균 초혼연령은 25.97세로 입직연령이 상대적으로 빠른 여성집단에 비해 오히려 낮았는데, 전술한 바와 같이 자녀들을 어느 정도 양육한 후 늦게 경제활동을 시작한 여성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앞선 코호트와 유사하게 1970~1974년생의 교육기간 및 입직연령과 출산행태 간에 뚜렷한 연관성이 보이지 않는다. 예를 들어, 출생자녀 수는 중졸이하의 학력층에서 상대적으로 많고, 대학 학력 이상 고학력층의 경우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기대자녀 수는 고졸학력에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대학교 4년 초과, 2~4년 재학 등의 순으로, 학력과의 상관성이 아주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입직연령이 늦을수록 출생자녀 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예외적으로 30~34세에 입직한 집단의 경우 출생자녀 수가 두 번째로 많은데, 자녀 양육 후 뒤늦게 경제활동을 시작한 기혼여성들이 많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입직연령에 따른 기대자녀 수 및 자녀가치관의 변화는 불규칙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4-4〉 기혼여성(1970~1974년생)의 생애과정별 결혼·출산행태, 2009년 기준

(단위: 세, 명)

	초혼연령	n	출생자녀수	n	기대자녀수	n	자녀가치관	n
전체	26.29(3.7)	1,089	1.83(0.7)	1,171	2.02(0.6)	1,018	89.7	1,167
교육참가기간								
중졸 이하	23.89(4.2)	23	1.95(0.8)	24	2.02(0.8)	17	79.2	24
고졸	25.70(3.6)	596	1.86(0.7)	626	2.07(0.6)	539	90.0	622
대학 2년 이하	26.95(3.4)	111	1.88(0.6)	114	1.96(0.5)	101	89.5	114
대학 2~4년 이하	27.06(3.6)	281	1.76(0.7)	324	1.98(0.7)	288	91.0	323
대학 4년 초과	27.87(3.5)	63	1.80(0.5)	66	1.99(0.6)	59	90.9	66
대학원	28.35(3.0)	14	1.71(0.7)	16	1.77(0.6)	14	62.5	16
입직연령								
16~19세	24.73(3.2)	177	2.01(0.6)	180	2.17(0.5)	160	89.4	180
20~24세	26.23(3.0)	411	1.80(0.7)	429	1.98(0.6)	374	89.7	427
25~29세	27.75(3.2)	148	1.66(0.7)	159	1.86(0.6)	131	86.8	159
30~34세	28.81(5.0)	77	1.60(0.8)	77	2.05(0.7)	65	84.4	77
35~44세	25.97(4.2)	45	1.91(0.6)	46	1.97(0.6)	37	91.5	47

주: 1) 자녀관은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임.

자료: 이삼식·최효진·오영희 외(2009). 『2009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 보건복지가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각 생애과정을 어떻게 겪느냐에 따라 결혼이나 출산 행태가 달라질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이와 관련, 2009년 기준으로 출산이 어느 정도 완료된 40~44세인 1965~1969년생의 생애과정에 따른 결혼 및 출산 행태를 분석해보기로 한다. 우선 교육과정과 결혼 및 출산행태 간의 연관성을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교육기간이 길수록 초혼연령이 늦게 나타난다. 학력별 여성 집단의 평균 초혼연령은 중졸 이하의 경우 25.08세, 고졸 학력의 경우 25.19세, 대학 3년 미만 학력의 경우 26.79세, 대학 2~4년 재학의 경우 26.22세, 대학교를 4년을 초과하는 다년 경우 29.10세 등이다. 초혼연령이 가장 높은 학력집단과 가장 낮은 학력집단 간 차이는 4.02세로 나타난다. 한편, 대학교 4년 초과와 대학원 이상 학력을 가진 사례 수는 30명미만으로 대표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교육기간과 출산행태(출생자녀 수, 기대자녀 수 및 자녀가치관)와의 관계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출생자녀 수는 대학 2년 재학(졸업, 중퇴, 휴학 포함) 집단의 경우 1.90명으로 가장 많고, 대학 2~4년 재학(졸업, 중퇴, 휴학 포함)의 경우 1.83명으로 상대적으로 가장 적다. 한편, 대학교 4

년 초과와 대학원 이상 학력을 가진 경우는 사례수가 적어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대자녀 수는 대학 3년미만 집단의 경우 1.99명으로 가장 많고, 대학 2~4년 학력의 경우 1.90명으로 상대적으로 가장 적다. 자녀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반드시 가져야한다 + 가지는 편이 좋다)은 대학 2~4년 초과와 경우 92.5%로 상대적으로 가장 높고, 고졸이하의 집단에서 88.1%로 상대적으로 낮다.

경제활동을 처음으로 시작한 시기 즉, 입직연령이 늦을수록 초혼연령이 늦어지고, 출생자녀 수와 기대자녀 수는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예외적으로 입직연령이 35~44세인 경우에는 초혼연령과 출생자녀 수 및 기대자녀 수가 중간정도로 나타나는데, 이들 여성집단이 비교적 일찍 결혼하고 약 2명의 자녀를 낳아 어느 정도 양육한 후에 노동시장에 진입하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편, 입직연령과 자녀가치관 간에는 뚜렷한 경향이 나타나지 않는다.

〈표 4-5〉 1965~1969년생 기혼여성의 생애과정별 결혼·출산행태, 2009년 기준

(단위: 세, 명)								
	초혼연령	n	출생자녀수	n	기대자녀수	n	자녀관 ¹⁾	n
전체	25.58(3.9)	1,112	1.85(0.7)	1,171	1.94(0.7)	993	88.9	1,166
교육참가기간								
중졸 이하	25.08(4.8)	55	1.83(0.9)	58	1.96(0.9)	45	89.5	57
고졸	25.19(3.9)	742	1.84(0.7)	771	1.95(0.7)	641	88.1	770
대학 2년 이하	26.79(3.7)	82	1.90(0.6)	83	1.99(0.7)	73	89.2	83
대학 2~4년 이하	26.22(3.1)	207	1.83(0.6)	229	1.90(0.5)	204	92.5	227
대학 4년 초과	29.10(4.2)	19	1.94(0.8)	21	1.98(0.8)	21	76.2	21
대학원	28.00(4.8)	9	1.97(0.7)	9	1.81(0.6)	8	77.8	9
입직연령								
16~19세	23.67(3.0)	205	1.95(0.6)	206	2.00(0.5)	171	89.0	207
20~24세	25.59(3.2)	415	1.88(0.6)	427	1.98(0.6)	359	88.1	427
25~29세	27.82(2.4)	123	1.67(0.7)	130	1.76(0.7)	115	87.7	130
30~34세	28.25(5.6)	70	1.46(0.7)	70	1.58(0.7)	58	91.4	70
35~44세	25.24(5.2)	99	1.86(0.9)	100	1.94(0.8)	83	89.9	99

주: 1) 자녀관은 긍정적으로 응답(반드시 가져야 한다 + 가지는 편이 좋다)한 비율임.

자료: 보건복지가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9), 『2009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 원자료 분석.

교육-경제활동-결혼-출산 등의 생애과정 간 유기적인 연관성에 따른 출산 행태를 분석하기 위하여 생애과정집단들을 40개로 세분화하였다. 세분화 후 유효표본수가 충분하지 못한 집단(30사례 미만)들은 대표성 문제로 인하여 표에만 제시하고 상세한 분석은 생략하도록 한다. 즉, 사례수가 30명 미만인 21개 생애집단을 제외하면, 총 19개 생애집단들에 대해서만 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세분화 이전의 생애집단 간 평균 출생아 수를 비교해보면, 고졸 이하 학력, 대학 3년 이상의 학력, 대학 3년 미만의 학력 순으로 적으며, 학력이 동일한 경우 무직인 생애집단에 비해 경제활동을 한 생애집단의 경우 상대적으로 적다. 단, 대학원 학력 소지자는 사례수가 적어 대표성이 없는 관계로 고려하지 않았다.

〈표 4-6〉 생애과정집단별(대분류) 평균 출생아 수, 35~44세(2009년 기준)

(단위: 세, 명)

생애과정	출생아 수
고졸 이하-무직	1.91
고졸 이하-경제활동	1.83
대학 3년 미만-무직	1.92
대학 3년 미만-경제활동	1.88
대학 3년 이상-무직	1.91
대학 3년 이상-경제활동	1.76
대학원-무직	1.52
대학원-경제활동	1.85

자료: 보건복지가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9). 『2009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 원자료 분석.

세분화된 생애과정집단 간에는 일관성 있게 최종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학력수준이 동일한 경우에는 경제활동을 한 경우에, 그리고 학력수준과 경제활동경험이 동일한 경우에는 초혼연령이 높을수록 출생아 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고졸 이하 무직인 집단의 평균 출생아 수는 초혼연령이 25세 미만인 경우 2.14명, 초혼연령이 25~29세인 경우 1.89명, 초혼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1.35명으로 현격하게 낮아진다. 고졸 이하 학력을 가지면서 경

제활동을 한 경우에는 보다 이른 시기에 입직하고 보다 일찍이 결혼한 집단일수록 평균 출생아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25세 미만에 입직한 집단 중 초혼연령이 25세 미만인 경우 1.97명, 25~29세인 경우 1.90명, 30세 이상인 경우 1.33명이다. 25~29세에 입직한 집단 중 초혼연령이 25~29세인 경우 1.57명, 30세 이상인 경우 1.44명이다. 30세 이상에서 입직한 집단 중 초혼연령이 25세 미만인 경우 2.01명, 25~29세인 경우 1.94명, 30세 이상인 경우 1.19명으로 각각 나타난다.

이러한 양상은 모든 학력 및 직업경력 집단에서 유사하게 나타난다. 즉, 어느 두 생애과정들이 동일한 경우에는 다른 한 생애과정에 따라 출생아 수가 변화하게 된다. 예를 들어, 학력수준과 경제활동경험이 동일한 경우에는 초혼연령에 따라, 학력수준과 초혼연령이 동일한 경우에는 경제활동 유무에 따라, 그리고 경제활동 경험과 초혼연령이 동일한 경우에는 학력수준이라는 교육생애과정에 따라 출생아 수가 변화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고학력이고, 경제활동을 하고, 초혼연령이 늦을수록 출생아 수는 급격하게 줄어든다. 요컨대, 출생아 수는 생애과정들로서 교육, 경제활동, 결혼(초혼)이 상호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서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일부 생애과정 집단을 제외하면, 생애과정 간 상호작용을 통해 초혼과 초산 시기가 결정되며, 출생아 수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른 절에서는 교육-경제활동의 생애집단 간에 결혼행태의 차이와 교육-경제활동-결혼의 생애집단 간 출산행태의 차이가 유의미한가에 대하여 그리고 어떠한 생애과정의 조합들이 출산수준에 대해 보다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통계적으로 검증해 보았다.

〈표 4-7〉 세부적인 생애과정집단별 출생아 수, 35~44세(2009년 기준)

생애과정 (교육·경제활동·결혼)	생애과정(연령)				평균 출생아	사례
	교육	입직	초혼	초산		
고졸 이하·무직·(초혼)25세 미만	18.95	-	21.94	23.23	2.14	126
고졸 이하·무직·(초혼)25~29세	18.89	-	26.57	27.94	1.89	106
고졸 이하·무직·(초혼)30세 이상	18.85	-	33.06	33.71	1.35	41
고졸 이하·(입직)25세 미만·(초혼)25세 미만	18.98	19.93	22.62	24.15	1.97	426
고졸 이하·(입직)25세 미만·(초혼)25~29세	19.21	20.64	26.17	27.53	1.90	326
고졸 이하·(입직)25세 미만·(초혼)30세 이상	19.18	20.22	32.36	33.63	1.33	65
고졸 이하·(입직)25~29세·(초혼)25세 미만	18.20	27.12	21.17	22.98	1.75	17
고졸 이하·(입직)25~29세·(초혼)25~29세	19.22	26.07	27.41	29.17	1.57	89
고졸 이하·(입직)25~29세·(초혼)30세 이상	19.13	28.14	30.75	32.25	1.44	34
고졸 이하·(입직)30세 이상·(초혼)25세 미만	19.13	35.43	21.78	22.83	2.01	85
고졸 이하·(입직)30세 이상·(초혼)25~29세	19.09	35.70	26.39	27.30	1.94	48
고졸 이하·(입직)30세 이상·(초혼)30세 이상	19.32	32.97	33.58	34.67	1.19	52
대학 2년 이하·무직·(초혼)25세 미만	21.26	-	22.62	24.10	2.23	14
대학 2년 이하·무직·(초혼)25~29세	20.93	-	26.46	27.79	1.87	10
대학 2년 이하·무직·(초혼)30세 이상	21.82	-	32.76	33.93	1.22	4
대학 2년 이하·(입직)25세 미만·(초혼)25세 미만	21.03	20.84	23.14	24.17	2.08	32
대학 2년 이하·(입직)25세 미만·(초혼)25~29세	21.64	21.58	26.72	28.13	1.89	65
대학 2년 이하·(입직)25세 미만·(초혼)30세 이상	21.14	21.41	31.78	33.07	1.71	28
대학 2년 이하·(입직)25~29세·(초혼)25세 미만	-	29.00	21.00	24.00	2.00	1
대학 2년 이하·(입직)25~29세·(초혼)25~29세	20.82	26.47	27.85	28.83	2.15	14
대학 2년 이하·(입직)25~29세·(초혼)30세 이상	19.78	27.86	30.83	31.83	2.00	4
대학 2년 이하·(입직)30세 이상·(초혼)25세 미만	21.15	36.27	23.29	24.45	1.97	8
대학 2년 이하·(입직)30세 이상·(초혼)25~29세	23.10	35.31	27.09	28.39	1.60	7
대학 2년 이하·(입직)30세 이상·(초혼)30세 이상	22.44	31.48	33.55	34.49	1.04	5
대학 3년 이상·(입직)무직·(초혼)25세 미만	22.83	-	22.65	24.34	2.02	40
대학 3년 이상·(입직)무직·(초혼)25~29세	23.65	-	26.71	27.97	1.95	66
대학 3년 이상·(입직)무직·(초혼)30세 이상	23.33	-	31.61	32.07	1.67	20
대학 3년 이상·(입직)25세 미만·(초혼)25세 미만	22.49	21.40	23.11	24.97	2.02	61
대학 3년 이상·(입직)25세 미만·(초혼)25~29세	23.23	22.79	26.33	28.09	1.84	167
대학 3년 이상·(입직)25세 미만·(초혼)30세 이상	22.83	22.58	32.01	32.77	1.34	33
대학 3년 이상·(입직)25~29세·(초혼)25세 미만	22.71	28.23	23.09	24.09	1.48	10
대학 3년 이상·(입직)25~29세·(초혼)25~29세	24.30	25.83	27.72	29.15	1.74	65
대학 3년 이상·(입직)25~29세·(초혼)30세 이상	24.87	27.94	31.04	32.87	1.62	27
대학 3년 이상·(입직)30세 이상·(초혼)25세 미만	24.49	36.47	23.19	24.09	2.01	28
대학 3년 이상·(입직)30세 이상·(초혼)25~29세	23.39	36.28	26.27	27.31	2.05	18
대학 3년 이상·(입직)30세 이상·(초혼)30세 이상	26.85	32.66	34.06	35.99	0.99	33
대학원·무직·(초혼)25세 미만	-	-	-	-	-	-
대학원·무직·(초혼)25~29세	26.00	-	27.22	28.57	1.64	3
대학원·무직·(초혼)30세 이상	-	-	-	-	-	-
대학원·(입직)20세 이상·(초혼)20세 이상	24.59	26.89	28.38	30.02	1.85	20

자료: 보건복지가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9). 『2009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 원자료 분석.

제3절 생애과정간 연계성 변화가 출산행태에 미치는 영향

앞서 살펴본 생애과정과 출산력 간의 관계를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회귀모형을 적용하였다. 우선 교육과 경제활동의 생애과정들이 초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어서 결혼과정을 추가하여 생애과정들이 출산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대상 자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2009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로, 출산이 거의 완료된 코호트인 1965~1974년생이다. 통계패키지로는 SPSS(12.0)를 적용하였다.

1. 생애과정별 차이와 결혼행태 변화

생애과정이 초혼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다중회귀모형에는 종속변수로 초혼연령 그리고 독립변수로 현 연령, 교육과정 및 경제활동과정이 포함된다. 초혼연령과 현 연령은 연속변수로 만 연령(세)으로 측정되며, 교육과정은 학교급 등으로 구분하여 그리고 입직연령은 2세 간격으로 각각 가변수화(dummy variable)하여 포함된다.

〈표 4-8〉 생애과정이 결혼행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회귀모형 : 변수

구분	변수명	내용
종속변수	초혼연령	만 연령(세)
독립변수	교육과정	중졸 이하(준거집단), 고졸, 대학 2년 미만, 대학 2~4년, 대학 4년 초과, 대학원(각각 가변수 처리)
	경제활동과정	입직연령(세)으로 19세 이하(준거집단), 20~24세, 25~29세, 30~34세, 35~44세
통제변수	현재연령	만 연령(세)

우선 1965~1974년생(2009년 기준으로 35~44세) 코호트의 교육참가기간과 입직연령이 초혼연령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교육참가기간이 길수록 그리고 늦게 경제활동을 시작할수록 결혼(초혼)을 늦게 한 것으로 나타

난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의 통계표 분석 결과와 대체적으로 일치한다.

코호트를 1965~1969년생과 1970~1974년생으로 세분화한 결과, 일부 계층을 제외하면 전체모형의 결과와 유사하다. 1965~1969년생의 경우 입직연령이 35~44세인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alpha < 0.05$). 1970~1974년생의 경우에는 고등학교 졸업과 입직연령이 35~44세인 경우는 통계적 유의미하지 않다($\alpha < 0.05$). 주된 이유로 대학 이상인 경우에 비하여 고등학교 졸업인 경우 교육과정의 준거집단으로서 중졸이하와 기간 차이가 상대적으로 짧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한, 전술한 바와 같이 입직연령이 상대적으로 높은 35~44세 여성집단의 경우 비교적 일찍이 결혼하여 자녀를 양육한 후에 노동시장에 진출하였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표 4-9〉 다중회귀분석 결과 : 생애과정 변화가 초혼연령에 미치는 영향(2009년 기준)

	전체	1965~1969년생	1970~1974년생
	β	β	β
현 연령	-0.06 **	-0.04	0.01
교육참가기간(준거집단=중졸 이하)			
고등졸업	0.11 *	0.02	0.31 **
대학 3년 미만	0.16 ***	0.10 *	0.29 ***
대학 3년~4년 미만	0.19 ***	0.10 †	0.39 ***
대학 4년 초과	0.15 ***	0.10 **	0.27 ***
대학원	0.07 **	0.03	0.14 ***
입직연령(준거집단=19세 이하)			
20~24세	0.09 ***	0.11 **	0.07 *
25~29세	0.22 ***	0.24 ***	0.19 ***
30~34세	0.22 ***	0.23 ***	0.22 ***
35~44세	0.03	0.04	0.03
R^2	.12	.12	.12
Adj R^2	.12	.11	.11
F	30.33 ***	15.01 ***	14.42 ***
n	2,201	1,112	1,089

* $p < 0.05$, ** $p < 0.01$, *** $p < 0.001$

자료: 보건복지가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9). 『2009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 원자료 분석.

2. 생애과정별 차이와 출산행태 변화

다음으로 생애과정과 출산행태 간의 연관성에 대한 분석에서는 종속변수로 출생자녀 수, 기대자녀 수 및 자녀가치관을 적용하였다. 자녀가치관은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으로 구분되어 로지스틱회귀모형을 적용하였다. 출생자녀 수와 기대자녀 수는 명으로 다중회귀모형을 각각 적용하였다. 이들 모형에 공통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독립변수들 중 생애과정변수로 교육 참가정도, 입직연령 및 초혼연령, 그리고 통제변수로 거주지, 현 연령, 취업 여부 및 월평균가구소득이 포함된다.

〈표 4-10〉 생애과정이 출산행태에 미치는 영향 : 변수

구분	변수명	내용
종속변수	자녀가치관	긍정적 가치관(반드시 가져야 함, 가지는 편이 좋음)=1, 부정적 가치관(모르겠음, 필요 없음, 상관없음)=0
	출생자녀수	명
	기대자녀수	명
독립변수	교육과정	중졸이하(준거집단), 고졸, 대학 2년 미만, 대학 2~4년, 대학 4년 초과, 대학원(각각 가변수 처리)
	경제활동과정	입직연령 : 19세 이하(준거집단), 20~24세, 25~29세, 30~34세, 35~44세
	결혼과정	초혼연령(세)
통제변수	현재연령	만연령(세)
	거주지	도시=1, 농촌=0
	부인취업여부	취업=1, 비취업=0
	월평균가구소득	만원

우선 로지스틱회귀모형 결과, 교육, 경제활동 및 결혼의 생애과정들이 자녀가치관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alpha < 0.05$)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회귀분석 결과는 앞서 단순통계표에서 살펴본 내용과 거의 일치한다. 다만, 고학력층(대학원)과 입직연령 35~44세만이 자녀가치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구체적으로 교육과정 중 대학원 학력집단이 중졸 이하 학력집단에 비해 자녀가치관이 부정적($\alpha < 0.05$)이며, 입직연령

35~44세인 집단이 입직연령 19세 이하인 집단에 비해 긍정적($\alpha<0.1$)이다.

이러한 결과는 분석대상 집단을 두 코호트(1965~1969년생, 1970~1974년생)로 세분화한 모형에서 유사하게 나타난다. 1965~1969년생의 경우, 대학 4년 초과 학력집단이 중졸 이하의 학력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녀가치관이 부정적($\alpha<0.05$)이다. 다른 학력집단과의 연관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alpha<0.1$) 않다. 1970~1974년생의 경우에는 대학원 학력과 자녀가치관 간의 부정적인 관계가 나타나며($\alpha<0.05$), 앞서의 코호트와 달리 초혼연령이 늦어질수록 자녀가치관이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 4-11〉 로지스틱회귀모형 : 생애과정이 자녀가치관에 미치는 영향(2009년 기준)

	전체		1965~1969년생		1970~1974년생	
	B	S.E.	B	S.E.	B	S.E.
상수	2.51	1.28 [†]	0.32	3.13	6.12	3.04 [*]
거주지	0.22	0.20	0.43	0.28	0.09	0.29
현 연령	-0.03	0.03	0.05	0.07	-0.18	0.08 [*]
취업여부	-0.51	0.16 ^{**}	-0.57	0.22 ^{**}	-0.37	0.23
출생아 수	0.40	0.11 ^{***}	0.24	0.15	0.62	0.16 ^{***}
월 평균 가구소득	0.00	0.00 ^{**}	0.00	0.00 [*]	0.00	0.00 [†]
교육참가기간(준거집단=중졸 이하)						
고등졸업	0.06	0.36	-0.31	0.48	0.52	0.57
대학 2년 이하	-0.05	0.44	-0.30	0.61	0.35	0.65
대학 2~4년 이하	0.25	0.40	-0.07	0.55	0.72	0.61
대학 4년 초과	-0.37	0.50	-1.54	0.75 [*]	0.46	0.73
대학원	-1.71	0.60 ^{**}	-1.44	0.97	-1.71	0.83 [*]
입직연령(준거집단=19세 이하)						
20~24세	-0.07	0.17	-0.06	0.24	-0.15	0.26
25~29세	-0.13	0.24	0.14	0.35	-0.40	0.33
30~34세	0.16	0.32	0.73	0.50	-0.47	0.42
35~44세	0.59	0.36 [†]	0.64	0.45	0.54	0.62
초혼연령	-0.01	0.02	-0.04	0.03	0.04	0.03
-2LL	1381.3		712.2		647.6	
χ^2	62.13 ^{***}		35.02 ^{***}		48.14 ^{***}	
df	15		15		15	
n	2,130		1,061		1,069	

* $p<0.05$, ** $p<0.01$, *** $p<0.001$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9). 『2009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 원자료 분석.

종합하면 자녀가치관은 생애과정(교육참가기간, 입직연령, 초혼연령) 변화에 의하기보다 주로 다른 사회경제적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 로지스틱회귀모형에서 통제변수로 포함한 취업여부와 소득수준이 자녀가치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환언하면, 교육 참여 정도나 경제활동 참여 정도와 무관하게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가치관이 보편적으로 확산되어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생애과정이 출생자녀 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회귀모형 결과, 교육과정의 영향력은 모든 코호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alpha < 0.1$)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단순통계표에 의한 분석 결과와 일치한다. 교육참가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거나 반대로 긴 집단의 출생자녀 수가 적고, 중간수준의 교육참가기간이 이루어진 집단의 출생자녀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이른바 $\cap$ 자형에 다소 근사하기 때문이다. 저학력층의 경우 경제적 이유로, 고학력층의 경우 전문직종 취업 등에 따른 기회비용 상승으로 인하여 각각 출생자녀 수가 축소되어 나타난 현상으로 간주할 수 있다.

반면, 경제활동의 생애과정이 출생자녀 수에 미치는 영향력은 부분적으로나마 통계적으로 유의미($\alpha < 0.1$)한 것으로 나타난다. 1965~1974년생 코호트의 경우에는 입직연령이 아주 빠른 집단(19세 이하)에 비해 20대와 30대 초반에 직업활동을 시작한 집단의 출생자녀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1965~1969년생의 경우에는 25~29세와 30~34세, 1970~1974년생의 경우에는 20~24세와 25~29세 집단들의 출산자녀 수도 준거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코호트 간 다소 차이가 있으나 20대와 특히 30대 초반에 경제활동을 시작한 경우에는 결혼 및 출산 기회를 놓치거나 포기하는 경향성이 존재함을 짐작케 해준다.

모든 코호트에서 초혼연령이 늦어질수록 출산자녀 수가 적어지는 연관성이 강하게 나타난다(통계적 유의미성($\alpha < 0.001$)). 즉, 만혼화가 저출산의 주된 원인을 확인할 수 있겠다.

〈표 4-12〉 회귀모형 : 생애과정 변화가 출생자녀 수에 미치는 영향(2009년 기준)

	전체	1965~1969년생	1970~1974년생
	β	β	β
거주지	-0.06 **	-0.07 *	-0.04
현 연령	0.02	0.02	0.04
취업여부	-0.09 ***	-0.07 *	-0.12 ***
월 평균 가구소득	0.08 ***	0.02	0.13 ***
교육참가기간(준거집단=중졸 이하)			
고졸졸업	-0.03	-0.03	0.03
대학 2년 이하	0.04	0.05	0.07
대학 2~4년 이하	-0.02	0.00	0.00
대학 4년 초과	0.02	0.05	0.04
대학원	0.01	0.04	0.00
입직연령(준거집단=19세 이하)			
20~24세	-0.05 *	-0.02	-0.08 *
25~29세	-0.07 **	-0.08 *	-0.06 †
30~34세	-0.08 ***	-0.12 ***	-0.03
35~44세	-0.01	-0.02	0.02
초혼연령	-0.30 ***	-0.24 ***	-0.37 ***
R ²	.13	.09	.18
Adj R ²	.12	.08	.17
F	21.62 ***	7.88 ***	16.34 ***
n	2,135	1,072	1,062

* $p<0.05$, ** $p<0.01$, *** $p<0.001$

자료: 보건복지가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9), 『2009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 원자료 분석.

생애과정 변화가 기대자녀 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회귀모형 결과, 교육의 생애과정의 영향력은 예외 없이 전 교육참가기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alpha<0.1$)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교육참가기간에 상관없이 대체적으로 2자녀를 선호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경제활동의 생애과정들 중 기대자녀 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alpha<0.1$) 영향을 미치는 집단은 입직연령 25~29세와 30~34세(1970~1974년생의 경우 20~24세와 25~29세)이다. 이들 연령층에서 경제활동을 시작한 집단의 기대자녀 수는 보다 빠른 시기에 경제활동을 시작한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난다. 경제활동시기와 결혼 및 출산이 주된 시기와 일치하여 기대되는 자녀 수가 적어진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모든 코호트에서 초혼연령이 늦어질수록 기

재자녀 수가 적어지는 연관성이 강하게 나타난다(통계적 유의미성($\alpha < 0.001$). 즉, 만혼화가 기대자녀 수마저 줄이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표 4-13〉 회귀모형 : 생애과정 변화가 기대자녀 수에 미치는 영향(2009년 기준)

	전체	1964~1969	1970~1974
	β	β	β
거주지	-0.07 **	-0.07 *	-0.07 *
현 연령	-0.07 **	-0.03	0.01
취업여부	-0.05 *	-0.02	-0.09 **
월 평균 가구소득	0.03	-0.04	0.09 *
교육참가기간(준거집단=중졸 이하)			
고등졸업	-0.02	-0.03	0.07
대학 2년 이하	0.00	0.04	0.01
대학 2~4년 이하	-0.03	-0.02	0.02
대학 4년 초과	0.01	0.03	0.03
대학원	-0.02	0.01	-0.03
입직연령(준거집단=19세 이하)			
20~24세	-0.03	0.01	-0.08 *
25~29세	-0.08 **	-0.07 †	-0.10 **
30~34세	-0.05 *	-0.12 **	0.01
35~44세	-0.02	-0.02	-0.02
초혼연령	-0.18 ***	-0.22 ***	-0.15 ***
R^2	.06	.08	.06
Adj R^2	.05	.07	.05
F	8.03 ***	5.88 ***	4.14 ***
n	1,839	915	924

* $p < 0.05$, ** $p < 0.01$, *** $p < 0.001$

자료: 보건복지가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9). 『2009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 원자료 분석.

3. 생애과정간 연계성과 결혼 및 출산행태 변화

생애과정들을 연계·조합하여 초혼연령에 대한 결정력을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일부 세부 생애과정집단들에 한해 통계적으로 유의미($\alpha < 0.1$ 수준)한 것으로 나타난다. 준거집단인 고졸 이하·무직 집단에 대해 고졸 이하·25~29세 입직(0.11), 고졸 이하·30세 이상 입직(0.04), 대학 3년 미만·25세 미만 입직(0.07), 대학 3년 이상·25~29세 입직(0.13), 대학 3년 이상·30세

이상 입직(0.13) 등의 세부집단들은 초혼연령에 정적인 연관성을 가진다. 고졸 이하·25세 미만 입직 집단만이 준거집단에 비해 초혼연령에 대해 부적인 관계를 보이고 있다. 한편, 대학 3년 이상·무직과 25세 미만 입직의 경우 다른 무직집단인 고졸 이하 학력집단에 비해 초혼연령에 대한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상 결과를 통해 볼 때, 교육·경제활동의 생애과정들은 일부를 제외하면 대체적으로 상호작용을 통해 초혼연령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4-14〉 회귀모형 : 초혼연령에 대한 생애과정 간 연계성의 영향(35~44세 기혼여성)

생애과정	초혼연령
현 연령	-0.07 ***
생애과정집단(준거집단=고졸 이하·무직)	
고졸 이하·25세 미만 입직	-0.12 ***
고졸 이하·25~29세 입직	0.11 ***
고졸 이하·30세 이상 입직	0.04 †
대학 3년 미만·25세 미만 입직	0.07 **
대학 3년 이상·무직	0.02
대학 3년 이상·25세 미만 입직	0.03
대학 3년 이상·25~29세 입직	0.13 ***
대학 3년 이상·30세 이상 입직	0.13 ***
R ²	.86
Adj R ²	.82
F값	22.93 ***
n	2,200

* p<0.05, ** p<0.01, *** p<0.001

주: 대학 2년 이하·무직, 대학 2년 이하·25~29세 입직, 대학 2년 이하·30세 이상 입직, 대학원 전체 생애과정집단들은 사례수가 30건 미만으로 제외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9). 『2009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 원자료 분석.

생애과정들이 상호작용을 통해 출산행태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증해보기로 한다. 출산행태로서 출산자녀 수와 기대자녀 수는 연속변수로서 특성을 가지므로, 회귀모형을 적용하기로 한다. 준거가 되는 세부 생애과정집단으로는 고졸 이하·무직·25세 미만 초혼집단을 설정하였다.

우선 출생자녀 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성($\alpha<0.1$)을 가지고 부적 영향을 미치는 생애집단들로는 ‘고졸 이하·무직·30세 이상 초혼’, ‘고졸 이하·25세

미만 입직·30세 이상 초혼', '고졸 이하·25~29세 입직·25~29세 초혼', '고졸 이하·25~29세 입직·30세 이상 초혼', '고졸 이하·30세 이상 입직·30세 이상 초혼', '대학 3년 이상·25세 미만 입직·30세 이상 초혼', '대학 3년 이상·25~29세 입직·25~29세 초혼', '대학 3년 이상·30세 이상 입직·30세 이상 초혼' 등을 들 수 있다.

〈표 4-15〉 회귀모형 : 생애과정 간 연계성이 출생자녀 수 및 기대자녀 수에 미치는 영향(20~34세 기혼여성), 2009년 기준

생애과정	출생아수(β)	기대자녀수(β)
부인 현 연령	0.02	-0.07 ***
생애과정집단(준거집단 : 고졸 이하·무직·25세 미만 초혼)		
고졸 이하·무직·25~29세 초혼	-0.01	0.00
고졸 이하·무직·30세 이상 초혼	-0.11 ***	-0.04 †
고졸 이하·25세 미만 입직·25세 미만 초혼	0.03	0.05 †
고졸 이하·25세 미만 입직·25~29세 초혼	-0.01	0.01
고졸 이하·25세 미만 입직·30세 이상 초혼	-0.15 ***	-0.08 ***
고졸 이하·25~29세 입직·25~29세 초혼	-0.10 ***	-0.09 ***
고졸 이하·25~29세 입직·30세 이상 초혼	-0.09 ***	-0.05 †
고졸 이하·30세 이상 입직·25세 미만 초혼	0.02	0.03
고졸 이하·30세 이상 입직·25~29세 초혼	0.00	0.00
고졸 이하·30세 이상 입직·30세 이상 초혼	-0.16 ***	-0.09 ***
대학 2년 이하·25세 미만 입직·25세 미만 초혼	0.03	0.03
대학 2년 이하·25세 미만 입직·25~29세 초혼	-0.01	-0.01
대학 3년 이상·무직·25세 미만 초혼	0.02	0.00
대학 3년 이상·무직·25~29세 초혼	0.01	0.02
대학 3년 이상·25세 미만 입직·25세 미만 초혼	0.02	0.01
대학 3년 이상·25세 미만 입직·25~29세 초혼	-0.03	-0.03
대학 3년 이상·25세 미만 입직·30세 이상 초혼	-0.10 ***	-0.03
대학 3년 이상·25~29세 입직·25~29세 초혼	-0.04 *	-0.05 *
대학 3년 이상·30세 이상 입직·30세 이상 초혼	-0.16 ***	-0.06 *
R^2 (Adj R^2)	.110(.102)	.044(0.034)
F값	13.463 ***	4.348 ***
n	2,200	1,893

* $p<0.05$, ** $p<0.01$, *** $p<0.001$

주: 대학 2년 이하·25~29세 입직, 대학 2년 이하·30세 이상 입직, 대학원 전체 생애과정집단들은 사례수가 30건 미만으로 제외

자료: 보건복지가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9). 『2009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 원자료 분석.

회귀모형에 포함되었으나, 통계적 유의미성이 나타나지 않은 생애집단들로는 학력수준이 낮은데다가 일찍이 취업하고 일찍이 결혼을 한 집단 즉, ‘고졸 이하·25세 미만 입직·25세 미만 초혼’이다. 그리고 전문대 학력을 가지고 무직이거나 혹은 일찍 취업하고 일찍 결혼한 생애집단들이 주로 포함된다.

<표 4-16>은 생애과정들이 상호작용을 통해 기대자녀 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증한 결과이다. 기대자녀 수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세부 생애과정집단들로는 ‘고졸 이하·무직·30세 이상 초혼’, ‘고졸 이하·25세 미만 입직·25세 미만 초혼’, ‘고졸 이하·25세 미만 입직·30세 이상 초혼’, ‘고졸 이하·25~29세 입직·25~29세 초혼’, ‘고졸 이하·25~29세 입직·30세 이상 초혼’, ‘고졸 이하·30세 이상 입직·30세 이상 초혼’, ‘대학 3년 이상·25~29세 입직·25~29세 초혼’, ‘대학 3년 이상·30세 이상 입직·30세 이상 초혼’ 등으로 출산자녀 수에 대한 회귀모형과 거의 일치하고 있다. 이들 세부생애과정집단들은 기대자녀 수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학력수준의 영향을 덜하고 대신 높은 입직연령과 초혼연령의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끝으로 세부 생애과정집단들이 자녀가치관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해보기로 한다. 이들 집단들 모두 예외 없이 자녀가치관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alpha < 0.1$)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교육과정, 경제활동상태, 초혼시기 등 생애과정들을 어떠한 조합으로 경험하였을지라도 집단 간 자녀가치관의 차이가 그리 크지 않음을 의미한다. 과거 오랜 기간 동안 인구증가억제정책의 일환으로 벌였던 국민계몽운동의 영향으로 인하여 소자녀관이 보편화되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표 4-16〉 로지스틱회귀모형 : 생애과정간 연계성이 자녀가치관에 미치는 영향(20~34세 기혼여성), 2009년 기준

생애과정	B	SE
부인 현 연령	-0.01	0.03
생애과정 변화(준거 : 고졸 이하·(입직)무직·(초혼)25세 미만)		
고졸 이하·(입직)무직·(초혼)25세~29세	0.03	0.35
고졸 이하·(입직)무직·(초혼)30세 이상	0.53	0.64
고졸 이하·(입직)24세 이하·(초혼)25세 미만	0.02	0.23
고졸 이하·(입직)24세 이하·(초혼)25세~29세	0.09	0.24
고졸 이하·(입직)24세 이하·(초혼)30세 이상	-0.45	0.37
고졸 이하·(입직)25~29세·(초혼)25세~29세	-0.24	0.35
고졸 이하·(입직)25~29세·(초혼)30세 이상	-0.22	0.52
고졸 이하·(입직)30세 이상·(초혼)25세 미만	0.54	0.45
고졸 이하·(입직)30세 이상·(초혼)25세~29세	0.36	0.55
고졸 이하·(입직)30세 이상·(초혼)30세 이상	-0.33	0.42
대학 2년 이하·(입직)24세 이하·(초혼)25세 미만	0.06	0.60
대학 2년 이하·(입직)24세 이하·(초혼)25세~29세	-0.12	0.41
대학 3년 이상·(입직)무직·(초혼)25세 미만	0.00	0.53
대학 3년 이상·(입직)무직·(초혼)25세~29세	0.87	0.58
대학 3년 이상·(입직)24세 이하·(초혼)25세 미만	0.17	0.47
대학 3년 이상·(입직)24세 이하·(초혼)25세~29세	0.29	0.32
대학 3년 이상·(입직)24세 이하·(초혼)30세 이상	0.70	0.75
대학 3년 이상·(입직)25~29세·(초혼)25세~29세	0.21	0.46
대학 3년 이상·(입직)30세 이상·(초혼)30세 이상	-0.02	0.58
상수	2.61	1.02 *
-2LL	1488.679	
chi-square	12.285	
n	2,197	

* p<0.05, ** p<0.01, *** p<0.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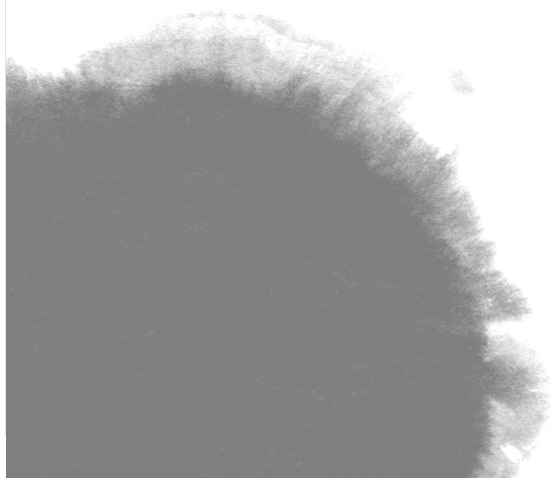
주: 1) 대학 2년 이하·25~29세 입직, 대학 2년 이하·30세 이상 입직, 대학원 전체 생애과정집단들은 사례수가 30건 미만으로 제외

2) 자녀가치관은 ‘자녀를 반드시 가져야 한다’와 ‘자녀를 갖는 편이 좋다’를 긍정적인 가치관으로 ‘1’을 부여하고, 나머지 ‘모르겠다’, ‘갖지 않은 것이 낫다’, ‘무관하다’ 등은 부정적인 가치관으로 ‘0’을 부여함.

자료: 보건복지가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9), 『2009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 원자료 분석.

05

결론 : 종합논의 및 정책적 제언



제5장 결론 : 종합논의 및 정책적 제언

지금까지 많은 연구들은 저출산의 원인을 미시적인 차원에서 다루고 있으며, 그에 따라 저출산 대책들도 자녀양육비용 지원, 일-가정 양립, 육아지원인프라 확충 및 질적 수준 제고, 가치관 변화 등의 미시적인 접근에 집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저출산 원인들을 거시적인 차원에서 규명하고, 이를 토대로 실효성 높은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출산행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교육, 경제활동, 결혼, 출산 등 생애과정(life course)의 연속선상에서 만혼화와 저출산을 야기되고 있는 메커니즘에 대해 체계적이고 계량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대상으로 통계청에서 실시한 「인구주택총조사」와 「인구동태조사」를, 그리고 보건복지가족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2009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의 결과가 주로 이용되었다. 분석기간은 1970년부터 현재까지이다. 연구방법으로 통계표(cross-tabulation) 분석, 지표(합계출산율, 출산순위간이행률, 초혼연령, 출산연령) 분석, 회귀모형, 로지스틱모형 등이 적용되었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주요 결과들과 그 시사점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가임기 여성들 사이에 고학력화 현상이 뚜렷하며, 특히 최근 코호트일수록 그 속도가 빠르게 진척되고 있다. 25~34세 여성들 중 초대·전문대 이상 비중은 2005년에 이미 50~60%대까지 높아졌으며, 대학 이상 비중은 30~40%대까지 그리고 석·박사 비중은 거의 5% 수준에 근접하였다.

둘째,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추세에 따라 전형적인 M-curve형태가 다소 약화되고 있으며, 주된 경력단절 연령층도 25~29세에서 30~34세로 이동하고 있다. M-curve형태의 완화 경향은 일·가정 양립에 의한 것이기 보다 결혼·출산을 연기하거나 포기하는 계층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여성의 만혼화 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최근 코호트일수록 결혼시기가 더욱 늦추어지고 있다. 최근의 만혼화 경향은 20대 후반과 30대 고학력 및 취업 여성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만혼화에 따라 출생아 수가 급격하게 감소하여, 40~44세 기혼여성이 25~29세에 결혼한 경우(1.88명)와 30~34세에 결혼한 경우(1.55명) 간 출생아 수 차이는 평균 0.33명으로 높다.

넷째, 출산시기가 점차 늦추어지고 있으며, 그 영향으로 출산횟수도 감소하고 있다. 만혼화 경향으로 인하여 20대에서의 출산 일부가 30대로 지연 발생하고 있으나, 20대에서 출산자녀 수의 감소폭이 커 전체적으로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다. 최근 코호트들 사이에서 둘째자녀에서 셋째자녀로의 이행률이 아주 낮아, 두 자녀 출산 후의 단산이 보편화되고 있다. 특히 최근 코호트들의 첫째자녀에서 둘째자녀로의 이행률은 80%수준으로 낮아져 1자녀 출산 후 단산하는 경향도 증가하고 있다. 또한, 최근 코호트일수록 만혼화와 불임 등으로 인하여 무자녀에서 첫째자녀 출산으로의 이행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 이와 같은 출산행태의 변화는 고학력 및 경제활동 여성들 사이에서 더욱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다섯째, 고학력일수록 교육종료연령과 입직연령 모두 높아 한국 사회에서 교육을 완전히 마친 후에 취업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다. 그러나 저학력층의 경우 일찍이 교육을 마쳤을지라도 취업을 하는데 상당기간이 소요되어 고학력층과 입직연령은 유사하다. 한국 사회에서 학력 간 고용기회의 차이로 인하여 교육기간이 결혼시기와 출산연령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동일학력을 가진 경우에도 취업 시 상급학교 진학 준비 등으로 교육종료연령이 높아지고 있다.

여섯째, 교육-경제활동의 생애과정에 따른 초혼연령은 고학력 집단일수록 높으며, 동일학력집단 중에서는 무직에 비해 경제활동 시 상대적으로 높다. 이러한 경향성은 초산연령으로도 이어지며, 특히 고학력층 사이에서 더 강하다.

일곱째, 교육-경제활동-결혼의 생애과정에 따라 출생아 수에 차이가 있다. 어느 두 생애과정들이 동일한 경우에는 다른 한 생애과정에 따라 출생아 수가 변화하게 된다. 예를 들어, 학력수준과 경제활동경험이 동일한 경우에는 초혼연령에 따라, 학력수준과 초혼연령이 동일한 경우에는 경제활동경험 유무에 따라, 그리고 경제활동경험과 초혼연령이 동일한 경우에는 학력수준이라는 교과생애과정에 따라 출생아 수가 변화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오랜 기간에 교육을 받고, 경제활동을 하고, 늦게 결혼할수록 출생아 수는 급격하게 줄어든다.

여덟째, 학력수준과 취업상태가 확일적으로 초혼연령에 영향을 미치기보다 교육-경제활동의 생애과정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구체적으로 교육기간이 짧으나 입직연령이 낮은 경우, 그리고 교육기간이 긴 경우에는 입직연령과 상관없이 상대적으로 늦게 결혼하고 있다. 반대로 교육을 덜 받고 동시에 일찍 경제활동에 참가한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일찍 결혼을 하고 있다. 긴 기간에 걸쳐 교육을 받았으나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 초혼연령은 불규칙적으로 나타난다.

끝으로, 출산행태가 학력수준, 경제활동상태 및 초혼시기에 의해 확일적으로 영향을 받기보다 연속선상에 있는 생애과정에 따라 영향을 받고 있다. 저학력이면서 경제활동상태 혹은 입직연령과 상관없이 30세 이상에서 결혼하는 경우, 저학력이면서 25~29세 이상에서 입직하고 25~29세에서 결혼한 경우, 대학 이상 학력의 여성으로서 입직연령과 상관없이 30세 이상에서 결혼한 경우에 출생아 수가 상대적으로 적다. 반면, 학력수준이 낮으면서 일찍 취업하고 일찍 결혼한 집단과 전문대 학력의 무직 혹은 일찍 취업하고 일찍 결혼한 집단의 출생아 수는 일관적이지 못하다. 생애과정에 따른 기대자녀 수의 차이는 일관성이 없어, 소자녀관이 보편화되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들은 궁극적으로 출산수준은 연속적인 생애과정으로서 교육, 경제활동 및 결혼의 상호 복합적인 작용에 의해 결정되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들이 생애과정의 어느 한 단면에 편중되기보다 생애과정 간 연속적인 흐름을 매끄럽게 해주는 소위 윤활유 역할을 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향후 저출산 대책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교육수준은 출산과 부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일반화되고 있으나, 본 연구의 결과 출산행태는 교육 후 경제활동 등 후속적인 생애과정들과의 연계성 하에서 결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우리사회에서는 학업을 마친 후 경제활동을 하는 순서가 규범화 되고 있다. 부분적으로 동일한 학력계층이라도 취업을 위하여 교육기간을 다소 연장하는 경향(졸업을 미루고 학교에 남아 과도한 스펙 쌓기에 전념)이 있으며, 교육기간이 상대적으로 짧더라도 입직연령이 늦어져 결과적으로 혼인시기와 출산시기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력 간 고용기회와 임금의 격차가 줄어들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토대로 일정한 교육을 마치고 취업한 후 원할 때 다시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work-to-school체계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후 진학 체제 구축(전문계 고졸 재직자 특별전형 개설대학·학과 확대, 계약대학, 사내대학 설치 등) 및 대학 평생교육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 사례로 핀란드에서는 학령인구를 위한 일반대학과 폴리테크닉에서 성인을 대상으로 한 고용시장 훈련 및 개방대학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모토로라 대학, 맥도널드 햄버거 대학 등 산업체가 사내에 교육장을 설치·운영하여 학력·학위를 인정하는 사내대학들이 설치·운영되고 있다(정부합동, 2010).

둘째, 입직연령을 낮추기 위해서는 맞춤형 교육 활성화, 기능대학의 확충 및 질적 수준 제고 등을 통해 학교와 직업현장을 밀접하게 연계할 수 있는 school-to-work(학교에서 현장으로) 체계가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대학의 취업지원 인프라(인력, 예산, 프로그램 등) 확충, 재학 중 체계적

직업상담, 취업프로그램 등 제공, 진로교육 지원시스템 마련, 직업심리검사 개발·보급(온라인화 등) 강화 내지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정부합동, 2010). work-to-school과 school-to-work 등의 방안들은 저출산·고령사회에서의 노동력 부족 등에 대처하는데 있어서도 매우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본 연구의 결과로서 고학력층은 입직연령과 무관하게 늦게 결혼을 하고, 그 경우 상대적으로 출산수준이 낮다. 이는 고학력층이 취업 시 기회 비용이 커져 쉽게 결혼하지 못하고, 결혼 후에도 출산이 억제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현실적으로 우리사회에서는 여전히 결혼생활 및 출산·양육과 직장생활 간의 양립이 곤란하여, 많은 직장여성들이 결혼을 늦추고 출산을 줄이고 있는 경향이 강하다. 요컨대, 일과 가정 간의 양립이 가능한 사회 구현이 고학력 취업여성의 결혼시기를 앞당기고, 희망하는 자녀 수의 출산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사회적 과제이다. 일-가정 양립을 일상화하기 위한 인식 개선과 함께 사회시스템의 개혁이 매우 긴요하다.

끝으로, 우리나라의 교육·노동시장 및 이를 둘러싼 환경 등을 감안하면 교육-고용-결혼-출산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생애과정의 흐름은 상당 기간에 걸쳐 장애에 부딪칠 것이다. 이에 따라 만혼화와 만산화 경향이 지속되어 저출산의 주된 원인으로서 계속 작용할 것이다. 요컨대, 사회시스템 내지 메커니즘의 개선이라는 근본적이면서 사전적인 접근이 매우 중요하나, 적어도 당분간 만혼화와 만산화 경향에 적절히 대응하는 사후적인 접근도 중요하다. 구체적으로 생애과정의 연속선상에서 불가피하게 선택할 수밖에 없는 만혼과 만산의 위험(risk)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다. 그 방안으로 고위험 임신, 저체중 출생아 및 미숙아 발생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모성 및 영유아에 대한 건강관리체계를 보다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마더세이프 프로그램 등과 같이 임신 및 수유 등에 관한 정보 제공과 교육 및 홍보를 체계화하여야 할 것이다. 질 높은 검진서비스 등을 증가시키고 재정적인 지원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로 일본에서는 고연령 임신부에게 양수검사, 초음파 검사 등을 정부가 제공해주고 있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저출산 해법으로서 자녀양육비용 지원, 육

아인프라 확충, 일-가정 양립 제고 등도 매우 중요하나, 저출산·고령화가 보다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 하에서는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노력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본 연구에서 도출하고 있는 분석 결과와 정책방안들은 저출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보다 거시적인 차원에서의 중장기적 접근법을 강구하는데 유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끝으로, 본 연구는 여러 한계점들을 내포하고 있다. 가장 주된 한계점으로는 생애과정의 관점에서 좀 더 치밀한 종단면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정된 자료를 이용한 관계로 출산과 직적 혹은 간접적으로 연관된 사건(event)들을 풍부하게 담아내지 못했다. 또한, 본 연구에 포함된 사건들에 관해서도 좀 더 상세하고 체계적인 연계분석을 실시하지 못했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점들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자료수집단계에서부터 연구의 목적들이 충분히 반영될 필요가 있겠다.

참고 문헌

- 김두섭(2005). 한국의 제2차 출산력변천과 그 인과구조. 인구와 사회, 1(1), pp.23-53.
- _____(2007). IMF 경제위기와 한국 출산력의 변화. 집문당.
- 김두섭·차승은·송유진·천희란·김정석(2007). 저출산 사회의 결혼, 자녀양육과 가족생활 연구. 한국인구학회·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태현·이삼식·김동희(2005). 출산력 저하의 원인: 출산행태 및 출산력 차이.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보건복지부.
- 권태환·김두섭(2002). 인구의 이해. 서울대학교 출판부.
- 박경숙·김영혜·김현숙(2005). 남녀 결혼시기 연장의 주요 원인: 계층혼, 성역할 분리규범, 경제조정의 우발적 결합. 한국인구학, 28(2), pp.33-62.
- 이삼식·신인철·조남훈·김희경·정윤선·최은영 외(2005). 저출산 원인 및 종합대책 연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삼식·박중서·윤홍식·조영태·김필숙·최은영 외(2007). 2006년도 출생아수 증가원인 분석 및 출생통계시스템 개선연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한경혜(1990). 산업화와 결혼연령 변화에 관한 이론적 고찰-가족전략의 관점에서. 한국사회학, 24, pp.103-120.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년도
- _____. 경제활동인구통계. 각 년도

Andersson, G. (2000). The impact of labour force participation on childbearing behaviour: procyclical fertility in Sweden during the 1980s and 1990s. *European Journal of Population* 16, pp.293-333.

_____ (2005). A study on policies and practices in selected countries that encourage childbirth: The case of Sweden. *Max Planck Institute for Demographic Research Working Paper WP2005-005*.

Beets, G. 1997. European Variations in Education and in Timing of First Birth: Primarily FFS Evidence. A Paper Presented in the 23rd General Population Conference of the IUSSP.

Choe, Kim Minja and Li Lei (1997). Later Marriage or No Marriage: An Examination of Marriage Pattern in Korea Using A Mixture Model for Duration Data. A Paper Presented in the 23rd General Population Conference of the IUSSP, 11-17 October 1997. Beijing.

Hoorens, S., A. Parkinson, and J. Grant. 2005. Sweden's varying success in offsetting low fertility. pp. 207-56. International Conference on low fertility and effectiveness of policy measures in OECD.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Ogawa, N. (2003). Japan's changing fertility mechanisms and its policy responses. *Journal of Population Research*, 20(1), pp. 89-106

Oppenheimer, V. K., M. Kalmijn and N. Lin (1997). Men's career development and marriage timing during a period of rising inequality. *Demography*, 34(3), pp.311-330.

Palomba R, Menniti A., Caruso M.G. (1997). Demographic changes, values and attitudes of young Italians. *IUSSP XXII General Conference*, Session 42, Pechino, 11-17 Ottobre.

- Retherford, R. D. and Ogawa, N., and Harris, F. R. (2006). Japan's Baby Bust: Causes, Implications, and Policy Responses. *Population and Health Series 118*.
- Retherford, R. D., Ogawa, N., and Matsukura, R. (2001). Late Marriage and Less Marriage in Japan.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27(1), pp.65-102.

간행물회원제 안내

▶ 회원에 대한 특전

-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판매용 보고서는 물론 「보건복지포럼」, 「보건사회연구」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며 일반 서점에서 구입할 수 없는 비매용 간행물은 실비로 제공합니다.
- 가입기간 중 회비가 인상되는 경우라도 추가 부담이 없습니다.

▶ 회비

- 전체간행물회원 : 120,000원
- 보건분야 간행물회원 : 75,000원
- 사회분야 간행물회원 : 75,000원

▶ 가입방법

- 홈페이지 - 발간자료 - 간행물회원등록을 통해 가입
- 유선 및 이메일을 통해 가입

▶ 회비납부

- 신용카드 결제
- 온라인 입금 : 우리은행(019-219956-01-014) 예금주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문의처

- (122-705)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68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지식관리센터
간행물 담당자 (Tel: 02-380-8234)

도서판매처

- | | |
|---|---|
| ■ 한국경제서적(총판) 737-7498 | ■ 교보문고(광화문점) 1544-1900 |
| ■ 영풍문고(종로점) 399-5600 | ■ 서울문고(종로점) 2198-2307 |
| ■ Yes24 http://www.yes24.com | ■ 알라딘 http://www.aladdin.co.kr |

신간 안내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 번호	서명	저자	가격
연구 2010-01	지역보건의료정책의 현황과 개선방안	이상영	5,000
연구 2010-02	화귀난치성질환자의 의약품 접근성 제고 방안	박실퍼아	5,000
연구 2010-03	해외의료시장 개혁의 투자효과 분석과 중장기 발전 전략	조재국	미정
연구 2010-04	식품안전분야의 사회적 위험 요인 중장기 관리전략 수립	정기혜	6,000
연구 2010-05	단체급식의 영양관리 개선을 통한 국민식생활 향상 방안	김혜련	미정
연구 2010-06	식품안전 규제영향분석의 실효성 제고 방안	곽노성	7,000
연구 2010-07	식품위해물질 모니터링 중장기 추진 계획 수립	김정신	5,000
연구 2010-08	간강보험 정책현황과 과제	신영석	7,000
연구 2010-09	의료비 과부담이 빈곤에 미치는 영향	신현웅	미정
연구 2010-10	국민연금기금 해외투자 환경 분석을 위한 주요 해외금융시장 비교 연구	원종욱	5,000
연구 2010-11	사회통합을 위한 복지정책의 기본방향	이태진	5,000
연구 2010-12	한국 제3섹터 육성방안에 대한 연구	노대명	8,000
연구 2010-13	기초보장제도 생계보장 평가와 정책방향	김태완	7,000
연구 2010-14	주거복지정책의 평가 및 개편방안 연구 : -기초보장제도 시행 10년 주거급여를 중심으로-	이태진	7,000
연구 2010-15	지활정책에 대한 평가 및 발전방향	노대명	7,000
연구 2010-16	2010년도 빈곤통계연보	김문길	미정
연구 2010-17	OECD 국가 빈곤정책 동향분석: 복지사본주의 체제 변화에 따른 공공부조제도의 조응성 분석	여유진	7,000
연구 2010-18	근로장려세제(ETC) 확대 개편방안의 효과성 분석 및 소득보장체계 연계방안 연구	최현수	8,000
연구 2010-19	이동복지정책 유형과 효과성 국제비교	김미숙	미정
연구 2010-20	공공 사회복지서비스 최자수준 설정을 위한 연구: 돌봄서비스를 중심으로	윤상용	8,000
연구 2010-21	사회복지서비스의 이용자중심 제도 운영에 관한 연구	강혜규	미정
연구 2010-22	장애인의 통합사회 구현을 위한 복지정책 연구: 장애인정책발전5개년계획 복지분야 중간점검	김성희	8,000
연구 2010-23	민간 복지자원 확충을 위한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의 모색	박세경	미정
연구 2010-24	자살의 원인과 대책연구: 정신의학적 접근을 넘어서	강은정	5,000
연구 2010-25	한국 노인의 삶의 변화 분석 및 전망을 통한 노인복지정책 개발	이윤경	미정
연구 2010-26	보건복지통계 발전방안 연구	송태민	7,000
연구 2010-27	보건복지통계 생산 표준화 방안 연구: 메타정보관리를 중심으로	손창균	6,000
연구 2010-28	2010년 한국의 보건복지 동향	장영식	6,000
연구 2010-29	지역별 보건통계 생산방안	도세록	6,000
연구 2010-30-1	저출산 원인과 파급효과 및 정책방안	이삼식	미정
연구 2010-30-2	생애주기 변화와 출산수준 간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교육 경제활동 및 결혼을 중심으로	이삼식	5,000
연구 2010-30-3	결혼행태 변화와 출산율의 상관성 연구	변용찬	5,000
연구 2010-30-4	출산관련 의식변화와 출산율간 인과관계 연구	김나영	6,000
연구 2010-30-5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자녀가치와 출산율 관계 연구	김은정	5,000
연구 2010-30-6	저출산의 거시경제적 효과분석	남상호	6,000
연구 2010-30-7	저출산·고령화가 가족형태 및 개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김은재(외부)	6,000
연구 2010-30-8	자녀 양육비용 추계와 정책방안 연구	신윤정	6,000
연구 2010-30-9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보험 개편방안	윤석명	미정
연구 2010-30-10	한국의 인구정책 동향과 전망	장영식	6,000
연구 2010-30-11	입양실태와 정책방안	김유경	미정

보고서 번호	서 명	저자	가격
연구 2010-30-12	인공임산증절 실태와 정책과제	최장수	미정
연구 2010-30-13	저출산 극복을 위한 불임부부 지원사업 현황과 정책과제	황나미	미정
연구 2010-30-14	저출산·고령화시대 노동력 부족과 인력활용 방안	염지혜	5,000
연구 2010-30-15	저출산정책 효과성 평가 연구	이삼식	5,000
연구 2010-30-16	저출산·고령사회 정보관리체계 및 통계DB 구축방안 연구	송태민	7,000
연구 2010-30-17	신노년층의 특징과 정책과제	정경희	6,000
연구 2010-30-18	베이비 부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정경희	10,000
연구 2010-30-19	에비노년층의 일과 여가에 대한 욕구와 정책적 함의	이소정	미정
연구 2010-30-20	신노년층(베이비붐세대)의 건강실태 및 장기요양 이용욕구 분석과 정책과제	선우덕	미정
연구 2010-30-21	신노년층의 소비행태 특성과 고령친화산업적 함의	김수봉	미정
연구 2010-30-22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관련 쟁점 연구	이소정	미정
연구 2010-31-1	2010 사회예산 분석	최성은	8,000
연구 2010-31-2	2010 보건복지재정의 정책과제	유근춘	미정
연구 2010-31-3	정부의 사회복지재정 DB구축에 관한 연구(4차년도): DB의 활용성 측면을 중심으로	고경환	7,000
연구 2010-31-4	사회복지 재정지출과 지방재정 부담에 관한 연구	최성은	미정
연구 2010-31-5	복지경영의 이론적 논의와 과제	고경환	6,000
연구 2010-31-6	공적연금 재정평가 및 정책현안 분석	윤석명	7,000
연구 2010-31-7	건강보험 재정평가	신영석	5,000
연구 2010-32-1-1	건강도시 건강영향평가 사업 및 기술 지원 제1권	김동진	8,000
연구 2010-32-1-2	건강도시 건강영향평가 사업 및 기술 지원 제2권	김동진	11,000
연구 2010-32-2	건강영향평가 DB 구축	서미경	미정
연구 2010-32-3	건강마을의 건강영향평가	최은진	5,000
연구 2010-33	보건의료자원배분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및 운영(3년차)	오영호	9,000
연구 2010-34	보건사회 기후변화 모니터링센터 운영 (1년차)	신호성	미정
연구 2010-35	취약위험 및 다문화가족의 예방맞춤형 복지체계 구축 및 통합사례 관리 (1년차)	김승권	미정
연구 2010-36	아시아 복지국가 자료 및 전략센터 구축 (1년차): 아시아 국가의 사회안전망	홍석표	8,000
연구 2010-37-1	2010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강신욱	14,000
연구 2010-37-2	2009년 한국복지패널 심층분석 보고서: 한국복지패널을 활용한 사회지표 분석	김미곤	6,000
연구 2010-38-1	2008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 보고서(Ⅱ)	정영호	미정
연구 2010-38-2	2009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정영호	미정
연구 2010-39	인터넷 건강정보 평가시스템 구축 및 운영 (10년차)	정영철	미정
연구 2010-40	보건복지통계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2년차)	이연희	5,000
연구 2009-01	의료서비스 질 및 효율성 증대를 위한 통합적 의료전달 시스템 구축 방안	신호성	7,000
연구 2009-03	신의료기술의 패턴 변화에 따른 의사결정체계의 발전방향 -의약품 허가제도와 약가제도를 중심으로-	박살비아	6,000
연구 2009-04	생애의료비 추정을 통한 국민의료비 분석 (I)	정영호	6,000
연구 2009-05	미충족 의료수준과 정책방안에 대한 연구	허순임	5,000
연구 2009-06	식품안전관리 선진화를 위한 취약점 중점 관리방안 구축	정기혜	7,000
연구 2009-07	부문간 협력을 통한 비만의 예방관리체계의 구축 방안 -비만의 역학적 특성 분석과 비만예방관리를 위한 부문간 협력체계의 탐색	김혜련	8,000
연구 2009-08	국가건강검진사업의 성과제고를 위한 수요자 중심의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방안	최은진	7,000
연구 2009-09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보장 확대적용 방안 - 국민연금에 중점으로 -	윤석명	7,000
연구 2009-10	글로벌 금융위기상행하의 국민연금기금의 운용방안	원종욱	8,000
연구 2009-11	건강보험 내실화를 위한 재정효율화 방안 -본인부담 구조조정 방안 중심으로	신현웅	6,000
연구 2009-12	A study for improving the efficiency of health security system the division of roles between public and private health insurance	홍석표	5,000

보고서 번호	서 명	저자	가격
연구 2009-13	사회수당제도 도입타당성에 대한 연구	노대명	7,000
연구 2009-14	저소득층 지원제도의 유형 및 특성	여유진	8,000
연구 2009-15	저소득층 금융지원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김태완	6,000
연구 2009-16	한국의 사회위기 지표개발과 위기수준 측정 연구	김승권	13,000
연구 2009-17	이동청소년복지 수요에 기반한 복지공급체계 재편방안 연구 II: 지역유형별 사례를 중심으로	김미숙	8,000
연구 2009-18	한국가족의 위기변화와 사회적 대응방안 -경제위기 이후 가족생애주기별 위기 유형을 중심으로	김유경	8,000
연구 2009-19	장애인 소득보장과 고용정책 연계 동향 및 정책과제	윤상용	8,000
연구 2009-20	사회자본과 민간 복지지원 수준의 국가간 비교연구: 자원봉사활동과 기부를 중심으로	박세경	6,000
연구 2009-21	사회복지부문별 정보화현황 및 정책적용방안	정영철	6,000
연구 2009-22	노인건강정책의 현황과 향후 추진방안: 일상생활기능의 자립향상을 중심으로	선우덕	7,000
연구 2009-23	노인의 생산활동 실태 및 경제적 가치 평가	정경희	6,000
연구 2009-24	보건복지가족부 웹사이트 통합 연계 및 발전방안 연구	송태민	7,000
연구 2009-25	한국의 보건복지 동향 2009	장영식	9,000
연구 2009-26-1	2009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모니터링 및 평가 -법제정 10년의 제도운영 점검-	이태진	10,000
연구 2009-26-2	가난한 사람들의 일과 삶 심리사회적 접근을 중심으로	이현주	6,000
연구 2009-26-3	근로빈곤층 지원정책 개편방안 연구	노대명	8,000
연구 2009-26-4	사회복지지출의 소득재분배 효과 분석	남상호	5,000
연구 2009-26-5	저소득층의 자산 실태 분석	남상호	5,000
연구 2009-26-6	2009년 빈곤통계연보	김태완	8,000
연구 2009-27-1	유럽의 능동적 복지정책 비교연구	홍석표	6,000
연구 2009-28	2008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	정영호	7,000
연구 2009-29	보건의료자원배분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및 운영 -2009년 보건의료자원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오영호	6,000
연구 2009-30-1	2009년 건강영향평가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제1권 (총괄)	강은정	10,000
연구 2009-30-2	2009년 건강영향평가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제2권 -건강영향평가 시범사업	강은정	11,000
연구 2009-31-1	2009 사회예산 분석	최성은	9,000
연구 2009-31-2	보건복지재정의 정책과제	유근춘	7,000
연구 2009-31-3	정부의 사회복지재정 DB구축에 관한 연구(3차년도): 중앙재정 세출 예산을 중심으로	고경환	6,000
연구 2009-31-4	보육지원정책의 적정성 및 효과성 분석	최성은	6,000
연구 2009-31-5	자활사업의 평가 연구: 정책설계와 정책효과 그리고 쟁점들	고경환	7,000
연구 2009-32-1	2009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손창균	14,000
연구 2009-32-2	2008년 한국복지패널 심층분석 보고서 - 한국복지패널을 활용한 사회지표 분석	여유진	6,000
연구 2009-33	2009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김승권	14,000
연구 2009-34-1	다문화가족 증가가 인구의 양적·질적 수준에 미치는 영향	이삼식	5,000
연구 2009-34-2	저출산에 대응한 육아 지원 인프라의 양적·질적 적정화 방안	신윤정	6,000
연구 2009-34-3	장기요양등급과자 관리를 위한 노인복지관과 보건소의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방안	오영희	6,000
연구 2009-34-4	노인자살의 사회경제적 배경 및 정책적 대응방안 모색	이소정	6,000
연구 2009-34-5	고령친화용품 소비실태 및 만족도에 관한 연구	김수봉	7,000
연구 2009-35	보건복지통계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이연희	6,000
연구 2009-36	2009 인터넷 건강정보 게이트웨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정영철	7,000